

전략연구 2018-44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정지은 · 이제이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여가 시간 확대는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의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문화적 가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앙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 큰 틀과 연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진흥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들의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 파악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전략수립을 제시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방법은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전문가 워크숍 개최, ③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④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①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분석의 시사점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은 문화시설의 기관들이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가들의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그들에게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진로 개척 역량과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중년(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업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해결방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는 ‘산업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을 충남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노년·장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은 기획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향후 충남 장년·노년층의 도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자 설문조사 분석의 시사점

현재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기획자)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모두 중점 교육 대상을 어린이로 선택하였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운영 및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충남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의 시사점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적합한 담당자로 ‘외부 문화예술 전문 강사(75.0%)’를

뽑았으며,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제 1순위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파견’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이 꼽힌 만큼, 향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도민의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함에 있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근무 시간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기존 공간(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학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정책 제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순환 생애주기별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으로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창의놀이형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사업은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충남문화재단의 지역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이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은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허브기관 연계 사업은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가칭) 개최’,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별 허브기관 지정’,

‘유아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자원(예술인, 예술강사 등) 및 문화자원(프로그램, 공간 등) 연구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맵핑 제작’ 등이다.

②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 육성 사업은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및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문화기반시설·교육청 등이 함께 연계한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K-POP 뮤지컬) 운영’,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기관과 MOU 체결’ 등이다.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충남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식공유 컨퍼런스 개최’,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범 교육과정 진행’, ‘충남교육청과 에프터 스쿨레협회 협약 체결 및 충남형 에프터 스쿨레 운영’ 등이다.

③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청년 기획자와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사업은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의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충남 내 예술대학 및 문화시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충남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청년 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이다.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을 위한 사업공모’, ‘충남 내 자격증 취득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맵핑 제작’, ‘지역 맞춤형 충남도민의 선순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이다.

직장인 및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은 ‘직장인 대상 ‘저녁에 만나는 문화예술학교’ 운영’, ‘충남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신설’, ‘충남 경찰청 협력사업 <문화파출소> 운영’ 등이다.

④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매개자 양성 사업은 ‘충남형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생애전환 세대(50+)를 위한 제2의 인생 찾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충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개설’ 등이다.

예술치유형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사업은 ‘충남 노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노년층을 위한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충남형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기 인생 대학 운영’ 등이다.

3.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 현장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연구 이후 2018년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변화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지속적인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연구를 2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충남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과제에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도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의 각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현황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와 차별성	8

제2장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동향

1.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추진 정책	10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	10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목표	11
3)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	12
4) 중앙 정부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	15
2.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30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례	30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35
3)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40
4)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43
3.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48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례	48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50
3)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53
4)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54
4.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59

제3장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61
2.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자 설문조사 분석	62
1)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62
2) 조사 분석의 개요	64
3) 충남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65
4)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79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84
3.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	86
1) 충남의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86
2) 조사 분석의 개요	89
3)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수요분석	90
4)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분석	94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02

제4장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1.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	103
1) 목표와 추진전략	103
2) 선순환 체계 구축	104
2.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105
1)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105
2)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113
3)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118
4)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요약 및 종합정리	130
2) 정책제언	132
2. 향후 연구과제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자문의견	139
부록 2. 전문가 워크숍	142
부록 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설문지	158
부록 4.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163
부록 5.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설문지	167
부록 6. 문화재단 관계자 설문지	174

표 목 차

[표 1-1] 전문가워크숍 개최 내용	5
[표 2-1]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 변화	12
[표 2-2]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규모	16
[표 2-3] 예술꽃 씨앗학교 선정 현황	18
[표 2-4]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현황	20
[표 2-5]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규모	21
[표 2-6]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원규모	23
[표 2-7]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24
[표 2-8] 아트 그라운드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시	32
[표 2-9] 교안의 구성	34
[표 2-10] 오디세이 학교 연혁	38
[표 2-11] 오디세이학교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39
[표 2-12] 덴마크 에프터 스콜레와 교육교류 일정	39
[표 2-13] Theatre works 사업목표	41
[표 2-14] 행복 페스티벌 진행표	43
[표 2-15] 지혜로운학교 - U3A 서울 상세 프로그램	44
[표 2-16] 경자씨와 재봉틀 상세 프로그램	46
[표 2-17]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 전과 후 참가자들의 변화	47
[표 2-18] 프로그램 컨설팅 선정기관 및 일정	49
[표 2-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받는 충남 문화예술교육사업(2018기준) ·	51
[표 2-20] 교육별 내용 및 일정	53
[표 2-21]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 추진일정	56
[표 3-1] 분석의 틀	61
[표 3-2]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현황(2017년 기준)	63
[표 3-3] 시설 유형별 이용자 분포(2018년 기준)	65

[표 3-4] 시설유형별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8년 기준)	66
[표 3-5] 시설유형별 사업비 예산(2018년 기준)	67
[표 3-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여부 및 프로그램 수(2018년 기준)	67
[표 3-7]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여부 및 시행요인(2018년 기준)	68
[표 3-8]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8년 기준)	69
[표 3-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2018년 기준)	70
[표 3-10]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여부(2018년 기준)	70
[표 3-11]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외부기관(2018년 기준)	71
[표 3-12]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형태(2018년 기준)	72
[표 3-13]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점(2018년 기준)	72
[표 3-14]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8년 기준)	73
[표 3-15]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계획	74
[표 3-16]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 대상	75
[표 3-17] 시설유형별 향후 중점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76
[표 3-18] 시설유형별 정책적 지원 과제	77
[표 3-19] 문화재단 인력 현황 및 교육담당인력 고용형태(2018년 기준)	79
[표 3-20] 문화재단 사업 분야(2018년 기준)	80
[표 3-21]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 및 여건(2018년 기준)	80
[표 3-22]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시행 맥락(2018년 기준)	81
[표 3-23]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2018년 기준)	81
[표 3-24]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조사 시행 여부(2018년 기준)	82
[표 3-25]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2018년 기준)	82
[표 3-26]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시행 의향 및 중요 사업(2018년 기준)	83
[표 3-27]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중점 대상	83
[표 3-28]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83
[표 3-29]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 분석(2018년)	85
[표 3-30]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85
[표 3-31]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기본방향	90

[표 3-32]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90
[표 3-33]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수업 형태	91
[표 3-34]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포함 내용	91
[표 3-35]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선정 요소	91
[표 3-36]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평가 방법	92
[표 3-37]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운영 방식	92
[표 3-38]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담당자	92
[표 3-39]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외부강사 요건	93
[표 3-40]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사항	93
[표 3-4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응답자 특성	94
[표 3-4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이전 경험	95
[표 3-4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97
[표 3-4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최근 1년간 참여 현황	101
[표 4-1]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역할분담	119

그림 목 차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4
[그림 1-2]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7
[그림 2-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과정	11
[그림 2-2]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비전과 전략	13
[그림 2-3]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14
[그림 2-4]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추진체계	16
[그림 2-5]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17
[그림 2-6] 예술꽃 씨앗학교의 특성	19
[그림 2-7] 꿈의 오케스트라 목표와 기본원칙	19
[그림 2-8]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추진체계	22
[그림 2-9]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23
[그림 2-10]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25
[그림 2-11]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추진체계	25
[그림 2-12] 노인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체계	27
[그림 2-13]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27
[그림 2-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28
[그림 2-15]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 추진체계	28
[그림 2-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29
[그림 2-17] 아트그라운드 내부 모습	30
[그림 2-18] 아트그라운드의 설치예술	31
[그림 2-19] 아트그라운드의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32
[그림 2-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계절이 보내준 선물’ 진행모습	33
[그림 2-21] 암벽 등반 프로그램과 기숙사 내부 모습	35
[그림 2-22] 오디세이학교 수업활동 모습	37
[그림 2-23] John Lewis:Why theatre is now a key part of retail	40

[그림 2-24] Theatre works의 프로그램	41
[그림 2-25] 행복페스티벌 개최 모습	42
[그림 2-26] U3A 로고와 음악 모임	43
[그림 2-27] 경자씨와 재봉틀 회원 사진	45
[그림 2-28] 극놀이 중심 유아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48
[그림 2-29] 반가워 미술관! 점·선·면展 진행모습	51
[그림 2-30] 예술꽃 씨앗학교의 교육과정	52
[그림 2-31] 업그레이드교육 프레젠테이션 청중심사 진행 모습	54
[그림 2-32] 당진문화예술학교의 프로그램	55
[그림 2-33] 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모습	56
[그림 2-34]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57
[그림 2-35] 어르신 추억만들기 영상제작의 스틸컷	58
[그림 2-36] 마을 추억 만들기 사업의 사진	58
[그림 3-1]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현황(2017년 기준)	64
[그림 3-2] 충남 시·군별 유년층(0~7세) 현황(2017년 기준)	86
[그림 3-3] 충남 시·군별 청소년층(8~19세) 현황(2017년 기준)	87
[그림 3-4] 충남 시·군별 청·장년층(20~59세) 현황(2017년 기준)	88
[그림 3-5] 충남 시·군별 노년층(60세 이상) 현황(2017년 기준)	89
[그림 3-6]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정보 획득 경로	96
[그림 3-7]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참여 이유	96
[그림 3-8]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세부 만족도	97
[그림 3-9]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효과	98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애로사항	98
[그림 3-1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보완점	99
[그림 3-1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분야	99
[그림 3-1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장소	100
[그림 3-1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프로젝트	100
[그림 3-15]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걱정 시간	101

[그림 4-1]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	103
[그림 4-2]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104
[그림 4-3]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06
[그림 4-4]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트그라운드 프로그램	107
[그림 4-5]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109
[그림 4-6] 극놀이 중심의 유아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110
[그림 4-7] '2017유아문화예술교육 학술회의' 발표 사례	112
[그림 4-8] 나도 K-POP스타! 10일 간의 기적	114
[그림 4-9] 덴마크 에프터 스콜레의 교육과정 및 충북교육청 교사 교류 협약	117
[그림 4-10]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추진 일정」	118
[그림 4-11]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터십 지원사업」 추진체계	121
[그림 4-12] 문화파출소 추진배경 및 문화파출소 강북 개소식	124
[그림 4-13] 아산문화재단의 장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26
[그림 4-14] 영국 U3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29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¹⁾

(1)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변화 유도 및 문화 향유 저변 확대

여가 시간 확대는 문화향유 및 여가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의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문화적 가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05년 208억 원 → '16년 1,760억 원),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300만 명의 수혜와 8천 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는 개인의 행복감 및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비경험자보다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 경험 후 문화소비 지불의사 2배 상승과 같은 문화향유 저변 확대의 효과도 드러났다.

중앙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 큰 틀과 연계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2) 수요자 특성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의 조성으로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1)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제정하고, 2007년에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발표,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5월)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법적 의무화(법 제6조 제1항)가 되면서, 2018~2022년 5개년 법정 종합계획인 「문화예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분권화」, 「정책 체계화」, 「수요 특성화」, 「융합과 확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수요 특성화」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청소년, 직장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충남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과제와 방안 도출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분권을 고려한 추진체계로 개편되고 있다. 중앙의 지침에 따른 하향식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은,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정책대상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여, 지역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민선 7기」 도정운영 방향은 도민 누구도 소외 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진흥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선행 1차 과제로, 2016년 충남연구원의 전략과제(「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계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략수립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진행된 과제의 내용을 참고하여, 충남 지역적 특색, 생애주기별 인구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충남 지역의 수요자 특성화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진흥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들의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 파악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전략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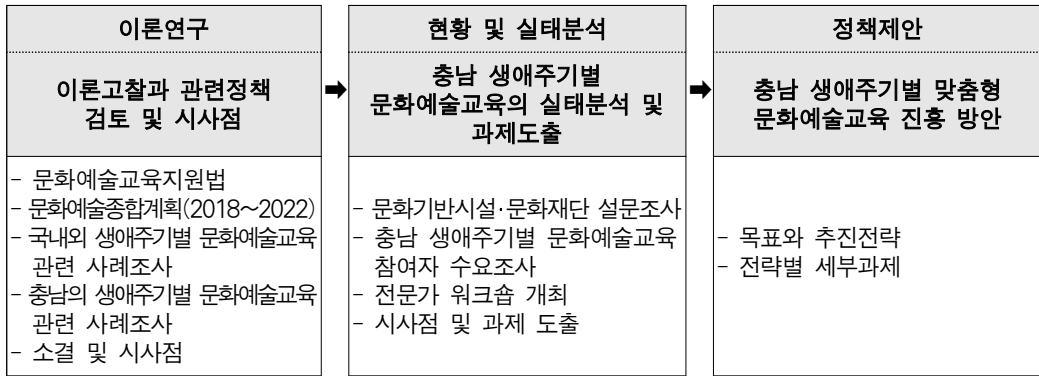
셋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전략수립을 제시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부터 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계자료 분석은 최근 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로 두었고, 연구 대상은 문화재단과 생애주기별(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수혜를 받은 충남 도민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관련 법률 및 「문화예술 종합계획(2018~2022)」),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현황,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문화기반시설·문화재단 설문조사, 사례조사, 참여자 수요조사) 및 과제도출,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등이다.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전문가 워크숍 개최, ③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④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 검토를 문헌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 종합계획(2018~2022)」을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중앙 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보고서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담고 있는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조사 항목 및 결과를 참고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워크숍 개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충남의 문화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2018년 5월 2일에 개최하였다. 충남도서관(내포신도시)에서 충남연구원과 충남도가 공동 개최한 「충남의 문화정책을 위한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 발맞춰,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본 행사에는 충남도와 시·군 문화정책 관계자,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 관계기관 담당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였다.

[표 1-1] 전문가워크숍 개최 내용

	주제	참석자
발제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김재경 본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손동혁 팀장 (인천문화재단)
	·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정지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자유토론	· 좌장 : 김보성 실장(대전문화재단) · 토론 : 이준관 과장(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이선미 장학사(충남도교육청) 변상섭 부장(충남문화재단), 문옥배 사무처장(당진문화재단) 이종원 차장(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김춘경 교수(동덕여자대학교)	

(3)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설문조사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문화재단 및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문화정책 담당자가 협업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담당자들에게 직접 조사하였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조사 항목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실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수행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실태분석 때 조사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의 조사 내용은 ① 기관의 일반적 현황,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③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위상,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후 시행계획, 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재단의 조사 내용은 ① 재단(센터)의 일반적 현황, ②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③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계획, 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4)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각 생애주기 도민(유아·강사·관계자,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장년·노년기)에게 2018년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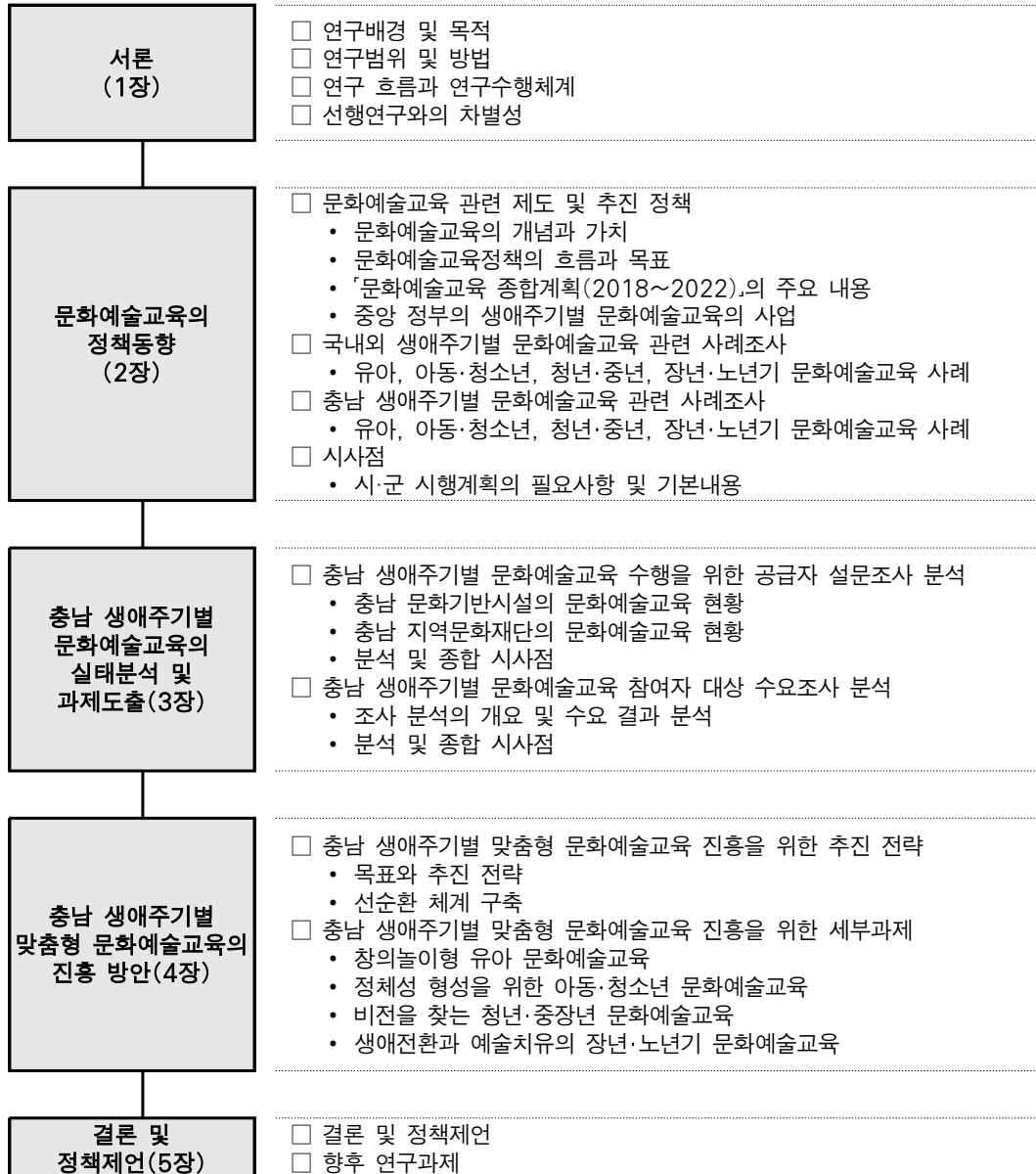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관련 조사 내용은 ① 문화예술교육 경험,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③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5)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 도출

전문가 워크숍,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흐름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연구, ②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 ③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연구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6년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및 2017년 연구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 방향」에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업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

최근에는 지역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진행된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자생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자원의 개념정립, 분류체계 마련 등에 관한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자원 현황과 환경진단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된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등이 있다.

(3)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주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2016년 연구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여건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 분석 및 과제를 도출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충남에서 처음 진행하였다.

(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내용과 목적에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앙 정부 주도로 수행된 전국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연구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진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 1차 과제로 진행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나아가 충청도민의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을 도출한다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중앙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광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동향

1.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추진 정책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가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과 교육의 합성어로,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예술교육은 음악·미술·연극 교육 등 개별 예술장르들의 교육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면서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경험과 예술적 감성을 계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득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관점에서 오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제3세계 이주민·여성·장애인·동성애자 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충남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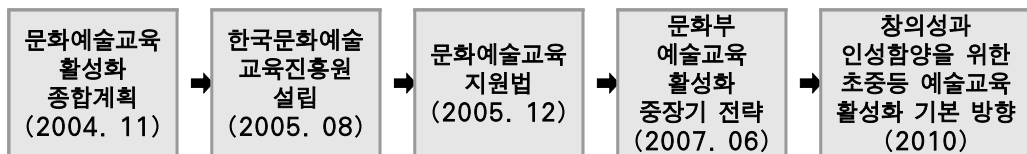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면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에서 진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감성·창의성·정체성·자존감·성찰력 등의 ‘문화적 가치’와 공감·소통·포용성·공동체성·사회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목표2)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2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 11)」이 문화예술교육의 첫 공식 추진계획이었으며, 이후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2005. 12)」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4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 06)」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두고 중점과제로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를 설정하였다.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 방향(2010)」은 2010년 유네스코 서울 선언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였으며, ①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②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③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④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실시, 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⑥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그림 2-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과정

2013년 국정과제 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핵심과제 선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문화예술교육사의 최초 배출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7)」 수립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을 비전으로 두고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등을 강조하였다. 이후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수립이 이루어졌다.

2) 인천문화재단(2018), 『Enhancing “ALL”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연구』, 17~20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표 2-1]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 변화

구분	제목	주요 내용
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최초의 문화예술교육 공식 추진계획
200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 구분
200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수립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기초지자체 문화예술교육 센터 지정 및 운영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추진기관
2010	유네스코 서울 선언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향」 발표
201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실현
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수립	◦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 강조
2018	문재인 정부 「문화비전 2030」 수립	◦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꿈꾸는 예술터」 사업 추진	◦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	◦ 최초의 법정계획 ◦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추진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자료: 인천문화재단(2018), 『Enhancing “ALL”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연구』.

3)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5월)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7)」이 종료되고, 2018~2022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문화예술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공급자·중앙 주도적 정책의 한계,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등이 꼽혔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그림 2-2〕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비전과 전략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국민의 향유역량 증진이 필수적이나, 계층별 격차가 존재하기에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문화예술교육 지속성장과 질적 제고’라는 목표 하에 3대 추진전략 (①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②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③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의 추진전략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 파악을 전제로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 전 연령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유아’는 유아 대상 창의놀이 교육 확대, ‘아동·청소년’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및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청년·중장년’은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장년·노년’은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 연령층’은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50세에서 64세의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조성된 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01.11).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그림 2-3)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4) 중앙 정부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³⁾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고, 중앙 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한정) 관련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분류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인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의 문화예술교육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1) 유아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유아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초중등시기에 비해 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생애 기초학습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며, 음악·미술·체육 관련 유아 경험은 언어 인지적 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기초학습능력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유아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놀이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예술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했으며,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우수 콘텐츠 컨퍼런스도 개최하였다. 특히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누리과정⁴⁾과 연계하여 유아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미술관·박물관 등 전국 문화시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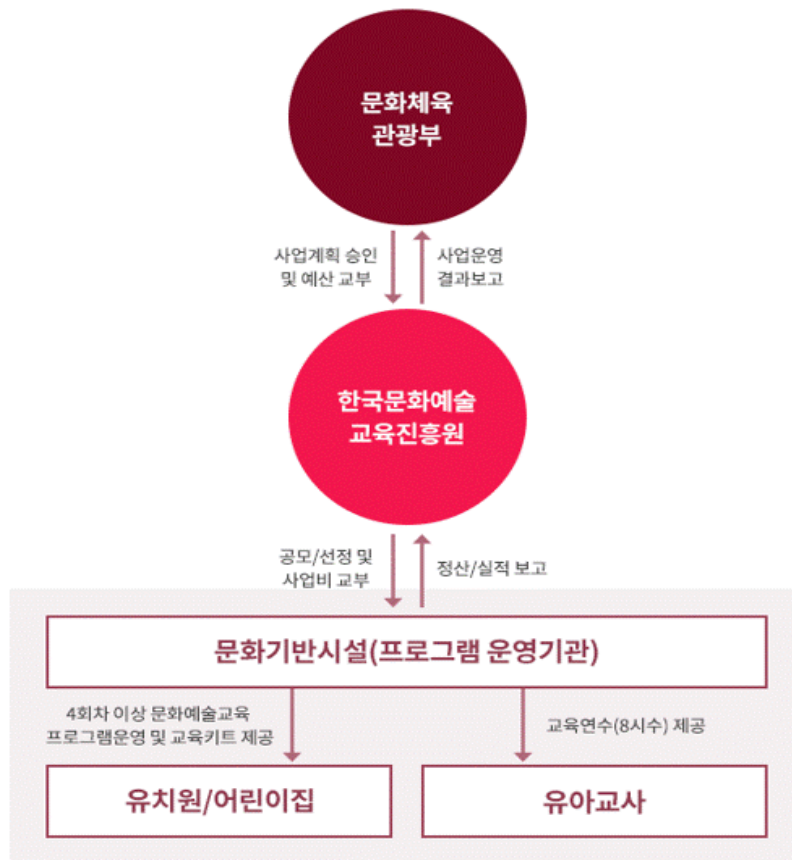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4)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표 2-2〕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규모

연도	운영 기관 수	참여 유아교육기관 수	참여 유아 수
2015	2개	100개	1,652명
2016	3개	255개	4,516명
2017	9개	218개	4,263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그림 2-4〕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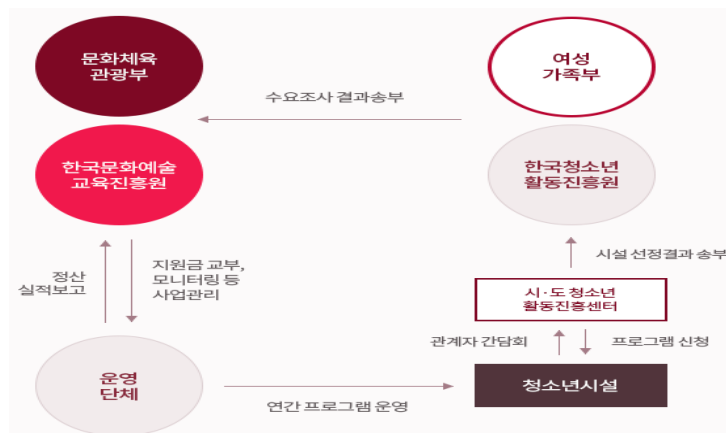
(2)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소통 능력을 발전시켜 한 사람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성인기의 문화예술교육 지속화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아동·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일반·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었다. 지역별·분야별,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잠재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통합 결과발표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 간 교류와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 교육의 지원 대상은 전국 40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일반·소외계층 청소년(단체별 해당 권역 내 3~5개 내외 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이다.



[그림 2-5]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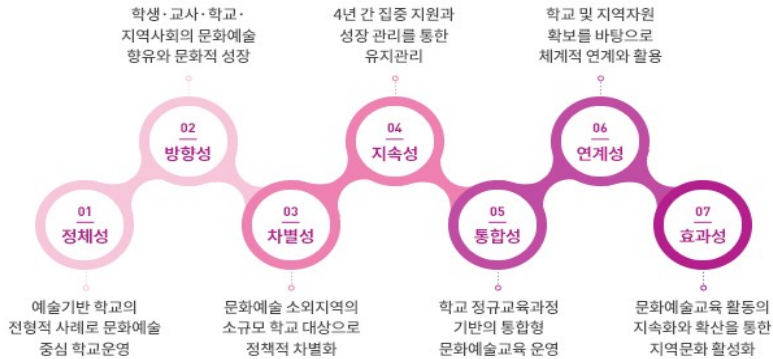
③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전교생의 문화감수성 및 문화소양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등 문화예술교육 운영 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교육 지원 대상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취약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이다.

[표 2-3] 예술꽃 씨앗학교 선정 현황

운영기간	학교 수	학교명
1기 (2008-2011년)	10개	부산 금성초, 제주 남원초, 속초 대포초, 울산 반천초, 경북 봉화초, 여수 북초, 남해 삼동초, 포항 송라초, 광주 지산초, 순천 승주초
2기 (2011-2014년)	16개	전북 간중초, 충남 거산초 , 전북 남원초, 경남 남포초, 대전대신초, 대전 동명초, 경기 만선초, 부산 배영초, 경북 백원초, 강원 서상초, 제주 영평초, 경기 옥천초, 강원 인제남초, 충북 칠성초, 전남 한천초, 전남 현산초
3기 (2012-2015년)	10개	경남 거류초, 전남 고서초, 대구덕성초, 대전 남선초등학교, 전북 당북초, 부산 서명초, 서울개화초, 경기 수남초, 충남 성남초 , 경남 창호초
4기 (2013-2017년)	4개	제주 북촌초, 충북 오선초, 서울창천초, 울산 함월초
5기 (2014-2017년)	13개	경남 고제초, 대구월성초, 대전 산서초, 충남 송남초 , 충북 수안보초, 제주 애월초, 세종 장기초, 경기 조안초, 부산 칠암초, 인천 하점초, 경북 향공고, 경남 성포중, 전북 옥구중·군산남고
6기 (2015-2018년)	20개	경기 갈곶초, 광주 양동초, 전북 금구초·중, 경남 금동초, 대구 관천초, 전남 독천초, 충남 부석초 , 충남 서천중 , 전북 성당초, 울산 성동초, 경기 세월초, 부산 연미초, 충남 연산초 , 제주 의귀초, 인천 주원초, 세종 전의초, 강원 철원초, 경기 파주중, 경북 향구초, 전남 화흥초
7기 (2016-2019년)	14개	충북 감곡초, 경남 광도초, 경남 대진초, 충남 대철중 , 경남 명곡여중, 강원 봉양초, 전남 산이서초, 전북 삼례초, 경남 생초초, 경기 송내초, 충남 수정초 , 충북 영춘초, 경북 장천초, 강원 춘성중
8기 (2017-2020년)	8개	강원 비봉초, 제주 수원초, 경남 양보초, 전남 여수남초, 경기 이천단월초, 전북 전주원동초, 충남 한정초 , 경기 화진초
9기 (2017-2021년)	8개	경북 모아초, 경남 상북초, 세종 소정초, 충북 속리초, 부산 장안초, 전남 지산초, 경기 흥원초, 전북 황등남초
계	103개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그림 2-6〕 예술꽃 씨앗학교의 특성

④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통해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음악을 통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기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취약계층 60%이상 구성)이다.



〔그림 2-7〕 꿈의 오케스트라 목표와 기본원칙

[표 2-4]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현황

구분	기수	기관명
자립거점	1기	부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자립거점	2기	군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무안군청/관광문화과, 부안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성동문화재단,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원주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지역협력 6년차/13개소	3기	강릉문화원,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성북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장수문화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평택문화원, 포항문화재단
지역협력 5년차/5개소	4기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지역협력 4년차/2개소	5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영주지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연속지원 3년차/6개소	6기	세종문화원, 용인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충남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연속지원 2년차/3개소	7기	고창문화원, 부산동구문화원, 영월문화재단
신규지원 1년차/3개소	8기	남양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예비거점	예비	공모예정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⑤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

학교 밖의 문화예술 전문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고, 또래·가족 간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 및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장르 전반에 (건축, 공예, 놀이활동, 디자인,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여행, 연극뮤지컬, 영상미디어, 음악, 전통예술 등) 걸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하며, 현재 충남문화재단에서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39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⑥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원사업의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지역 센터 대상 컨설팅을 운영하며, 꿈다락 지역연계
사업의 전략적 추진방향을 도모한다. 꿈다락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사업관리 및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사업컨설팅,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꿈다락 프로그
램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사업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본 교육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단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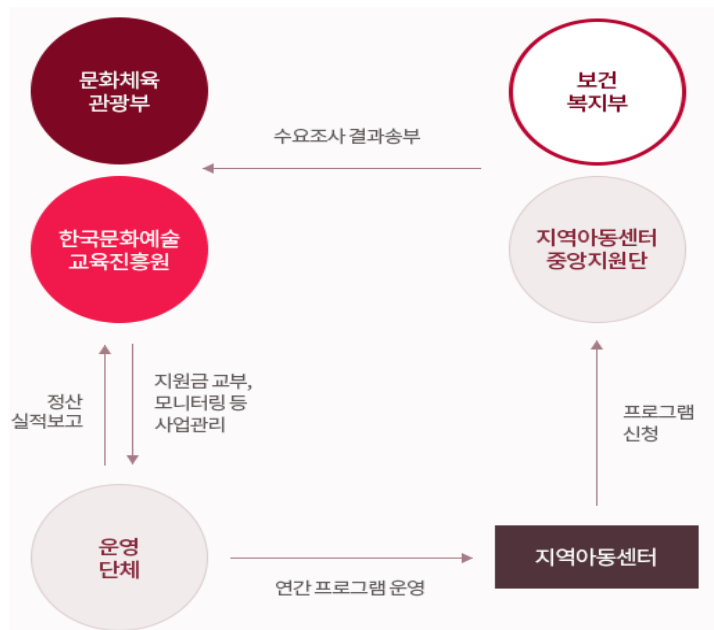
[표 2-5]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역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명)
서울	43	6,753
부산	51	1,630
대구	39	1,688
인천	36	1,975
광주	44	2,817
대전	42	1,680
울산	26	1,000
세종	13	348
경기	48	5,501
강원	29	1,560
충북	34	1,720
충남	39	1,612
전북	41	710
전남	39	1,628
경북	26	1,163
경남	41	2,040
제주	26	1,781
총계	617	35,606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⑦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의 자존감 및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약 600개 시설(단체별 해당 권역 내 10~40개 내외 시설), 645개 프로그램으로, 2018년은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다.



〔그림 2-8〕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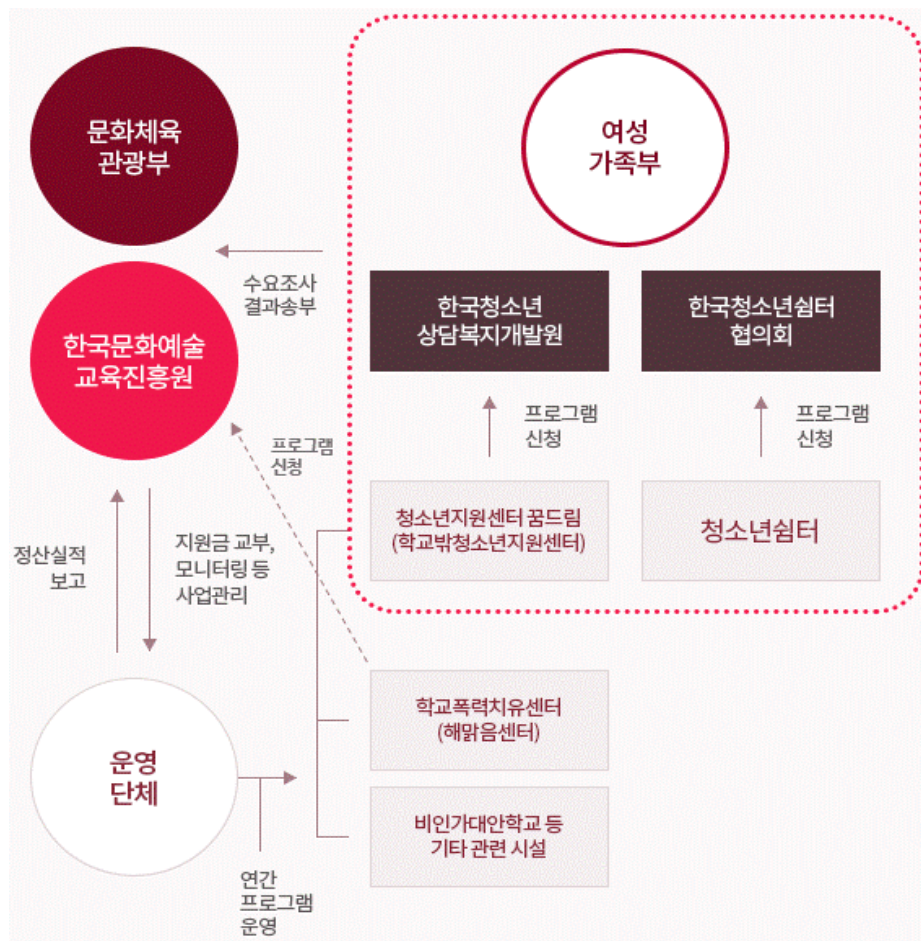
⑧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출, 자립, 탈학교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돌봄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70개 시설 7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총 교육과정은 30회 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1회 교육인원(20명 내외), 연간 정기과정, 상·하반기, 월 단위, 기타 등으로 운영되고, 지원 항목은 강사비 및 교통비, 교육 진행비(재료비, 발표회 등) 및 운영비 등이다. 본 교육의 지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가출, 자립, 탈학교 등)이다.

[표 2-6]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원규모

유형	시설 유형	지원 규모	신청 방법
지정 공모	청소년 쉼터	27개 시설, 27개 프로그램	수요조사 목록에서 시설 선택하여 신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3개 시설, 23개 프로그램	
	학교폭력치유센터	1개 시설, 4개 프로그램	
일반 공모	자율형	19개 시설, 19개 프로그램	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 섭외하여 신청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그림 2-9]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⑨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상상만개' 사업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고3 학생 및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문화예술을 통한 소양의 함양 기회를 제공한다. 본 교육의 지원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3학년생 및 수험생이다.

〔표 2-7〕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

연도	참가자 수	프로그램 운영 수
2014년	3,928명	40회
2015년	7,100명	52회
2016년	5,120명	105회
2017년	5,604명	45회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3) 청년·중년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청년·중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중년의 삶 속에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며, 문화시민으로의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직장 및 지역 사회 곳곳에 펼쳐내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자발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중년기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청년·중년기의 비전을 찾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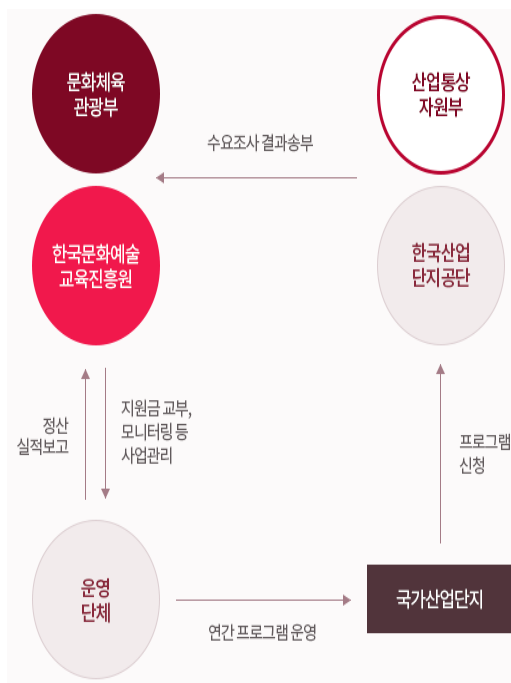
② 청년·중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의 향유와 경험 제공을 통해 근무 환경 및 생산성 제고와 노·사 화합을 독려하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입주기업 간 교류를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와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개발과 발현으로 시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6개 시설, 3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본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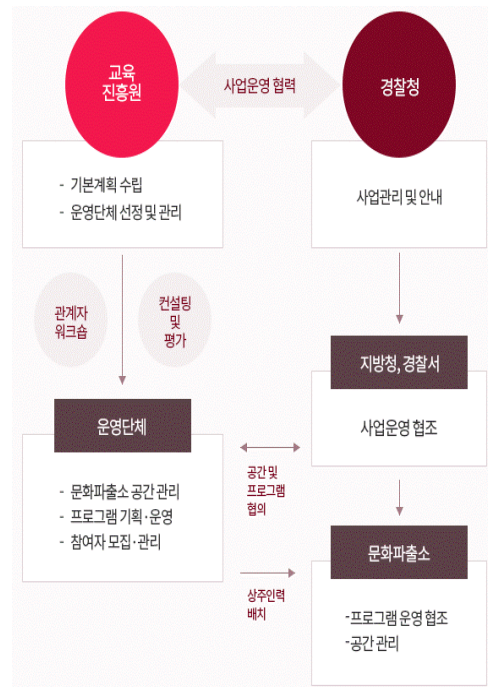
산업단지공단 예산 110백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1월까지 진행되었다. 지원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CEO 및 근로자이다.

③ 청년·중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파출소 문화·치안·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문화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나눔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9개 운영 단체(3개 지역재단 및 6개 민간단체)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19년 연속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이다.



[그림 2-10]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그림 2-11]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추진체계

(4)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노인들을 수동적인 관객이나 청중이 아닌 문화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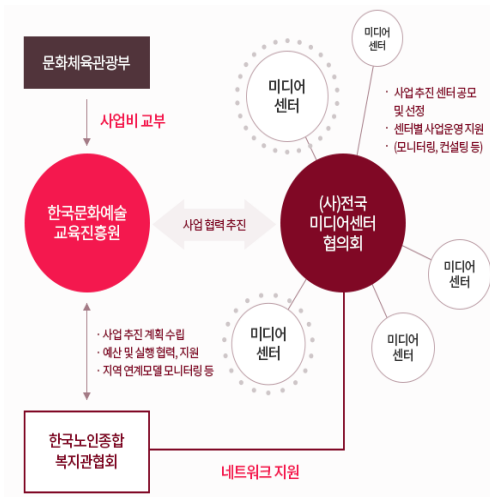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하여 감정적 정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분노, 고통, 소외의 부정적인 감정을 존중, 믿음, 선택, 책임감으로 전환시켜주고, 광범위한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장년기의 새로운 인생 찾기와 정신건강 예술 치유 프로그램, 노년기의 질병 예방(예: 치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노인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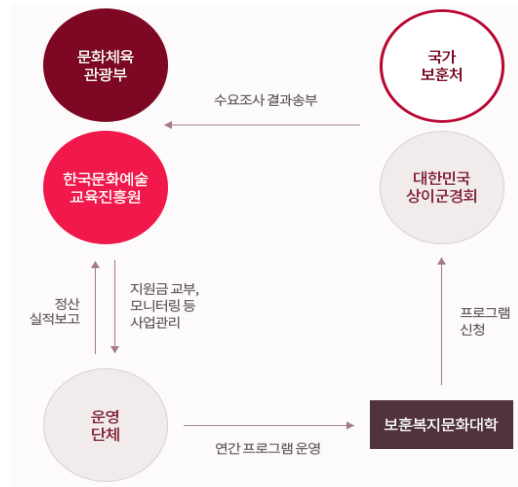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노인 미디어활동가 및 노인영상문화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콘텐츠 생산, 상호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노인이 직접 자신의 일상과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인식을 형성한다. 지원 규모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12개 미디어센터, 1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회원센터이다.

③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노년기에 영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고,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6개 지부의 보훈복지문화대학캠퍼스 국가유공상이자 및 가족이다.



〔그림 2-12〕 노인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체계



〔그림 2-13〕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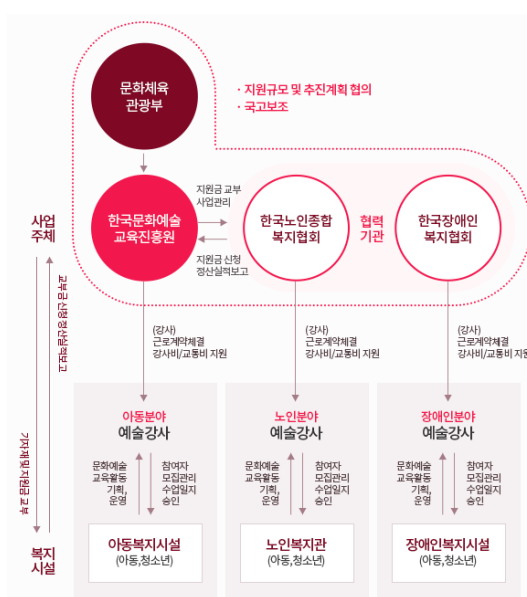
④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정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아동·노인·장애인 참여자가 예술을 향유하며,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간다. 특정 예술 장르와 기능 습득에서 나아가, 개인의 일상과 삶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 및 분야는 아동(132개 시설, 300개 프로그램, 국악·무용·미술·연극·영화·음악), 노인(235개 시설, 316개 프로그램, 무용·미술·연극·음악·사진), 장애인(208개 시설, 408개 프로그램, 국악·무용·미술·연극·영화·음악)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아동(법인 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시설), 노인(노인복지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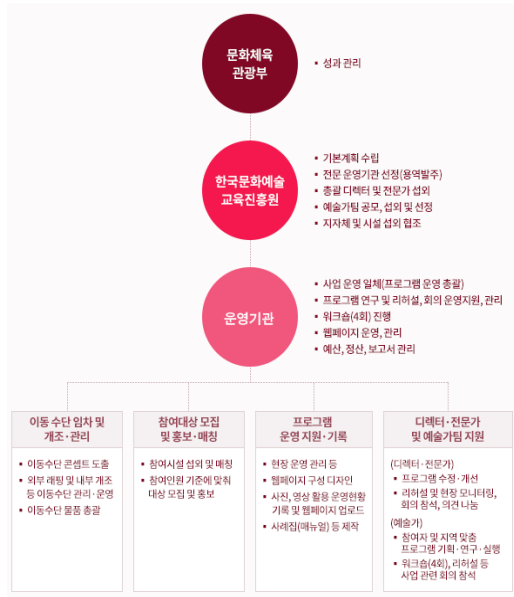
⑤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등 문화소의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자신의 일상을 새롭고 낯설게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4개 이동수단(버스, 1.2톤 트럭(탑차형), 1.2톤 트럭(컨테이너형), 병원선), 8개 프로그램, 150회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전국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 등 문화소외지역 아동·노인·지역주민이다.



[그림 2-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그림 2-15]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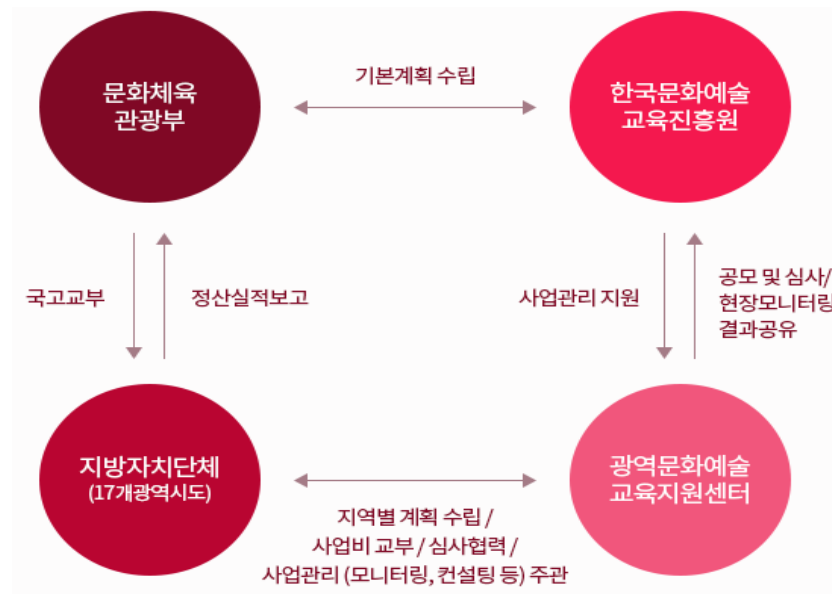
(5) 그 외 문화예술교육 사업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지원',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마음치유, 봄처럼' 등이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들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며,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특성은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략 수립 및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 시설이며, 현재 충남문화재단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34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동아리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2018년 운영되는 기관은 강릉문화원(강원), 광주문화재단(광주), 대구문화재단(대구), 부산문화재단(부산), 세종시문화재단(세종), 인천문화재단(인천), 충북문화재단(충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전북)으로 총 8기관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운영기관이다.



(그림 2-1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2.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해외) 싱가포르의 아트 그라운드(The Art Ground)⁵⁾

① 개요

2016년 싱가포르 ‘굿맨 아트센터 (Goodman Arts Center)’의 부설 유아 예술교육 시설로 설립된 아트 그라운드(The Artground)는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기부금·프로그램 참가비 등 다양한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교된 학교의 강당을 개조한 아트 그라운드는 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날씨에 따라 운동장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야외 예술 활동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기획은 최소 4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며, 설치 예술품은 일 년에 약 3차례 정도 변화를 주고 있다.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은 상주직원, 예술가, 예술 감독이 함께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굿맨아트센터의 입주 작가들과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아동 개개인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들의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어 미학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료 : 아트그라운드 공식홈페이지. theartground.com.sg/.

(그림 2-17) 아트 그라운드 내부 모습

5) “유지선, 홍후조(2018), 싱가포르 문화시설에서의 유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플레이엄(Playeum)과 아트 그라운드(The Art Ground)를 중심으로”와 “아르떼 리포트(2018) 『통합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의 싱가포르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② 사업내용

평일에는 자유 방문객과 단체 유치원생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주말에는 원예, 공연 예술(음악, 무용, 드라마)과 미술·공예 활동 등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에는 아기들을 위한 사진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에는 야외 정원에서 정원 가꾸기 체험프로그램과 춤을 추고, 스토리텔링을 짜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매요일마다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 : 아트그라운드 공식홈페이지. theartground.com.sg/.

〔그림 2-18〕 아트 그라운드의 설치예술

□ 설치예술품 체험 및 놀이 활동을 하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강당을 개조한 아트 그라운드 건물은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덕분에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설치예술품들이 전시가능하다. 유아들이 자유롭게 설치예술품들을 탐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달리고 올라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 운동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설치예술품 탐색 과정에서 담당자는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경험한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함으로써 교육적인 경험을 이끌어 내는 통합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수업 참여 프로그램은 실내와 실외 활동을 고려하여 매일,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획된다. 시간은 교육대상의 연령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또는 1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수요일은 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 워크숍을 주로 진행하고, 금요일은 영유아를 위해 무용, 스토리텔링,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요가와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표 2-8] 아트 그라운드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시

시간	10.06(금)	10.07(토)
10:30am	baby beat kulcha (18-36months)	Little Green Thumbs by Cultivate Central-Worms Love Coffee (2-3 years)
11:30am	craftier musician by My piano Room - making castanets and learning Flamenco inspired moves (3-5 years)	Little Green Thumbs by Cultivate Central-Yummy Microgreens(4-7 years)
...
3:30pm	Arty Crafty-Humpty Dumpty Galore (3-7 years)	I'm a crafty Poet! (2-4 years)
4:30pm	-	Arty Crafty-Sha가 Hats (3-7 years)

□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아트 그라운드는 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 가족 공동체 유대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 및 운영한다.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아트 그라운드에 방문,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외정원의 가족참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식물 관찰이나, 정원 가꾸기, 춤추기 등의 교육활동으로 이러한 유대강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 : 아트그라운드 공식홈페이지. theartground.com.sg/.

(그림 2-19) 아트그라운드의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2) (국내) 2015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 계절이 보내준 선물⁶⁾

① 개요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계절이 보내준 선물’은 용인문화재단에서 사다리연극단과 함께 개발 및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50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유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계절이 보내준 선물’은 연극놀이를 바탕으로 한 누리과정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 용인문화재단 블로그,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c2012&logNo=208568874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그림 2-20)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계절이 보내준 선물’ 진행 모습

② 사업 내용

‘계절이 보내준 선물’은 다섯 개의 테마와 18주, 36차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테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4주 단위로 묶여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테마별 넷째 주에는 축제를 소재이자 활동형식으로 삼고 있다. 2015년의 사업기간은 8월 셋째 주부터 12월 넷째 주까지 월별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되었다.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와 “이뉴스투데이 (2016.11.08.)”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 프로그램 테마

2015년도 진행된 프로그램의 테마를 살펴보면, (1) 사계절의 이야기, (2) 꿈꾸는 꼬마농부, (3) 함께 만드는 가을축제, (4) 그림자 연극을 만드는 배우, (5) 신비한 겨울의 마법으로 이루어졌다. 위밍업을 포함하여 전체 수업시간을 80분으로 구성,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총 90분이 소요된다. 한주의 프로그램은 40분짜리 2차시 수업이 통합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9〕 교안의 구성

테마	특징 및 내용
사계절 이야기 (1~2주)	사계절을 다스리는 제주도 신화 속 인물인 ‘오늘이’를 만나 사계절의 현상을 몸짓으로 표현 해보고 각 계절에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술 강사가 역할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도입이 되며, 4주 단위로 테마가 시작할 때마다 오늘이가 보낸 계절선물이 도착하여 수업을 열어준다. 이 장치는 전체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고리이자,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꿈꾸는 꼬마농부 (3~6주)	9월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살려, 농사를 짓는 마을로 가서 꼬마농부가 되어서 벼 농사를 짓는 농부의 한 달을 살아보는 구성이다. 특별한 인물의 역할이 아니라 가상의 농사짓는 마을의 꼬마 농부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스런 역할놀이 안에서 생태적 관점에 대한 질문, 공동체가 살아가는 법 등을 담은 이야기와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테마의 네 번째 주는 명절이자 축제인 <추석>으로 마무리 된다.
함께 만드는 가을 축제 (7~10주)	이 테마에서는 계절의 흐름을 의미 있게 맺어주는 단위이자 활력을 주는 지역공동체의 잔치인 ‘축제’에 대해, 그 특성과 의미를 알아보고, 단풍 혹은 도토리를 소재로 삼아 예술 강사와 유아들이 함께 10월의 가을 축제를 만들어 가게 된다. 교안이 정해져서 제공되는 다른 테마와 달리, 연수기간동안에 8주부터 10주까지의 프로그램을 예술 강사들이 모듈별로 직접 구성해보게 되며, 각자 자신의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지역성, 기관의 특성, 예술 강사 자신의 개성이 반영된 개별교안을 완성하여 4주차에 연극놀이 수업 안에서의 가을 축제를 실행해보게 된다.
그림자연극을 만드는 배우 (11~14주)	낮이 서서히 짧아지는 11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그림자 연극놀이가 이 테마의 핵심이다. 자신의 몸 전체를 이용하는 그림자놀이부터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종이인형으로 제작하여 인형을 조종하는 그림자 연극까지 평소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루기 힘든 과감한 시도로 빛과 그림자의 예술성을 듬뿍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도의 대표적 축제인 빛의 축제 디왈리가 4주차에 소개된다.
신비한 겨울의 마법 (15~18주)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테마이자 12월의 테마는 ‘겨울’이다. 하얀 눈이 어디에서 오는지, 겨울을 겨울답게 만들어주는 겨울마법사 등과 같은 겨울의 신비함에서부터 북극여우가 살 곳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계절 겨울을 그 자체로 즐기면서, 그동안 계절이 보내온 선물들을 떠올리며 우리도 계절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유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계절이 보내준 선물.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해외) 덴마크의 에프터 스콜레 (After Skole)⁷⁾

① 개요

대안학교의 일종인 에프터 스콜레는 세계의 다른 대안학교들이 공교육 구조와 대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는 달리,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협력관계를 통해 기존 체제를 유지, 자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안교육에서는 기존 체제를 거부하는 방식이 아닌 공교육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제 3의 기회를 구현할 수 있다.



자료 : 영남일보(2017.12.04). m.yeongnam.com/jsp/view.jsp?nkey=20171204.010050726470001.

[그림 2-21] 암벽 등반 프로그램과 기숙사 내부 모습

② 사업 내용

□ 에프터스콜레의 개념

덴마크의 기숙형 자유학교의 하나인 에프터스콜레(영어로 after school)는 우리의 ‘방과후 수업’과는 다른 또 하나의 학교제도다. 우리의 공립학교와 달리 대안학교 형태인 중등 단계에 해당하는 자유중등학교라 할 수 있다.

7) “정윤경(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와 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 도입 배경

‘초등(6년)-중등 전기(3년)- 중등후기(대학준비 교육을 위한 김나지움과 직업준비교육 3년)-고등교육’으로 이루어진 덴마크 교육제도는 공립기초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과정과 7~9학년 중학교 과정의 9년 의무교육이다. 에프터 스콜레는 14~18세 청소년들이 1년 또는 2~3년까지 재학기간을 선택하여 다니는 중등 단계 자유학교 형태의 기숙학교다. 고교입학 전, 선택적으로 10학년을 다니는 기숙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교는 1814년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던 때부터, 국가 주도 교육제도에 반대하던 농민층이 국가의 교육 독점권에 대해 비판하면서, 부모와 교사가 주축이 되어 대안학교를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 교육과정 특징

에프터 스콜레는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동료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에프터 스콜레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과와 시험뿐 아니라, 체육, 음악, 연극과 같은 과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정 학교들은 다양한 종류의 특수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많은 종류의 전문 과목의 개설은 전문화된 기술을 갖춘 교사뿐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프터 스콜레의 대부분 선생님은 교직학위를 갖고 있으나, 이는 필수요건은 아니다. 교장은 어떠한 조건의 선생님이든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고, 학교는 특정 분야에 집중된 특수 자격을 갖춘 교사를 선발 할 수 있다. 스포츠에 중점을 둔 에프터 스콜레는 운동선수를 교사로 선발할 수 있고, 음악에 집중하는 학교는 전문음악인을 음악 교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에프터 스콜레와 일반 공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국내) 오디세이 학교⁸⁾

① 개요

오디세이학교는 1년의 전환학년(Transition Year)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삶의 성찰과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식 위주의 교과과정이 아닌, 글쓰기, 합창,

8) “오디세이학교(2018) 『2018학년도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인용·정리함

목공, 프로젝트 수업 등 창의력과 실생활에 초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입시 경쟁 교육이 아닌, 자율적이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배움의 주체로 만들고,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획일적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틀에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 오디세이학교 홈페이지. odyssey.hs.kr.

(그림 2-22) 오디세이학교 수업활동 모습

② 사업 내용

중3 졸업 예정 학생 중 희망자 90명을 모집, 고등학교 1학년 학력인정 위탁교육과정으로 1년간 운영하고, 수료 후 소속 학교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디세이 혁신파크(공교육 기관)와 공간 민들레, 꿈틀학교, 하자센터(민간 교육기관)를 협력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학교는 운영 총괄 및 예산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협력운영기관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형 자율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2018년 분산형 캠퍼스로 개교 및 운영하면서 오디세이학교 공간과 협력운영기관 자체 공간(하자센터) 및 기타 공간(정독도서관, 서울혁신파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표 2-10] 오디세이학교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14년 11월	(가칭)인생학교 TF 구성 (대안교육전문가, 공교육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
2015년 2월	(가칭) 인생학교, 기본계획 수립
2015년 3월	오디세이학교 이름 확정
	오디세이학교 운영지원센터 개설
	공모를 통해 협력운영기관 3곳 선정 (공간 민들레, 꿈틀학교, 아름다운학교)
2015년 4월	정독도서관 내 오디세이학교 교육 공간 마련
2015년 5월	아현산업정보학교 내 1학년 2학급 개설 (오디세이학교 학생 위탁을 위한 행정 지원 체제 구축)
2015년 5월	1기 학생 40명 입학
2016년 1월	1기 학생 34명 수료
2016년 2월	종로산업정보학교 별관 2층을 오디세이 학교 교육 공간으로 추가 마련
	오디세이학교 학생 위탁 지원 기관을 종로산업정보학교로 변경
	협력운영기관 일부 변경(아름다운학교 협약 해지, 하자센터 추가)
2016년 3월	2기 학생 82명 입학
2017년 1월	2기 학생 74명 수료
2017년 2월	서울혁신파크 참여동 3층에 오디세이학교 교육공간 임대 협약 체결
	서울혁신파크 내 공교육 교사로 구성된 운영기관 신설 (오디세이 - 혁신파크)
2017년 3월	3기 학생 75명 입학
2017년 9월	오디세이학교 각종학교 설립 조례안 통과
2017년 11월	덴마크 에프터스콜레협회와 서울시교육청 교육 교류 협약체결
2018년 1월	3기 학생 65명 수료
20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관협력형 고교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지원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970호) 제정
2018년 3월	오디세이학교 각종학교로 개교
	4기 학생 90명 입학

□ 오디세이학교 교육과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지침』에 근거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고, 전환학교의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활용되고 있다.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편성된 교과활동은 개별 학생별 상황과 흥미, 특기, 진로 희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안교과는 NEIS에 등재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통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를 3단위씩, 과학탐구 실습은 1단위로 편성하였으며, 오디세이학교 본부가 주관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각 협력기관의 특징을 살린 선택교육과정을 위주로, 학생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과로 운영한다. 보통교과는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평가 및 기록을 하고, 대안교과는 이수여부와 함께 학생의 활동 내용과 특성을 서술식으로 평가 및 기록한다.

〔표 2-11〕 오디세이학교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글쓰기 자치활동 여행 멘토 특강 기획 활동 보통 교과 수업 등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르는 프로젝트 과정
	일을 경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인턴십 과정
	문화적 상상력을 기르는 다양한 표현 창작을 하는 문화 · 예술 과정
	다양한 문화를 만나며 자신을 알고 더불어 사는 힘을 기르는 인문학 과정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시민참여 과정
	삶과 세상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문학과 성장 과정

또한 오디세이학교는 덴마크의 에프터 스콜레와 2018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교류하고 있다.

〔표 2-12〕 덴마크 에프터 스콜레와 교육교류 일정

구분		내용
교류학교		덴마크 에프터 스콜레 ‘아이스비야후스 국제학교’
교류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한국방문 : 2018년 5월 12일(토) - 19일(토) • 2차 한국방문 : 2018년 11월 초 • 1차 덴마크 방문 : 2019년 1월 말
교류내용	덴마크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소개 • 공동 동아리 활동 • 공동 프로젝트 학습 (환경과 생태, 지속가능한 에너지) • 홈스테이 • 오덴세 및 코펜하겐 관광
	한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소개 • 공동 활동 • 공동 프로젝트 수업(남북통일과 평화, K-POP, E-Sports) • 홈스테이 • 한국 전통문화 체험하기

3)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해외) 영국 존 루이스 백화점⁹⁾

① 개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좋을지 고민하던 존 루이스 백화점은 ‘씨어터 액티브 극단’에게 연극을 한 편 제작 및 공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객 서비스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업과 극단이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결과, 매장의 순위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서 상당한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었고, 평상시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력관리 정책에도 변화를 줄 수 있었다. 존 루이스 백화점은 기업교육에 예술 활동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100% 만족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존 루이스 백화점은 현재 500명 모든 직원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셔널 씨어터(National Theatre)의 연극교육 극단(TheatreWorks)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 www.youtube.com/watch?v=Q6QR3t375xE

〔그림 2-23〕 John Lewis: Why theatre is now a key part of retail

9) “이현정(2011), 창의성 신장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인용·정리함

② 사업 내용

존 루이스 백화점은 씨어터 액티브(Theatre Active)라는 극단을 통해 매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을 활용하여 연극 한편을 만들었다. 연극배우들을 모두 매장 직원 역할을 하게 하였고,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극단 사람들은 매장 직원들과 면담을 하고, 연극배우 한 명이 매장 직원 두 명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웨스트필드 런던(Westfield London)에 확장을 앞두고 전 직원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극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신감을 형성,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연극교육은 국립극장의 배우 및 감독이 이끌며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내의 연습실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3] Theatre works 사업목표

Theatre works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상된 목소리와 호흡 사용 -능동적인 듣기 기술과 집중과 휴식을 위한 기술 -육체적 존재감과 신체 언어에 대한 이해 -잠재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증가 -자신의 개성, 자신감을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회의에서의 자신감과 자기주장 증가

자료 : 내셔널 씨어터 홈페이지. www.nationaltheatre.org.uk/theatreworks.



자료: www.mylondon.news/news/west-london-news/westfield-expansion-john-lewis-turns-14355005

[그림 2-24] Theatre works의 프로그램

(2) (국내) 산업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¹⁰⁾

① 개요

산업 아트 행복 페스티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류를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본 교육과정은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의 향유와 경험 제공을 통해 근무의 질을 높여주고 노·사 간의 화합을 독려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근로자,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이 자생적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독려하였다.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그림 2-25〕 행복페스티벌 개최 모습

② 사업 내용

전문 예술단체에 속한 예술가가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연간 30회 내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연극, 마술, 악기)을 진행한다. 예술가는 주 1~2회 교육을 실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운영단체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모임 활성화는 근로자들의 주도적 활동에 달려있게 된다.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통합발표회를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한다. 근로자들의 직장동료, 가족 등이 모두 모여 경연을 진행하고, 총 15팀의 경연으로 이루어져 심사를 거쳐 금, 은, 동 시상을 한다.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표 2-14] 행복 페스티벌 진행표

프로그램	시간계획	비고
①개막행사	14:00~14:20	○인사말, 축하, 격려사
②산업단지 아티스트 문화경연대회	14:30~17:40	○18개 팀 경연(3개팀 콜라보레이션)
③축하공연 및 시상식	17:40~18:00	○심사평 및 시상식
④산업단지 공예 및 사진 전시회	14:00~18:00	○로비 (4개 팀)

4)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해외) 영국의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① 개요

영국의 U3A는 노년들이 소액의 연회비를 내며,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 형태를 띠고 있다. 자신들의 지식, 경험, 재능, 전문성 등을 교육 또는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에 자원봉사와 교육이 결합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 개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 789개 지부, 26만 명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런던에만 1,700명 160개의 강좌가 진행되며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U3A 홈페이지. www.u3a.org.uk.

[그림 2-26] U3A 로고와 음악 모임

② 사업 내용

□ 지혜로운학교 - U3A서울

‘누구나 선생이 되기도 학생이 되기도 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자의 사회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 서로 배워나가며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제 3세대 평생학교로, 지혜로운 학교는 U3A 정신으로 ‘해피시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공동체이다. 현재 그 활동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평생학습부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획 재정부 등록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이다.

언어, 해석과 번역, 펜팔, 걷기, 예술과 음악, 창조적 글쓰기,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여행 클럽 등 8개를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강좌가 있다. 이 회원들은 많은 교육적, 창조적인 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고, 활동은 각자 다른 집에서 모여 활동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서로의 지식 및 기술, 경험 공유를 통해 서로 배움을 나누고 있다.

(표 2-15) 지혜로운학교 - U3A 서울 상세 프로그램

	강사	강좌명	현황	기간	요일	시간	장소
문화 예술	구경희	적천수 강해	개강	9/6~ 12/20	매주 목 16회	오후 2~5	시민청
	강명선	쉽게 푸는 사주심리학	개강	9/6~ 12/27	매주 목 17회	오후 7~9	시민청
	박세호	1870년을 중심으로 본 세계사	개강	9/18. 9/20	2회	오후 5~7	시민청
	김명중	악보만 보면 노래할 수 있어요	개강	9/4~ 12/18	매주 화 13회	오후 7~9	시민청
실용 건강	노준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	개강	7/23~ 10/22	격주 월회	오후 4~6	토즈 신촌본점

자료 : 지혜로운학교 U3A 카페. cafe.naver.com/openuniversity.

(2) (국내) 경자씨와 재봉틀¹¹⁾

① 개요

‘경자씨와 재봉틀’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기획 및 진행한 50~60대 여성 대상 프로그램으로,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노인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문화 예술을 다루고 있고, 보편적 인간의 생애주기를 전제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역할에 대한 모색을 고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www.arte365.kr.
(그림 2-27) 경자씨와 재봉틀 회원 사진

② 사업 내용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경자씨’는 보통 우리네 엄마들을 칭하는 대명사로, 한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경자씨와 재봉틀- 청춘컬렉션’ 프로그램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 상의 변화와 함께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는 전환을 겪었거나, 경험 중인 50~60대 여성 15인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여자로 태어나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혹은 할머니로 본명은 멀리 두고 곁에 있는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아름다웠던 청춘을 잊고 살았을 우리네 경자씨들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경자씨와 재봉틀 V - 청춘컬렉션’은 경자씨들의 지나간 청춘을

11)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되돌아보고, 청춘이 갖든 것을 만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6〕 경자씨와 재봉틀 상세 프로그램

회차	일자	제목	내용	장소
1	10.21(화)	경자씨를찾습니다	공개 오디션 3분 이야기 '나는 왜 경자씨인가' 영화 '할머니와 란제리' 감상 후 다과	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2	10.28(화)	나는 경자 씨	박희석 선생님과 심리극 (소극장)	센터 연습실
3	10.30(목)	나의 몸뚱이	그 때 그 사진으로 나를 소개하기 마사지와 네일아트로 내 몸뚱이에 사과하기 타로점으로 내 삶을 반추해보기	바른체형 뷰티샵, 언니네
4	11.04(화)	르포 '경자' (가을소풍과집밥나눔)	살면서 잘했던 것, 실수했던 것, 좋았던 것, 싫었던 것 등 서로를 심층 인터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풍암저수지
5	11.06(목)	스물일곱 경자 씨	나의 '한때 꿈'을 이야기 (참여형 연극)	센터 연습실
6	11.11(화)		마무리(편지쓰기) 및 여행기획	광주 문화공간
7-8	11.13(목)~ 14(금) (1박2일)	경자 씨와 재봉틀	2주 전부터 여행기획 병행, 명상과 인생디자인 워크숍, 깜짝 공연	담양 창평 삼지내 마을 (예정)

‘경자씨와 재봉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전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감정의 매듭이 풀림’, ‘고립에서의 확장으로 관계 방식의 개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표 2-17] 경자씨와 재봉틀 프로그램 전과 후 참가자들의 변화

참여자들의 내면의 갈등과 욕구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된 욕구
<p>(본인)상처 입은 내면의 어린이 -유년시절의 상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불이익 -어머니와의 갈등 -공부 못한 설움 -배움에 대한 욕구 -직업과 사회적 성취에 대한 열망 -낯선 세대로서의 고충 -젊음에 대한 미련 (남편 또는 시댁 식구들)‘사랑’ 또는 연애로 하지 못한 ‘결혼’생활의 아쉬움 -부부 관계에 대한 회의 -연애와 사랑어린 관계에 대한 열망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자녀 또는 며느리)자녀에게의 희생, 며느리와의 어려운 관계 설정 -자녀 뒷바라지 -자녀 해바라기 -며느리 맞이하고 관계 맺기</p>	<p>-감정의 매듭이 풀림 -고립에서의 확장으로 관계 방식의 개선 -새로운 배움과 일에 대한 의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 정립 -나와 타인의 삶과 고통에 대한 공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p>

3.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1)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지원사업¹²⁾

① 개요

본 교육과정은 전문성이 부족한 유아 교사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능력과 사회성·예술성·창의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교육과정은 발달 특성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극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유아교육의 현장에 새롭게 제시하였다.

2017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극놀이 중심의 유아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서는 2015~2016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기 개발된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중 '극놀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아교사들에게 유아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17년 9월 23일(토)~11월 19일(일)까지 (1박 2일)
 ※지역별로 연수기간이 상이함
신청대상: 2017년 9월 4일(월)부터~ 마감시까지
장소: 지역별로 세부 내용 참고
신청일정: 2017년 9월 4일(월)부터의 신청가능
 ※신청 마감일은 지역별로 상이함
신청대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유아교사, 유아 및과후 교사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이 연수 참여 자람
신청인원: 1연수당 20명 (신청수 마감)
신청방법: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schacc3054@naver.com 으로 발송/ FAX 041530-3055 발송
참여자 신청기준: 1인 1일 최대 가능한 차
 ※연수대상자는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schacc3054>, 545)에서 확인 가능

연수 세부 프로그램		지역별 일정		
시 간	과 정	지 역	일 정	
1 일 차	12:30~13:00	동해 및 사업 설명	경기 [수원]	9월 23일~24일 동부생명 인제개발원
	13:00~14:00	한국예술의 이해	강원 [원주]	10월 14일~15일 인터불고 호텔
	14:00~16: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1]	강원 [춘천]	10월 21일~22일 베나키아 춘천 베어스 호텔
	16:00~18: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2]	경북 [안동]	10월 28일~29일 연동 그랜드 호텔
	18:00~19:00	자녀식사	경북 [구미]	11월 4일~5일 금오산 호텔
2 일 차	19:00~23: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3]	경남 [진주]	11월 11일~12일 민재나눔(kb 순천보령) [사천]
	08:00~09:00	아침식사	경남 [창원]	11월 18일~19일 유동 인제개발원[산정]
	09:00~12: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4-1]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4-2]		

자료 :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내부자료.

[그림 2-28] 극놀이 중심 유아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12)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2017),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지원사업 극놀이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용·정리함

② 사업 내용

□ 추진방향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험을 살려 연수 프로그램을 ‘극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유아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아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연수 개발 및 연수를 접목한 현장적용 및 실천 강화형 연수를 기획 및 운영하여 참여교사들과 운영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연구진과 연수교안 개발진이 유아교사들과 함께 그룹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방문형 수업 코칭을 실시하고, 현장 만족도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점검 및 교육현장의 변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프로그램 컨설팅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컨설팅은, 경기도·강원도·경상도에서 진행되었고, 그 중 지역별 대상 기관을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그 중 선정된 2개 기관은 연수기간 중 또는 연수 후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의지를 보여,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2-18) 프로그램 컨설팅 선정기관 및 일정

지역	기관	일시
대구	리더스유치원	2017.12.19
창원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17.12.08

자료 :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내부자료.

2)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애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

① 개요

천안문화재단(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에서 운영하는 201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애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는 미술관 전시와 연계하여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감상능력을 키우는 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술관에 대한 경험의 확장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미적 감수성 배양, 능동적인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② 사업 내용¹³⁾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5.19. ~11.03.
- 사업장소: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 사업대상: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 참가비: 무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4~2018년 지원 사업)
- 참여인원: 총 90명 / *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취약계층 우선 지원
- 교육 횟수 : 기수별 4회 (1회당 3시간)

□ 세부 프로그램 내용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1기 반가워 미술관!_점선면展>, <2기 즐거운 미술관!_위터베이비展>, <3기 꿈꾸는 미술관!_NOISE展> 등 3기에 걸쳐 각 프로그램마다 전시와 연계해 예술작품 속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지각한 다양한 미적 요소들을 자신이 속한 맥락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향유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천안문화재단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자료 : 천안예술의전당 홈페이지. www.cnac.or.kr.

(그림 2-29) 반가워 미술관! 점·선·면展 진행 모습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화예술교육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지원’이 있으며, 충남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총 5개의 시설에서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2-1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받는 충남 문화예술교육사업(2018년 기준)

구분	문예회관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교육대상	총회차	총운영기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문예회관	[복합] 서양 음악사의 문화예술 탐방	2018.04.28 ~ 2018.11.30	초등학생 고학년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	32	8
	태안문화예술 회관	[복합] 재미있는 예술충전소	2018.05.12 ~ 2018.10.27	초등 고학년 및 가족	16	4
	천안예술의전 당	[복합] 애들아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	2018.05.19 ~ 2018.11.03	초등 고학년, 중등, 고등학생	12	3
문예회 관 문화예 술교육 지원	금산다락원	[복합] 금산다락원 성악교실	2018.05.15 ~ 2018.10.30	지역주민	30	
	서천 문예의 전당	[복합] 우리동네 악기 배움터	2018.05.03 ~ 2018.11.22	지역주민	30	1

(2) 2018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한정초등학교)¹⁴⁾

① 개요

‘예술꽃 씨앗학교’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혜택이 적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 학교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이다. 공교육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력, 표현력,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 한정초등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의 주제를 ‘꿈지락 달그락 맑은샘 아이들의 별별이야기’로 정하고, 연차별로 소주제를 정해 연극, 뮤지컬, 사진을 통합하는 종합 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사업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1~2학년 대상 연극놀이 수업 실시하였다.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 프로그램보다 심화된 연극,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3~6학년을 대상으로 연기팀, 대본팀, 영상제작팀 등으로 나누어 뮤지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학부모 및 지역민 연수, 꿈지락 달그락 여름·겨울 캠프, 사계절 어울마당(별별 콘서트) 등을 운영하였다.



자료: 한정초등학교 홈페이지. hanjeong.cnees.kr.

(그림 2-30) 예술꽃 씨앗학교의 교육과정

14) 한정초등학교 홈페이지(hanjeong.cnees.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3)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충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청년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쑥!쑥!>

① 개요

2018년 처음 진행된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이해부터 현재 흐름 등을 살펴보고, 문화예술교육 기획서 작성 노하우 공유 및 실습, 타 지역 사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예비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활동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② 사업 내용

문화예술교육 청년 기획자 양성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으로, ‘인력양성’ 집중 운영을 통해 충남형 문화예술교육 인력 발굴 및 육성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질적 도모 및 교육대상자의 성장을 위한 ‘아카데미 디렉터’를 지정, 양성된 인력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차년도에 공모지원사업 및 별도 기획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사업 개요

- 장소 : 홍성 공간 U (내포신도시)
- 대상인원 : 25명 이내 (1기수 모집)
- 모집대상 : 예비인력, 신규단체기획자,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자

[표 2-20] 교육별 내용 및 일정

구분	실무이론 교육	업그레이드 교육 (심화)	사례 탐방
일정	7.4(수) ~ 7.13(금)	7.18.(수)~7.27.(금)	9~10월 중
주제	문화예술교육 접근과 이해	지속성장과 확장	지역이해, 사례탐방
대상	예비인력, 신규단체 기획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사업에 관심있는 자	1차 실무이론 교육 이수자에 한함	교육이수자 및 별도 신청자
시수	2주 / 16시수	2주(16시수)	2회 (지역1회, 타지역1회)

출처 :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acf.or.kr.



〔그림 2-31〕 업그레이드교육 프레젠테이션 청중심사 진행 모습

4)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1) 장년기 문화예술교육(당진문화예술학교)¹⁵⁾

① 개요

2013년에 설립된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화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을 통해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취시키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실제 체험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이모작 음악교실, 아트 갤러리, 문예 놀이터, 가족 오케스트라 등 36개의 시민문예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며, 창작공간지원사업 별별동지, 시민오케스트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15)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www.danginart.kr/school/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② 사업 내용

□ 당진 시민예술아카데미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대표사업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강좌를 개설 및 진행하고 있다.

- 사업기간 : 2018. 03 ~ 2018. 11
- 모집일시 : 상반기 2018.02 / 하반기 2018.07
- 모집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또는 재직)하는 당진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강좌별 10명 ~15명
- 장소 : 당진문화예술학교
- 수강료 : 1개월 10,000원



자료 :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 www.dangjinart.kr/school/index.html.

〔그림 2-32〕 당진문화예술학교의 프로그램

□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

2016년 창단한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는,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공, 비전공 상관없이 오케스트라 편성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상시 오디션을 진행, 연 2회 이상 정기연주 및 연주를 통해 지역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사업기간 : 2018.02 ~ 2018.12
- 모집대상 : 오케스트라 구성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당진시민 및 거주자 (성인)
- 모집파트 - 현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 관악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럼본, 튜바, 호른),
 - 타악 (탐파니,퍼커션, 피아노)
- 사업장소 :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홀 및 당진문예의 전당

〔표 2-21〕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 추진일정

일시	진행 내용
2018. 02	사업 진행 및 단원모집 공모
2018. 05	기획연주회 개최
2018. 08	오케스트라 역량강화 캠프



자료 :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 www.dangjinart.kr/school/index.html.

〔그림 2-33〕 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모습

(2)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의 찾아가는 영상문화)¹⁶⁾

① 개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는 미디어센터와 작은 영화관이 한 건물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복합지역 영상문화시설이다.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은 영화, 영상, 라디오, 사진 등 감각적인 영상매체들을 통해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친근한 문화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비 일상성의 경험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사업 내용

‘찾아가는 영상문화’ 사업은 서천군 320여개 마을 모두가 영상문화를 누리도록, 소풍+ 서천군 미디어센터 내 미디어 사업팀에서 운영하며, 영상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이 없는 서천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영화관·장수사진’은 대한노인회 서천지회, 한국전력공사 서천지사 등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무상으로 진행, 서천군 320여개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복지시설 등에서 소외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진행한다.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

[그림 2-34]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16)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www.dangjinart.kr/school/index.html)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어르신 추억만들기 영상제작’은 인생의 황혼기를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안과 따뜻함을 안겨드리는 목적으로, 자제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주는 따뜻함과 감동이 넘쳐나는 영상 촬영을 진행하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과 남기고 싶은 말 등을 10분 내외로 제작한다.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

[그림 2-35] 어르신 추억만들기 영상제작의 스틸컷

‘마을 추억 만들기’ 사업은 각 가정의 장롱 속에 묻혀 있는 사진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사진들로 마을이야기를 만들었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디지털화하여 마을회관에 상시 전시하고 있다. 잊혀져가는 소중한 추억들을 되살려 내어 마을 주민들이 같이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진들로 구성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10분 내외의 마을추억영상도 함께 제작하고 있다.



자료 :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

[그림 2-36] 마을 추억 만들기 사업의 사진

4.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국내외 생애주기별(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과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는데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폴 아트 그라운드(The Art Ground)’ 사례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거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예술에 대한 부모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와, 다시 향후에도 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유지선, 홍후조, 2018). 따라서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먼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문화시설의 기관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 참가들의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 교육방법을 벗어나 유아 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 방법을 익혀 현장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프터 스콜레(After Skole)’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 할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에프터 스콜레협회와 협약을 맺는 등의 새로운 대안교육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1815년경 자유학교 전통에서 시작한 ‘에프터 스콜레’는 1975년 공립학교와 동일한 조건에서 졸업시험 준비를 허가받는 등의 모습으로 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보다, 교육본질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문화로 자리 잡게 할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형 ‘에프터 스콜레’를 실체화시켰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는 오디세이학교는 고 1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 중심 및 대학 입시 경쟁 위주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진로 개척 역량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영국의 ‘존 루이스 백화점’ 문화예술교육 사례는 예술 활용을 제공하는 극단이 회사 내부의 한 팀처럼 일을 하여 회사 내부 직원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연극 훈련과 공연이 직원들의 경험과 기술 능력의 함양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정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 주어 고객 서비스 향상에 큰 효과가 나타난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에서도 기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업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해결방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는 ‘산업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을 충남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는 특정 나이가 아닌 정규직 고용이 중단된 기간으로 정의되는 제 3세대(노년층)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본 사례는 노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경자씨와 재봉틀’의 사례는 장르 경험에서 오는 몰입과 재미 자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참여자들에게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장년층을 위한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당진문화예술학교(시민 예술아카데미와 시민 오케스트라)를 꼽을 수 있으며, 시민문예아카데미는 전국에서 드물게 생애주기별 각 세대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해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당진문화재단을 방문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기존 기획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과정이 아닌, 충남 장년·노년층의 도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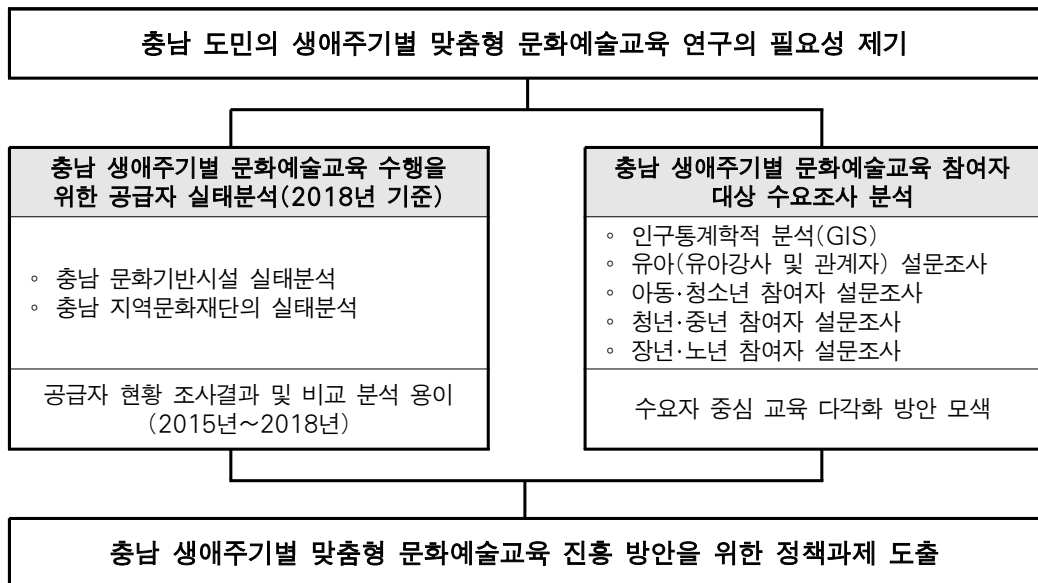
제3장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제도 및 추진정책,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시하는 3장의 연구 틀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틀은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자 실태분석’,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 등을 통해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하였다.

〔표 3-1〕 분석의 틀



2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자 설문조사 분석

1)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국 평균 156.4개보다 높은 16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공주시·아산시가 비슷한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서산시·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시군별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각 시군별로 최소 1곳씩 분포하고 있다. 천안시 및 아산시는 문화의집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서산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 5곳,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이 각 1곳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에 존재하며, 홍성군을 기준으로 북쪽에 편중되어 있어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문예회관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천안시에 3개가 분포하여 가장 많은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박물관은 공주시, 천안시, 내포신도시에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은 충남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역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계룡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지방문화원이 부재하나 인구가 적고, 광역시 및 공주시와 인접하고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은 충남의 시·군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충남 내륙지역의 경우 대체로 인접시군의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태안군의 경우 인접지역인 서산시에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민은 문화향유에 고립될 수 있어, 시설확충 또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한 문화향유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지자체 공공도서관, 교육청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에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총 55개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지역문화재단(충남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에서는 모두 응답이 이루어졌다.

[표 3-2]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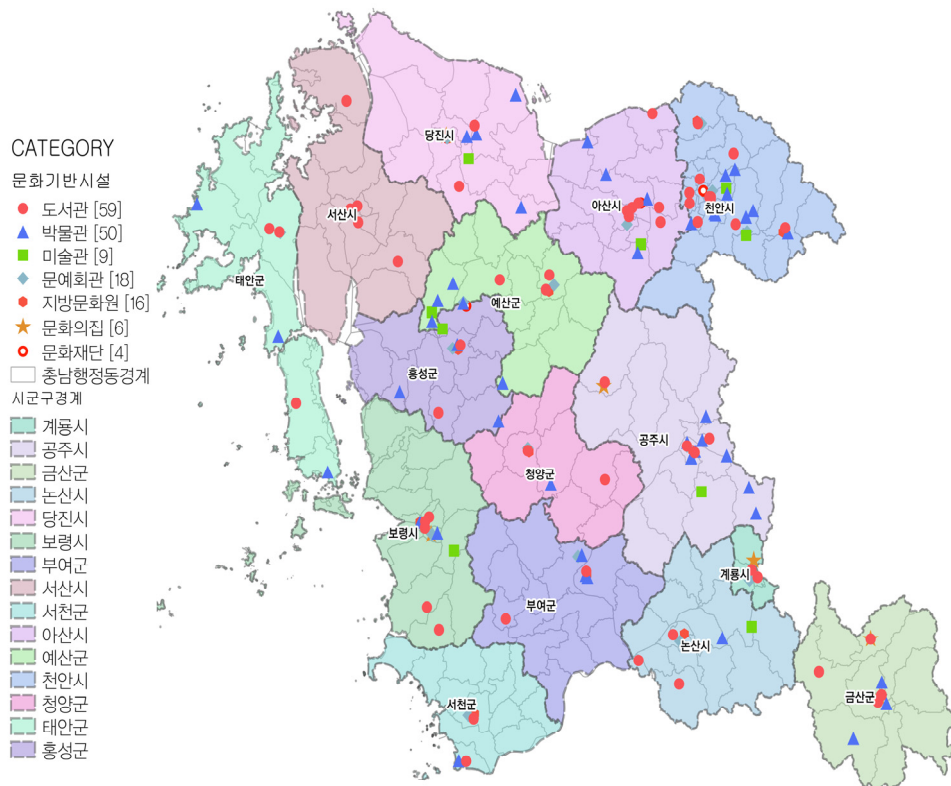
구분	총합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 원	문화 의집	문화 재단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전국	2,657	1,010	758	231	21	853	388	361	104	229	57	157	15	236	228	100	76
전국 평균	156.3	59.4	44.6	13.6	1.2	50.2	22.8	21.2	6.1	13.5	3.4	9.2	0.9	13.9	13.4	5.9	4.5
서울	365*	147	119	22	6	128	28	73	27	39	4	30	5	20	25	5	10
충남	162	59	40	19	-	50	30	17	3	9	2	7	-	18	16	6	4
자치단 체평균	17.3	6.6	4.9	1.5	0.1	5.5	2.5	2.3	0.7	1.5	0.4	1.0	0.1	1.5	1.5	0.6	0.5
천안시	27	10	7	3	-	8	4	3	1	2	1	1	-	3	3	-	1
공주시	17	4	2	2	-	9	4	3	2	1	-	1	-	1	1	1	-
보령시	11	5	3	2	-	2	2	-	-	1	-	1	-	1	1	1	-
아산시	17	7	6	1	-	6	3	3	-	1	-	1	-	1	1	-	1
서산시	7	5	3	2	-	0	-	-	-	-	-	-	-	1	1	-	-
논산시	7	3	2	1	-	1	1	-	-	1	-	1	-	1	1	-	-
계룡시	4	2	2	-	-	0	-	-	-	-	-	-	-	1		1	-
당진시	13	4	3	1	-	4	3	1	-	1	-	1	-	1	-	1	1
금산군	13	5	4	1	-	4	3	1	-	-	-	-	-	1	1	2	-
부여군	8	2	1	1	-	4	4	-	-	-	-	-	-	1	1	-	-
서천군	5	2	1	1	-	-	-	-	-	-	-	-	-	1	1	1	-
청양군	5	2	1	1	-	1	1	-	-	-	-	-	-	1	1	-	-
홍성군	9	2	1	1	-	3	2	1	-	1	1	-	-	1	1	-	1*
예산군	12	3	2	1	-	5	1	4	-	1	-	1	-	2	1	-	-
태안군	7	3	2	1	-	2	1	1	-	-	-	-	-	1	1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충남도청 내부자료.

주 : 1) 국립중앙도서관(서울) 1개소 포함

2)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는 각각 기초문화재단이, 홍성군에는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이 위치함

3) 전국 평균은 17개 시·도의 평균, 자치단체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154개 자치단체(시·군)의 평균으로 계산함



〔그림 3-1〕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현황(2017년 기준)

2) 조사 분석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와 향후 진행 방향 등을 조사하여, 충남 문화예술교육 공급자 측면에서의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문화정책 담당자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담당자들에게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조사 항목은 직·간접적으로 문화

예술교육 실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충남연구원(2016)의 전략과제 「충남 사회문화 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실태분석 때 조사한 항목을 활용하였다.

충남 문화기반시설 조사는 문예회관 8곳, 문화원 7곳, 도서관 28곳, 박물관 11곳, 미술관 1곳으로 총 55개 시설에서 응답이 이루어졌고, 충남 지역문화재단은 충남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모두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다.

3) 충남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시설 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와 직원 수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인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19.1%), 어린이(18.6%), 청소년(12.2%), 유아(9.8%), 특수계층(2.1%) 등의 순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성인이 가장 높은 가운데, 문화원에서는 노인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과 박물관은 성인 다음으로 어린이 비율이 높았다.

[표 3-3] 시설유형별 이용자 분포(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학 생)	청소년 (중고등 학생)	성인 (20-60 세 미만)	노인 (60세 이상)	특수계층 (장애인, 이주민 등)	기타
문예회관	10.4	9.8	7.4	48.5	19.3	2.9	1.9
문화원	1.0	8.3	6.1	41.4	42.9	0.3	-
도서관	11.2	23.0	14.4	35.2	13.5	1.9	0.8
박물관	12.4	23.5	16.1	25.3	18.2	3.4	1.1
미술관	7.0	7.0	5.0	74.0	4.0	3.0	-
전체	9.8	18.6	12.2	37.4	19.1	2.1	0.9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전체 직원 수는 평균 13.62명이고, 이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원은 평균 22.24명인데,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은 평균 2.96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는 평균 19.28명이다. 시설유형별 전체 직원 평균은 박물관과 문예회관이 가장 많지만,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원은 도서관이 가장 많고, 특히 도서관은 문화예술교육관련 시간제 강사가 평균 31.54명이다.

〔표 3-4〕 시설유형별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8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직원 평균	정규 직 평균	비 정규 직 평균	기타 평균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문화예술교육관련 시간제 강사			전체 (A+B)
					총 인원 (A)	주 업무	부 업무	총 인원 (B)	자체 인력	지원 사업 인력	
문예회관	17.63	11.00	2.25	4.38	2.60	0.80	0.40	7.80	2.60	5.40	10.40
문화원	4.86	3.71	0.71	0.43	2.71	1.14	1.57	14.29	3.00	11.29	17.00
도서관	13.32	9.29	4.79	0.61	3.18	1.82	2.00	31.54	29.13	2.64	34.72
박물관	17.73	9.55	6.18	2.00	2.40	2.00	1.00	0.90	0.67	0.33	3.30
미술관	6.00	6.00	0.00	0.00	6.00	5.00	1.00	1.00	0.00	1.00	7.00
전체	13.62	8.82	4.09	1.40	2.96	1.72	1.53	19.28	16.07	3.82	22.24

(2) 시설유형별 사업비 예산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총 예산은 363억 5천 4백 3십만 원이고, 이중 문화예술교육 예산은 33억 6천 5백 3십만 원으로 기관 예산의 9.3%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은 평균 72.0%, 외부지원 예산 비중은 평균 28.0%로, 자체예산 비중이 높다.

시설유형별 총 예산은 도서관과 박물관이 100억 이상으로 많고, 문화예술교육 총 예산 역시 도서관과 박물관이 가장 많다. 그러나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비중으로 보면 미술관은 기관 총 예산이 모두 문화예술교육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설유형별 자체예산 비중은 도서관과 미술관이 80% 이상으로 높고, 문화원은 외부지원 예산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 시설유형별 사업비 예산(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기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예산 비중(%)	자체예산 비중 (%)	외부지원 예산비중 (%)
	총예산	평균	총예산	평균			
문예회관	6,319.00	1,053.17	332.00	66.40	5.3	78.2	21.8
문화원	3,065.70	437.96	584.70	83.53	19.1	5.4	94.6
도서관	16,735.60	619.84	1,692.64	60.45	10.1	84.5	15.5
박물관	10,217.00	1,021.70	739.00	73.90	7.2	78.5	21.5
미술관	17.00	17.00	17.00	17.00	100.0	81.0	19.0
전체	36,354.30	712.83	3,365.34	65.99	9.3	72.0	28.0

(3)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여부 및 프로그램 수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실시율은 87.3%이다. 총 운영 프로그램 수는 평균 57.48개인데, 이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25.52개로 44.4%이다.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율은 문화원과 박물관이 100.0%로 가장 높고, 총 프로그램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 역시 문화원과 박물관이 높다. 한편 도서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은 가장 많지만, 총 프로그램 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

[표 3-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실시 여부 및 프로그램 수(2018년 기준)

구분	문화예술교육 실시여부(%)		총 운영 프로그램 수 평균(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
	실시	미실시			
문예회관	62.5	37.5	8.83	4.67	52.8
문화원	100.0	-	18.86	17.57	93.2
도서관	92.9	7.1	94.48	37.41	39.6
박물관	81.8	18.2	15.11	12.56	83.1
미술관	100.0	-	2.00	2.00	100.0
전체	87.3	12.7	57.48	25.52	44.4

(4)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유무 및 시행요인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55곳 중 2018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곳은 49곳이고,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한 곳은 서부평생학습관(734개)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문화기반시설(N=49) 중 외부기관 예산 지원 여부는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고, 2018년에도 받았다 53.1%, 과거에 받은 경험이 없고, 2018년에 처음 받았다 2.0%로 지원 받았다가 55.1%이다. 반면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18년에는 받지 않았다 14.3%,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30.6%로 나타났다. 시행요인은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9.0%,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14.3%,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36.7%이다. 시행요인에 있어 예산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외부의 영향이, 지원 경험이 없는 경우 자체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책정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여부 및 시행요인(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예산 지원 여부				시행요인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고, 2018년에도 받았다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18년에는 받지 않았다	과거에 받은 경험이 없고, 2018년에 처음 받았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문예회관	33.3	-	16.7	50.0	50.0	16.7	33.3
문화원	100.0	-	-	-	-	71.4	28.6
도서관	44.4	22.2	-	33.3	60.0	-	40.0
박물관	50.0	12.5	-	37.5	60.0	10.0	30.0
미술관	100.0	-	-	-	-	-	100.0
전체	53.1	14.3	2.0	30.6	49.0	14.3	36.7

(5)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은 모든 기관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8년 기준)
(단위: 복수%)

구분	기관의 사업 방침(기관 대표의 의지)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정부시책으 로 인한 예산 지원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관 홍보	융합 교육의 중요성 대두
문예회관	20.0	60.0	20.0	-	-	-
문화원	14.3	100.0	14.3	14.3	-	-
도서관	7.7	92.3	-	-	-	-
박물관	27.3	54.5	-	9.1	9.1	9.1
미술관	-	100.0	-	-	-	-
전체	14.0	82.0	4.0	4.0	2.0	2.0

(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문예회관은 ‘수강료 있음’ 60.0%, ‘수강료 없음’ 40.0%이고, 문화원은 ‘수강료 있음’ 85.7%,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14.3%이다. 도서관은 ‘수강료 없음’ 50.0%,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42.3%, ‘수강료는 받지 않고 기관회원으로서의 회비만 받음과 성인프로그램에 한해 수강료 받음’이 각각 3.8%이며, 박물관은 ‘수강료 없음’ 81.8%,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18.2%이다. 한편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없었다.

〔표 3-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수강료 있음	수강료 없음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수강료는 받지 않고 기관회원으로 서의 회비만 받음	성인프로그램 에 한해 수강료 받음
문예회관	60.0	40.0	-	-	-
문화원	85.7	-	14.3	-	-
도서관	-	50.0	42.3	3.8	3.8
박물관	-	81.8	18.2	-	-
미술관	-	100.0	-	-	-
전체	18.0	50.0	28.0	2.0	2.0

(7)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여부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요 및 만족도, 평가조사 실시율을 살펴보면, 수요조사 46.8%, 만족도조사 69.4%, 평가조사 45.2%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수요조사 실시율은 문화원(80.0%), 도서관(63.6%), 문예회관(25.0%), 박물관(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만족도조사는 미술관(100.0%), 도서관(80.8%), 문화원(71.4%), 박물관(54.5%), 문예회관(25.0%) 순이며, 평가조사는 미술관(100.0%), 문화원(60.0%), 도서관(47.8%), 박물관(33.3%), 문예회관(25.0%) 순을 보였다.

〔표 3-10〕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가 여부(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평가조사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문예회관	25.0	75.0	25.0	75.0	25.0	75.0
문화원	80.0	20.0	71.4	28.6	60.0	40.0
도서관	63.6	36.4	80.8	19.2	47.8	52.2
박물관	11.1	88.9	54.5	45.5	33.3	66.7
미술관	-	100.0	100.0	-	100.0	-
전체	48.8	51.2	69.4	30.6	45.2	54.8

(8)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현황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외부기관으로는 학교가 2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종의 문화기반시설(17.8%), 문화예술단체(15.1%), 공공기관(13.7%), 다른 종류의 문화시설(11.0%) 등의 순이고, 외부기관과 연계 없음은 16.4%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이 외부기관과 연계하고 있었으나, 문예회관은 외부기관과 연계 없음이 57.1%로 과반 이상이다.

[표 3-11]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외부기관(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동종의 문화기반 시설	다른 종류의 문화시설	문화예술 단체	공공기관	학교 (대학교, 초중고)	기타	외부 기관과 연계 없음
문예회관	-	-	14.3	-	28.6	-	57.1
문화원	35.7	7.1	28.6	14.3	14.3	-	-
도서관	16.2	10.8	8.1	18.9	21.6	5.4	18.9
박물관	14.3	14.3	21.4	7.1	28.6	7.1	7.1
미술관	-	100.0	-	-	-	-	-
전체	17.8	11.0	15.1	13.7	21.9	1.4	16.4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형태는 프로그램 공동수행이 4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소 협찬(32.4%), 인력 지원과 예산 보조(각각 27.0%) 등의 순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은 인력 지원(100.0%), 문화원은 프로그램 공동수행(71.4%), 도서관은 인력 지원(38.9%)과 프로그램 공동수행, 예산보조(각각 33.3%), 박물관은 프로그램 공동수행과 장소 협찬(각각 44.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술관은 프로그램 홍보를 연계하고 있었다.

[표 3-12]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형태(2018년 기준)
(단위: 복수%)

구분	프로그램 공동수행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소 협찬	예산 보조	기관에 강사 파견하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홍보
문예회관	50.0	100.0	-	-	-	-	-
문화원	71.4	-	-	42.9	28.6	-	-
도서관	33.3	38.9	11.1	27.8	33.3	5.6	-
박물관	44.4	11.1	-	44.4	22.2	-	-
미술관	-	-	-	-	-	-	100.0
전체	43.2	27.0	5.4	32.4	27.0	2.7	2.7

(9)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어려운 점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점으로 꼽은 1순위는 ‘기관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39.1%)’이고, 2순위는 ‘기관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31.7%)’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문화원의 경우 1순위는 ‘예산, 재정확보(42.9%)’, 2순위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시민) 인식 부재’와 ‘기관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각각 28.6%)’을 꼽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 다음으로 예산’, ‘재정확보’를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13]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점(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1순위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한 참여자 (시민) 인식 부재	예산, 재정 확보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 부족	기관 담당자 또는 관계자 의 마인드 부족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교육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 능력 부족	교육 프로 그램 참여 자 저조 (홍보 부족)	타 기관 과의 협력 체계 미비	별다른 어려움 이 없다	기타
문예회관	-	-	25.0	25.0	25.0	-	-	-	25.0	-
문화원	-	42.9	14.3	-	42.9	-	-	-	-	-
도서관	12.5	12.5	37.5	-	8.3	4.2	16.7	-	8.3	-
박물관	10.0	10.0	60.0	-	20.0	-	-	-	-	-
미술관	-	-	100.0	-	-	-	-	-	-	-
전체	8.7	15.2	39.1	2.2	17.4	2.2	8.7	-	6.5	-

구분	2순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자 (시민) 인식 부재	예산, 재정 확보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 부족	기관 담당자 또는 관계자 의 마인드 부족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 부족	교육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 능력 부족	교육 프로 그램 참여 자 저조 (홍보 부족)	타 기관 과의 협력 체계 미비	별다른 어려움 이 없다	기타
문예회관	-	33.3	-	-	33.3	-	33.3	-	-	-
문화원	28.6	14.3	-	-	28.6	-	14.3	14.3	-	-
도서관	4.8	4.8	19.0	9.5	42.9	-	14.3	-	4.8	-
박물관	-	33.3	11.1	-	11.1	11.1	11.1	11.1	-	11.1
미술관	-	100.0	-	-	-	-	-	-	-	-
전체	7.3	17.1	12.2	4.9	31.7	2.4	14.6	4.9	2.4	2.4

(10) 시설유형별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위상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충분성(평균, 5점 만점)은, 문화예술교육 중시가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3.56점), 자체예산 확보(3.35점), 수행시설과 장비 구비(3.30점), 문화예술교육 지원 수월(3.28점)이 보통 이상이고, 전담인력 및 조직 구축(2.85점)은 보통 미만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은 지역주민들의 관심(3.13점),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은 문화예술 교육 중시(각각 4.71점, 3.82점, 4.10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8년 기준)

(단위: 점)

구분	전담인력 및 조직 구축	문화예술 교육 중시	수행시설과 장비 구비	자체예산 확보	지역 주민들의 관심	문화예술 교육 지원 수월
문예회관	1.63	2.75	2.50	2.63	3.13	2.50
문화원	3.00	4.71	2.86	2.57	4.14	3.00
도서관	3.07	3.82	3.50	3.79	3.57	3.50
박물관	3.00	4.10	3.60	3.40	3.40	3.40
미술관	4.00	4.00	4.00	2.00	4.00	4.00
전체	2.85	3.83	3.30	3.35	3.56	3.28

(11)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계획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이 있다는 94.5%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계획 있음 항목은 예산확대 52.0%, 프로그램 확대 75.0%, 프로그램 개발 84.6%, 인력 충원 13.5%, 공간 개편 38.5%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모두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3-15]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위: 복수%)

구분	향후 실시	예산확대	예산 축소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개발	인력 충원	공간 개편
문예회관	62.5	40.0	-	60.0	60.0	20.0	40.0
문화원	100.0	100.0	-	85.7	100.0	14.3	42.9
도서관	100.0	37.0	-	67.9	78.6	3.6	28.6
박물관	100.0	70.0	-	90.9	100.0	36.4	54.5
미술관	100.0	-	-	100.0	100.0	-	100.0
전체	94.5	52.0	-	75.0	84.6	13.5	38.5

(12)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 대상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 대상 1순위는 어린이(초등학생) 46.2%, 2순위는 성인(20-60세미만) 33.3%, 3순위는 노인(60세이상)과 복합(가족 등) 각각 22.2%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문예회관은 성인과 노인, 문화원은 성인, 도서관과 박물관은 어린이, 미술관은 특수목적 계층을 1순위로 꼽았다.

[표 3-16] 시설유형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 대상

(단위: %)

구분	1순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 학생)	청소년 (중고등 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목적 계층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문예회관	-	20.0	-	40.0	40.0	-	-
문화원	-	14.3	-	71.4	14.3	-	-
도서관	17.9	57.1	3.6	14.3	7.1	-	-
박물관	18.2	54.5	27.3	-	-	-	-
미술관	-	-	-	-	-	-	100.0
전체	13.5	46.2	7.7	21.2	9.6	-	1.9

구분	2순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 학생)	청소년 (중고등 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목적 계층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문예회관	-	-	50.0	25.0	25.0	-	-
문화원	-	28.6	14.3	14.3	28.6	-	14.3
도서관	14.3	17.9	10.7	39.3	14.3	3.6	-
박물관	9.1	18.2	9.1	27.3	-	36.4	-
미술관	-	-	-	100.0	-	-	-
전체	9.8	17.6	13.7	33.3	13.7	9.8	2.0

구분	3순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 학생)	청소년 (중고등 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목적 계층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문예회관	-	-	-	50.0	-	50.0	-
문화원	20.0	-	-	20.0	40.0	20.0	-
도서관	4.8	28.6	14.3	9.5	23.8	14.3	4.8
박물관	-	14.3	28.6	-	14.3	28.6	14.3
미술관	-	-	-	-	-	100.0	-
전체	5.6	19.4	13.9	11.1	22.2	22.2	5.6

(13) 시설유형별 향후 중점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향후 중점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각각 28.8%)으로 나타났는데, 2순위(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36.5%)와 3순위(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32.0%) 역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7] 시설유형별 향후 중점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단위: %)

구분	1순위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동 및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예회관	60.0	40.0	-	-	-	-
문화원	28.6	28.6	14.3	-	-	28.6
도서관	32.1	21.4	7.1	21.4	-	17.9
박물관	9.1	36.4	-	36.4	-	18.2
미술관	-	100.0	-	-	-	-
전체	28.8	28.8	5.8	19.2	-	17.3

구분	2순위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동 및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예회관	20.0	40.0	40.0	-	-	-
문화원	14.3	42.9	14.3	14.3	-	14.3
도서관	14.3	42.9	21.4	17.9	3.6	-
박물관	18.2	18.2	9.1	18.2	-	36.4
미술관	100.0	-	-	-	-	-
전체	17.3	36.5	19.2	15.4	1.9	9.6

구분	3순위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획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동 및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예회관	-	-	75.0	-	-	25.0
문화원	57.1	-	14.3	-	14.3	14.3
도서관	29.6	11.1	22.2	11.1	-	25.9
박물관	36.4	18.2	18.2	9.1	18.2	-
미술관	-	-	-	-	-	100.0
전체	32.0	10.0	24.0	8.0	6.0	20.0

(14) 시설유형별 정책적 지원 과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정책적 지원 과제 1순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47.1%)’, 2순위는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27.5%)’, 3순위는 ‘우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각각 19.6%)’에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시설유형별 정책적 지원 과제

(단위: %)

구분	1순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우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프로그램 리소스 (자료) 센터 구축	기관 내 설비/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 체 육성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 법 정비	지식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담당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타
문예회관	25.0	-	-	-	25.0	-	50.0	-	-	-	-
문화원	28.6	-	-	-	28.6	-	42.9	-	-	-	-
도서관	50.0	7.1	21.4	-	10.7	-	7.1	-	-	-	3.6
박물관	63.6	9.1	-	-	9.1	9.1	9.1	-	-	-	-
미술관	-	-	-	-	-	-	100.0	-	-	-	-
전체	47.1	5.9	11.8	-	13.7	2.0	17.6	-	-	-	2.0

구분	2순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우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프로 그램 리소 스 (자료) 센터 구축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문화 활동 동아 리 및 동아 리 연합 체 육성	문화 예술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비 지원	관련 법 정비	지식 정보 및 컨설 팅 서비 스	담당 인력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지원	기타
문예회관	-	25.0	50.0	-	-	-	25.0	-	-	-	-
문화원	-	14.3	14.3	-	28.6	-	42.9	-	-	-	-
도서관	14.3	32.1	7.1	7.1	14.3	7.1	7.1	-	3.6	7.1	-
박물관	18.2	27.3	-	-	9.1	-	27.3	9.1	-	9.1	-
미술관	-	-	-	-	100.0	-	-	-	-	-	-
전체	11.8	27.5	9.8	3.9	15.7	3.9	17.6	2.0	2.0	5.9	-

구분	3순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우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프로 그램 리소 스 (자료) 센터 구축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문화 활동 동아 리 및 동아 리 연합 체 육성	문화 예술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비 지원	관련 법 정비	지식 정보 및 컨설 팅 서비 스	담당 인력 역량 강화 프로 그램 지원	기타
문예회관	25.0	25.0	25.0	-	-	-	-	-	-	25.0	-
문화원	42.9	14.3	14.3	-	-	-	14.3	-	-	14.3	-
도서관	3.6	21.4	17.9	3.6	17.9	-	21.4	-	7.1	7.1	-
박물관	-	9.1	27.3	9.1	9.1	-	27.3	-	-	18.2	-
미술관	100.0	-	-	-	-	-	-	-	-	-	-
전체	11.8	17.6	19.6	3.9	11.8	-	19.6	-	3.9	11.8	-

4)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인력현황 및 사업 분야

충남의 문화재단 인력 현황은 전체 직원 수는 118명이고, 이 중 문화예술교육 담당 정규직은 45명, 기간제/계약직은 15명이다. 문화예술교육 담당 정규직 중 자체예산 고용 인력은 8명, 지원사업 고용 인력은 3명이고, 기간제/계약직 중 자체예산 고용 인력은 11명, 지원사업 고용 인력은 1명이다.

[표 3-19] 문화재단 인력 현황 및 교육담당인력 고용형태(2018년 기준)

구분	전체	문화 예술 교육 담당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자체예 산고용 인력	지원사 업고용 인력	총인원	자체예 산고용 인력	지원사 업고용 인력	총인원
빈도	118	60	8	3	45	11	1	15
비율(%)	100.0	50.8	6.8	2.5	38.1	9.3	0.8	12.7

충남의 문화재단의 사업 분야로는 4개 재단 모두 ‘문화예술교육’, ‘시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위탁 및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4곳 중 3곳은 ‘공간/시설 운영’, ‘창작 및 활동 지원’, ‘축제 기획 및 운영’, ‘문화나눔 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 ‘정책 연구’를 시행하였고, ‘연수 및 아카데미와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곳은 4곳 중 2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와 대외 정보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재단은 1곳이고, ‘국제 교류 사업’을 하는 곳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표 3-20〕 문화재단 사업 분야(2018년 기준)

구분	빈도	비율(%)
공간/시설 운영	3	75.0
문화예술교육	4	100.0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	1	25.0
창작 및 활동 지원	3	75.0
축제 기획 및 운영	3	75.0
시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4	100.0
문화나눔 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	3	75.0
국제 교류	0	-
연수 및 아카데미	2	50.0
정책 연구	3	75.0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	2	50.0
위탁 및 협력사업	4	100.0
대외 정보서비스	1	25.0

(2)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에 대한 충분성(평균, 5점 만점)은,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관심도’가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중요도’와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 관심도’가 각각 3.75점, ‘프로그램 강사수급’ 3.50점, ‘전담인력과 수행기관/단체수급’ 3.25점, ‘사업자체 예산유무’ 3.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 및 여건’은 모두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 및 여건(2018년 기준)

구분	전담인력	문화예술 교육 중요도	사업자체 예산유무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 관심도	지자체 문화예술 교육 관심도	프로그램 강사수급	수행기관/ 단체수급
평균	3.25	3.75	3.00	3.75	4.00	3.50	3.25

(3)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충남의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행에 대해 4개 재단 중 2곳에서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응답했고,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1곳,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곳은 1곳이었다.

[표 3-22]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시행 맥락(2018년 기준)

구분	빈도	비율(%)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	50.0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1	25.0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1	25.0
합계	4	100.0

충남의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으로는 4개 재단 모두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고 응답했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3곳, 재단의 사업방침(재단 대표의 의지) 2곳,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광역센터지정 등) 1곳이다.

[표 3-23]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2018년 기준)

구분	빈도	비율(복수%)
재단의 사업방침(재단 대표의 의지)	2	50.0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4	100.0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광역센터지정 등)	1	25.0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3	75.0
합계	4	

충남의 문화재단 중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요 및 만족도, 평가조사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4개 재단 모두에서 평가조사는 시행하였고, 만족도 조사는 3곳, 수요조사는 1곳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조사 시행 여부(2018년 기준)

구분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평가조사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전체(%)	25.0	75.0	75.0	25.0	100.0	-

충남의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4곳 중 3곳에서 재단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과 재단 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을 꼽았다. 그리고 4곳 중 2곳은 지자체의 인식 부족이라고 응답했고, 예산, 재정 확보, 재단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2018년 기준)

구분	빈도	비율(복수%)
예산, 재정 확보	1	25.0
재단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	3	75.0
재단 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3	75.0
재단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	1	25.0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1	25.0
지자체의 인식 부족	2	50.0
합계	4	

(4)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 계획

충남의 문화재단 4곳 모두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요 사업 1순위로는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꼽았고, 2순위로는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을 중요 사업으로 선택했다. 한편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은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가 아니지만, 4개 재단 중 3개 재단에서 중요 사업으로 선택했다.

[표 3-26]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시행 의향 및 주요 사업

구분	향후 사업 시행 의향 있음	1순위		2순위			3순위		
		문화 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관 교육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화 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 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관 교육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전체(%)	100.0	50.0	50.0	50.0	25.0	25.0	50.0	25.0	25.0

충남의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중점 대상 1순위는 유아(학령기 이전)와 어린이(초등학생)이고, 2순위는 청소년(중고등학생), 3순위는 노인(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27]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중점 대상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 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성인 (20-60세 미만)	특수목적 계층 (취약 계층, 다문화 계층 등)	노인 (60세 이상)	성인 (20-60세 미만)	복합 (가족 등)
전체(%)	50.0	50.0	50.0	25.0	25.0	50.0	25.0	25.0

충남의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1순위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이고, 2순위는 ‘관련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 제고(관련 교육 또는 연수)’, 3순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은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가 아니지만, 4개 재단 중 3개 재단에서 지원과제로 선택했다.

[표 3-28]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문화예술 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	우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관련 공무원의 문화예술 교육 관련 인식 제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	우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전체(%)	50.0	25.0	25.0	50.0	25.0	25.0	50.0	25.0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수는 2015년 9.99명에서 2015년 22.24명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실시 여부는 93.9%에서 87.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평균 예산은 2013년 46백만 원에서 2018년 66백 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균수는 2015년 18.26개에서 2018년 57.48개로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이 가장 많이 나타난데 이유가 있다. 하지만 총 프로그램 대비 도서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비중(39.6%)은 평균(44.4%)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82.0%)고 생각하였고,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외부 기관으로는 학교가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중점 교육 대상으로 1순위 어린이(46.2%), 2순위는 성인(33.3%), 3순위는 노인과 복합(22.2%)이며, 문화재단의 중점 교육 대상 1순위는 유아, 어린이, 2순위는 청소년, 3순위는 노인(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모두 ‘기관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을 꼽았으며, 2015년과 대비하여 ‘예산 재정보호’와 ‘참여자 인식 부재’에 대한 부분은 응답률이 낮아졌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47.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단에서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니지만, 4개 재단 중 3개 재단에서 지원과제로 선택하였다.

현재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기획자)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모두 중점 교육 대상으로 어린이를 선택하였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운영 및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9〕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 분석(2018년)

구분	대상		인력 (명)	여건 (부족한 부분)	기관 예산		프로그램 수 (개/형태)
	방문 자	교육 대상			예산	지원받 은 여부	
문예회관	성인· 청소년	성인· 노인	10.40	전담 인력, 문화예술 교육 중시, 장비, 예산, 관심, 지원 부족	보통	받지 않음 다수	4.67
문화원	성인· 노인	성인·어린이 노인	17.00	전담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부족	부족	모두 받음	17.57
도서관	성인· 어린이	어린이· 유아	34.73	전담 인력	부족	지원받음 다수	37.41
박물관	성인· 어린이	어린이· 청소년	3.30	전담 인력	부족	지원받음 다수	12.56
미술관	성인	특수계층	7.00	자체 예산 확보 부족	부족	모두 받음	2.00
문화재단	-	유아· 어린이	15.00	사업 예산·전담 인력· 수행기관/단체 수급	부족	모두 지원받음	지원 형태, 직접 운영(체험)

주: 1)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은 점수가 3.25 미만을 부족한 것으로 보았음

2) 문화의 집은 응답되지 않아 제외함

3) 문화기반시설의 인력은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평균)와 문화예술교육관련 시간제 강사 수(평균)를 합친 것으로 보았으며, 문화재단은 응답된 문화예술교육 담당 총 인원(60명)을 4개의 재단으로 평균 계산함

4) 2015년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 분석이 변화된 내용은 빨간 글씨로 표시함

〔표 3-30〕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구분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활성화 방안
문예회관	재단의 전문/전담 인력, 공간 인프라 부족 기관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운영비 지원·공간 확충 지원·전문 인력 지원
문화원	예산 재정보조·공간 인프라 부족	운영비 지원·전문 인력 지원·공간 확충 지원
도서관	전담 인력 부족·참여자 저조(홍보 부족)	전문 인력 지원·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공간 확충·운영비 지원·강사 지원
박물관	기관의 인력 부족·공간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 지원·강사 지원·공간 확충·동아리육성·운영비 지원
미술관	기관의 인력부족	운영비 지원
문화재단	재단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 재단 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사업운영비 지원 확대·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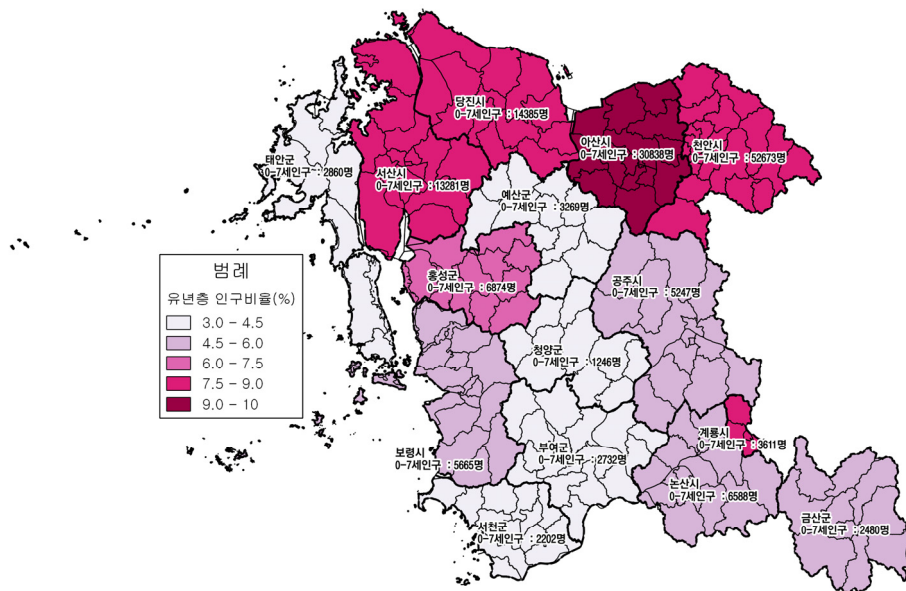
주: 2015년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 및 활성화 방안의 변화된 내용은 빨간 글씨로 표시함

3.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

1) 충남의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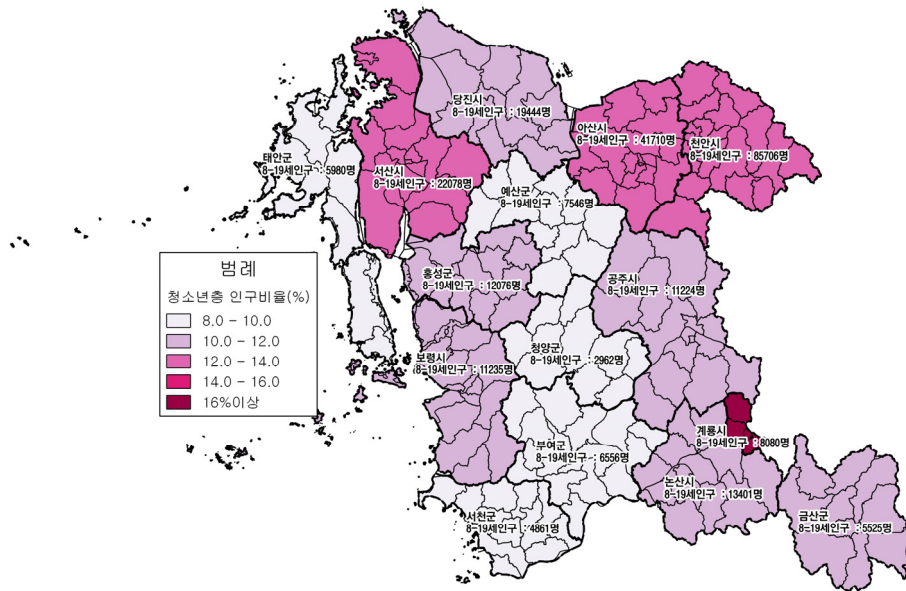
본 GIS분석은 통계청 2017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분포를 토대로, 0~7세는 유년층, 8~19세 청소년층, 20~59세 청·장년층, 60세 이상은 노년층으로 계층별 구분하였다. 또한 시·군별 총 인구를 계층별 인구로 나누어 시·군별로 계층별 인구비율을 나타냈다.

충청남도 유년층(0~7세)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아산시 30,838명, 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체로 충청남도 서북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지역에 유년층 인구비율이 높고, 내륙(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지역은 인구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룡시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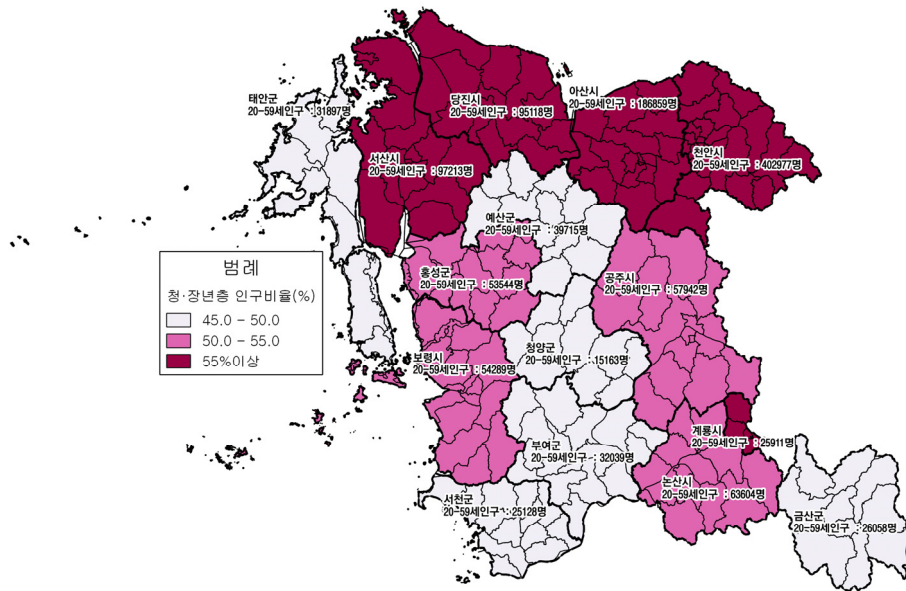
[그림 3-2] 충남 시·군별 유년층(0~7세) 현황(2017년 기준)

충청남도 청소년층(8~19세)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계룡시가 13,401명 16%이상으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해있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층(0~7세)과 유사하게 서북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지역에서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내륙(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및 태안군은 8~10%의 비율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충남 시·군별 청소년층(8~19세)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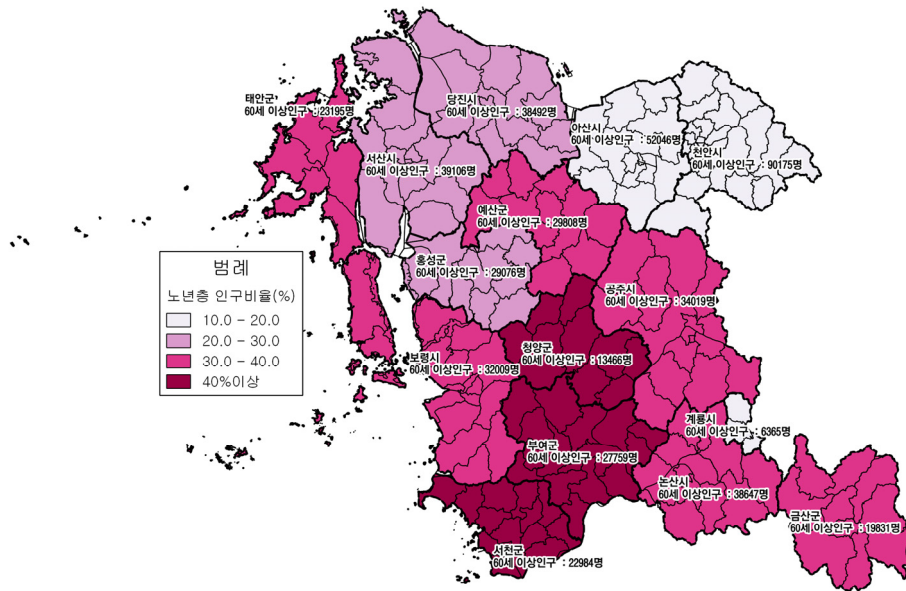
충청남도 청·장년층(20~59세)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서북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비율은 55%이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소년층, 청소년층, 청·장년층 인구비율은 대체로 시·군별 인구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충남 시·군별 청·장년층(20~59세) 현황(2017년 기준)

충청남도 노년층(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내륙(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지역은 40%이상의 노년층 인구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는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10~2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충남의 시·군은 유년층, 청소년층,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은 대체로 서북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및 계룡시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노년층에서 내륙(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지역의 인구비율이 반전되는 분포로 나타났다. 서북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및 계룡시는 노년층 인구비율이 비교적 낮고, 유년층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년층이 높은 내륙(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지역은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나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림 3-5] 충남 시·군별 노년층(60세 이상) 현황(2017년 기준)

2) 조사 분석의 개요

본 설문조사는 2018년을 기준으로 충남 도민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수요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각 생애주기 도민(유아 강사·관계자,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장년·노년기)에게 문화예술교육 경험, 만족도 등을 2018년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아는 직접 설문조사 응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강사·관계자 16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동·청소년(8~19세, 87부), 청년·중년(20~59세, 129부), 장년·노년(60세 이상, 135부)의 설문응답을 활용하였다.

3)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수요분석

(1)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충남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본방향의 1순위로 꼽은 것은 ‘체험, 표현, 감상의 예술교육 요소 강화(62.5%)’이다. 다음으로 2순위에서는 ‘음악, 미술 등의 각 영역을 연계한 예술분야의 통합(46.7%)’, 3순위에서는 ‘실기 교육보다는 충분한 예술적 체험, 감상 경험 제공(26.7%)’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31]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기본방향

(단위: %)

	타 교과(언어, 수학, 과학, 사회)와 예술교육의 통합	음악, 미술 등의 각 영역을 연계한 예술분야의 통합	체험, 표현, 감상의 예술교육 요소 강화	실기 교육보다는 충분한 예술적 체험, 감상 경험 제공	가시적인 결과 중심 보다는 과정 중심 강조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 활동과의 차별화
1순위	-	-	62.5	18.8	6.3	12.5	-
2순위	13.3	46.7	-	13.3	20.0	-	6.7
3순위	6.7	6.7	13.3	26.7	20.0	13.3	13.3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목표는 ‘예술적 표현력 계발(7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2]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구분	빈도	비율(%)
예술적 감수성 계발	2	12.5
예술적 표현력 계발	12	75.0
예술적 사고능력 계발	-	-
경험으로 인한 다방면 사고 확장	1	6.3
무응답	1	6.3
합계	16	100.0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적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수업 형태는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3〕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수업 형태

구분	빈도	비율(%)
관람/감상형	3	18.8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10	62.5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3	18.8
합계	16	100.0

충남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유아 문화예술교육 포함 내용 1순위로 꼽은 것은 ‘예술 각 분야별 실기 표현 방법(43.8%)’이고, 2순위에서는 ‘예술 각 분야별 작품 감상(42.9%)’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34〕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포함 내용

(단위: %)

	예술 각 분야별(무용, 미술 등) 관련 개념 및 요소	예술 각 분야별 실기 표현 방법	예술 각 분야별 작품 감상
1순위	37.5	43.8	18.8
2순위	28.6	28.6	42.9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적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내용 선정 요소 1순위는 ‘영유아의 예술에 대한 흥미도 반영(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선정 요소

(단위: %)

	예술 각 분야별 영유아 발달의 적합성	예술 각 분야별 핵심 개념과 요소 포함	영유아의 예술에 대한 흥미도 반영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1순위	43.8	-	56.3	-
2순위	40.0	6.7	40.0	13.3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평가 방법 1순위는 ‘유아의 활동태도 평가(몰입도, 흥미도 등)(68.8%)’이고, 다음으로는 ‘유아의 예술적 역량 증진 정도 평가(1순위 12.5%, 2순위 26.7%)’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3-36〕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평가 방법

(단위: %)

	유아의 작품 평가	유아의 활동태도 평가(몰입 도, 흥미도 등)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	유아의 예술적 역량 증진 정도 평가	프로그램 구성 체제에 대한 평가	연령별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 여부
1순위	-	68.8	12.5	12.5	6.3	-
2순위	-	20.0	20.0	26.7	26.7	6.7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운영 방식은 ‘누리과정 및 방과 후 시간 모두 운영’ 56.3%, ‘방과 후 특별활동 과정으로 운영’ 25.0%, ‘누리과정 운영 시간 내 적용’ 1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7〕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운영 방식

구분	빈도	비율(%)
누리과정 운영 시간 내 적용	2	12.5
방과 후 특별활동 과정으로 운영	4	25.0
누리과정 및 방과 후 시간 모두 운영	9	56.3
무응답	1	6.3
합계	16	100.0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담당자로 ‘외부 문화 예술 전문 강사’라는 응답(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8〕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적합한 담당자

구분	빈도	비율(%)
담당교사	-	-
원내 예술에 관심이 있는 담당교사	2	12.5
외부 문화예술 전문 강사	12	75.0
담당교사와 문화예술 전문가/전문 강사와의 협력	2	12.5
합계	16	100.0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꼽은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외부강사 요건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중 아동발달 및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받은 자’ 37.5%,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받은 자’ 25.0%, ‘문화예술교육 전공자’ 18.8%, ‘문화예술교육 전공자 중 교직 이수자’ 6.3% 등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9]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외부강사 요건

구분	빈도	비율(%)
유아교육 및 보육 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받은 자	4	25.0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중 아동발달 및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받은 자	6	37.5
문화예술교육 전공자 중 교직 이수자	1	6.3
문화예술교육 전공자	3	18.8
무응답	2	12.5
합계	16	100.0

(2)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제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는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사항 1순위로 ‘유아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파견’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 교육 연수 지원’을 꼽았다.

[표 3-40]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 사항

(단위: %)

	유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유아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파견	유아 문화예술 교육 교구재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 교육 연수 지원	지역 문화인프라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등) 프로그램 연계 정보 제공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
1순위	21.4	28.6	14.3	28.6	7.1	-
2순위	23.1	30.8	7.7	23.1	15.4	-
3순위	38.5	23.1	23.1	7.7	-	7.7
4순위	7.7	23.1	38.5	23.1	-	7.7
5순위	7.7	-	7.7	7.7	46.2	30.8
6순위	-	-	7.7	7.7	30.8	53.8

4)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분석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조사의 응답자는 총 351명이다. 연령별로 ‘어린이(초등학생)’ 21.1%, ‘청소년(중고등학생)’ 3.7%, ‘성인(20-50대)’ 36.8%, ‘노인(60대 이상)’ 38.5%이고, 성별로는 ‘남성’ 26.8%, ‘여성’ 73.2%이다. 직업별로는 ‘학생’ 24.8%, ‘주부’ 32.8%, ‘직장인’ 16.0% 등이고, 최종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재학’ 38.7%, ‘중학교 졸업/재학’ 6.6%, ‘고등학교 졸업/재학’ 14.2%, ‘대학교 졸업/재학’ 22.2%, ‘대학원 졸업/재학’ 3.7% 등이다.

[표 3-4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연령	어린이(초등학생)	74	21.1
	청소년(중고등학생)	13	3.7
	성인(20-50대)	129	36.8
	노인(60세 이상)	135	38.5
성별	남성	94	26.8
	여성	257	73.2
직업	학생	87	24.8
	주부	115	32.8
	직장인	56	16.0
	기타	82	23.4
	무응답	11	3.1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재학	136	38.7
	중학교 졸업/재학	23	6.6
	고등학교 졸업/재학	50	14.2
	대학교 졸업/재학	78	22.2
	대학원 졸업/재학	13	3.7
	기타	24	6.8
	무응답	27	7.7
합계		351	100.0

(1) 문화예술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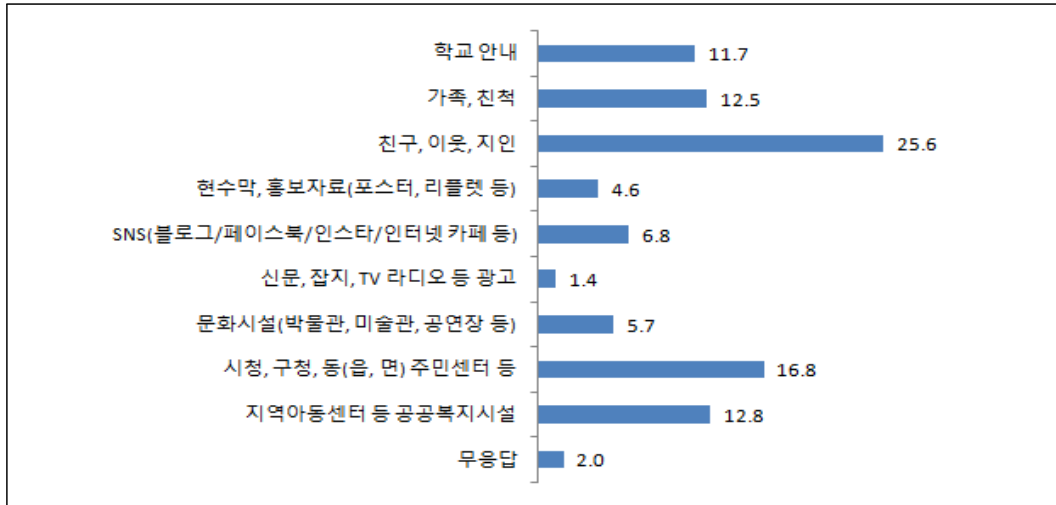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이전 경험이 있다’는 62.7%, ‘없다’는 37.3%로 나타났다. 이전 경험이 있는 참여자(n=220)의 참여 시기(복수%)는 어린이(초등학생) 36.4%, 노인 34.1%, 성인(20-60세 미만) 25.5%, 청소년(중고등학생) 7.3% 순이고, 참여 형태(복수%)는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69.1%,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22.3%, 관람·감상형 18.6%로 나타났다.

이전 경험이 없는 참여자(n=131)의 비참여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의 정보가 없어서’가 2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1.4%)’, ‘문화예술교육을 받을만한 시설이 없어서(13.0%)’, ‘흥미로운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없어서(11.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이전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이전경험 있음		220	62.7
참여 시기 (복수%)	유아(학령기 이전)	15	6.8
	어린이(초등학생)	80	36.4
	청소년(중고등학생)	16	7.3
	성인(20-60세 미만)	56	25.5
	노인(60세 이상)	75	34.1
참여 형태 (복수%)	관람·감상형	41	18.6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152	69.1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49	22.3
이전경험 없음		131	37.3
비참여 이유	시간이 없어서	28	21.4
	문화예술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13	9.9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으로(비용 부담)	6	4.6
	흥미로운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없어서	15	11.5
	문화예술교육을 받을만한 시설이 없어서	17	13.0
	문화예술교육의 정보가 없어서	33	25.2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1	0.8
	신청이 조기 마감 되어서	1	0.8
	무응답	17	13.0
		3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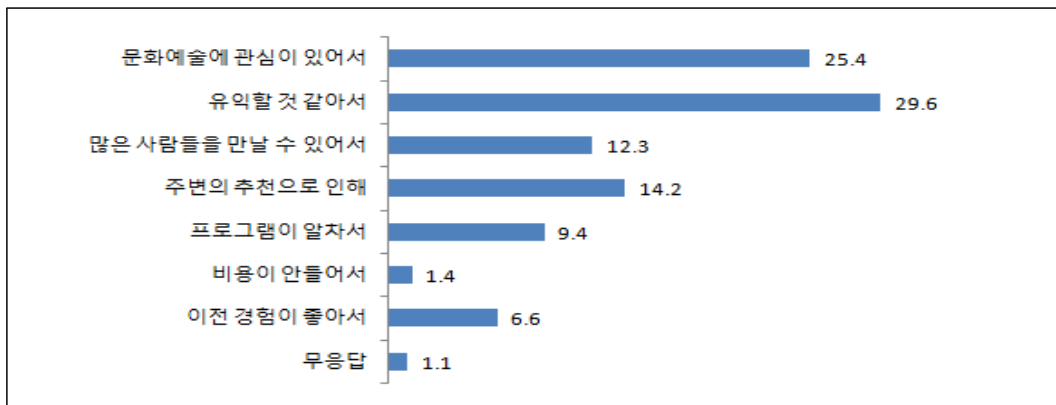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이웃, 지인’이 2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청, 구청, 동(읍, 면) 주민센터 등’ 16.8%,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복지시설’ 12.8%, ‘가족, 친척’ 12.5%, ‘학교 안내’ 11.7% 등의 순이다.



〔그림 3-6〕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정보 획득 경로(단위: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충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참여 이유로는 ‘유익할 것 같아서(29.6%)’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서(25.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주변의 추천(14.2%)’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12.3%)’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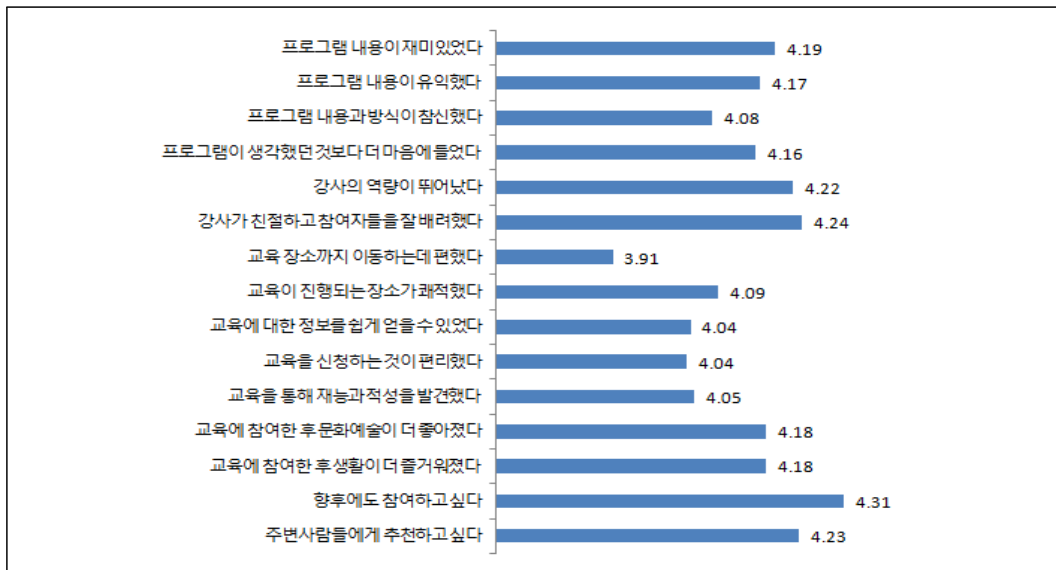
〔그림 3-7〕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참여 이유(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만족 95.2%, 불만족 4.8%로 조사되었다. 불만족 (n=17) 이유로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이 각각 5건, ‘교육 강사’ 3건, ‘교육 장소’, ‘교육 참여자와의 관계’, ‘수준별 분반’, ‘교육비용’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표 3-4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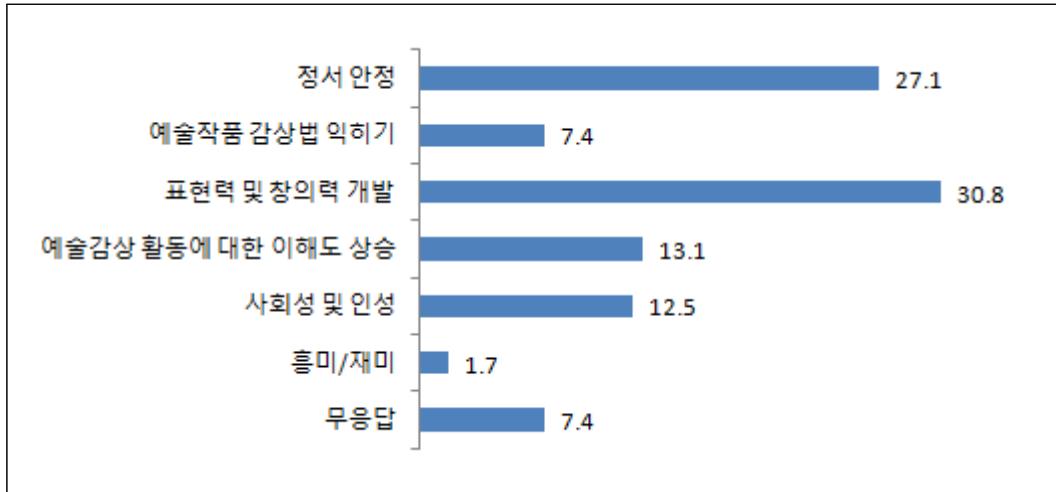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만족		334	95.2
불만족		17	4.8
불만족 이유	교육 내용	5	29.4
	교육 강사	3	17.6
	교육 장소	1	5.9
	교육 시간	5	29.4
	교육 참여자와의 관계	1	5.9
	수준별 분반	1	5.9
	교육비용	1	5.9
		351	100.0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세부 만족도는 모든 항목이 보통(3점) 이상인 가운데, ‘교육 장소까지 이동이 편했다(3.91점)’ 외에는 모두 만족(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4.31점으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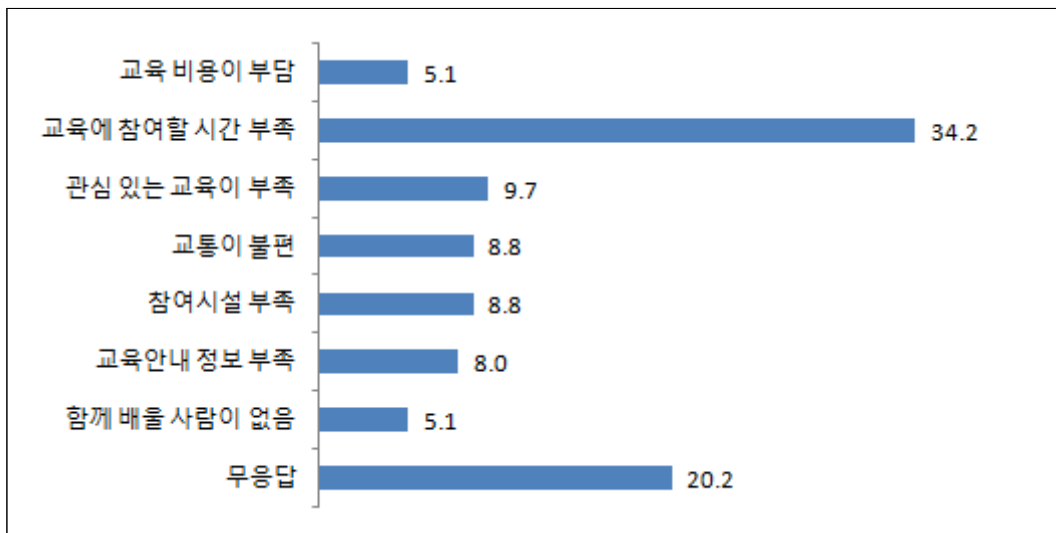
〔그림 3-8〕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세부 만족도(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으로는 ‘표현력 및 창의력 개발’이 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 안정’이 27.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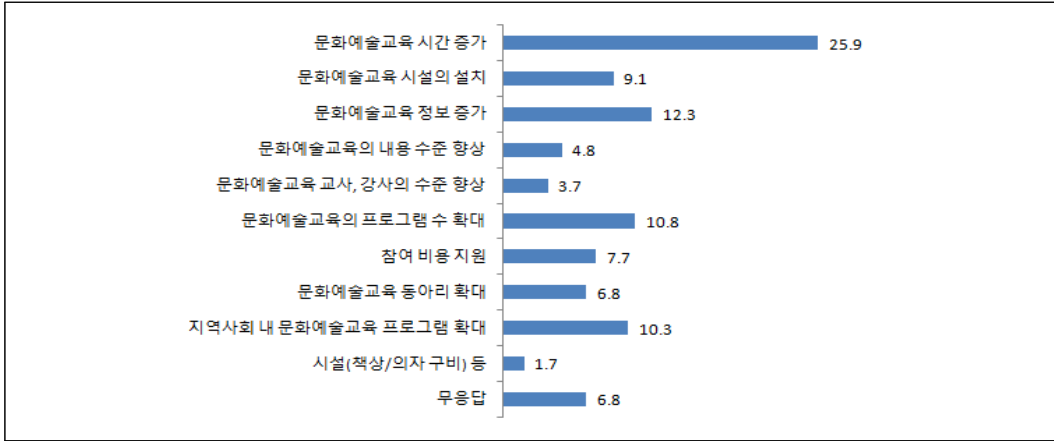
(그림 3-9)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효과(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에 참여할 시간 부족’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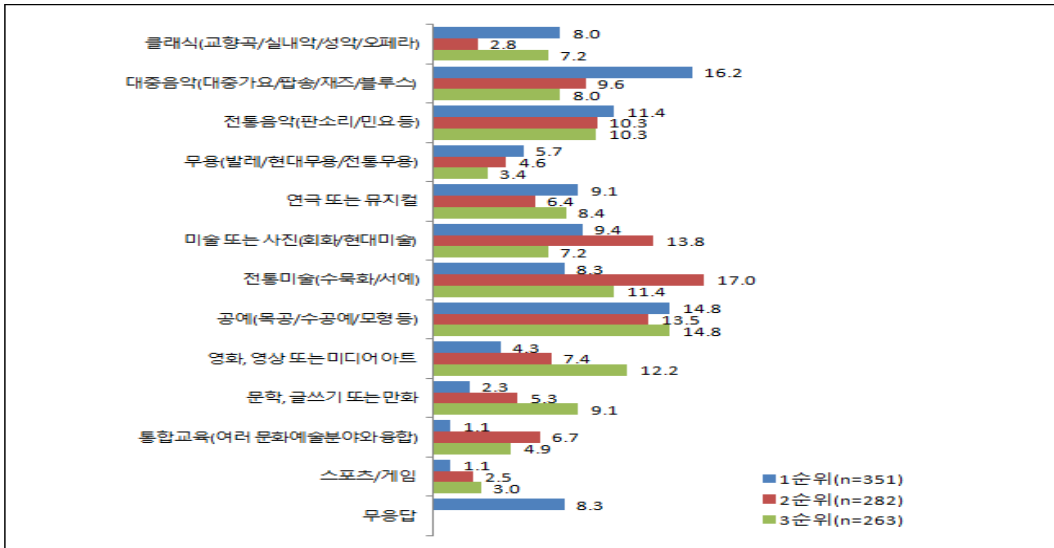
(그림 3-10)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애로사항(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문화예술교육 시간 증가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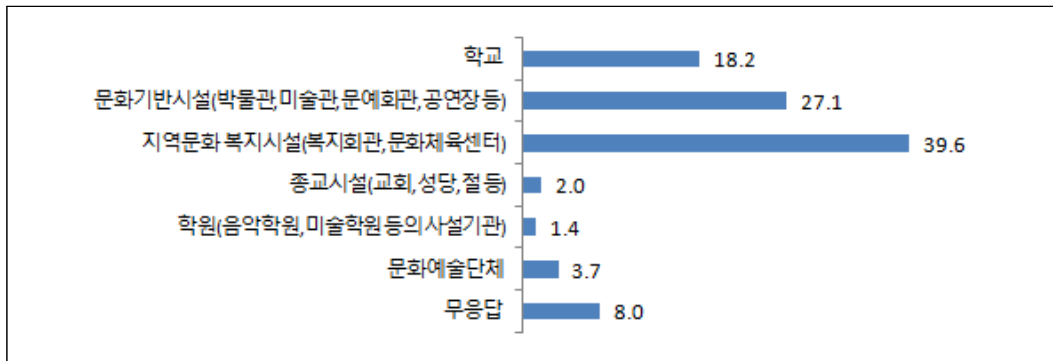
〔그림 3-11〕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보완점(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분야 1순위는 ‘대중음악(대중가요/팝송/재즈/블루스)’, 2순위는 ‘공예(목공/수공예/모형 등)’, 3순위는 ‘전통미술(수묵화/서예)’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전통미술’과 ‘전통음악’은 1, 2, 3순위 모두에서 참여 희망이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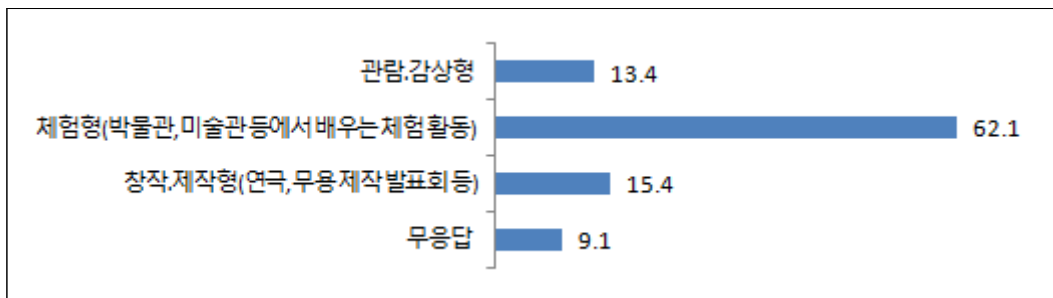
〔그림 3-1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분야(단위: %)

충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장소는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등)’ 27.1%, ‘학교’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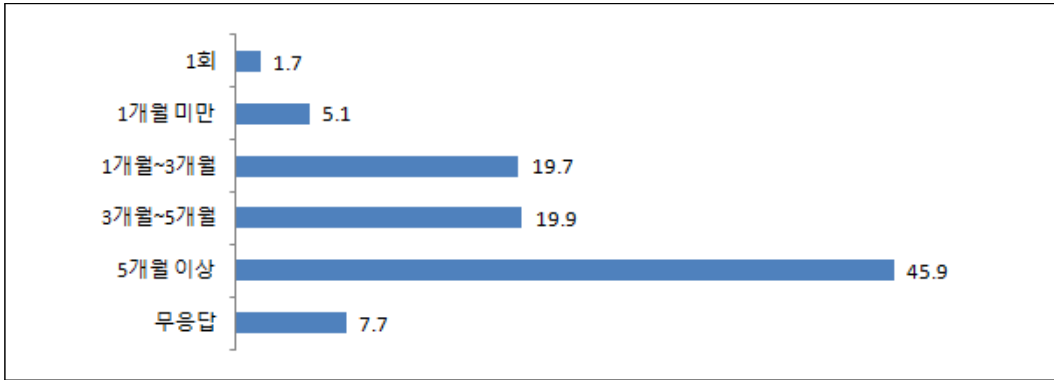
[그림 3-1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장소(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이 62.1%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15.4%, ‘관람·감상형’ 13.4%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희망 프로그램(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적정 운영 기간은 ‘5개월 이상’이 45.9%로 높게 나타났고, ‘3~5개월’ 19.9%, ‘1~3개월’ 19.7%, ‘1개월 미만’ 5.1%, ‘1회’ 1.7% 등이다.



〔그림 3-15〕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걱정 시간(단위: %)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최근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람률은 ‘영화관 상영 영화(37.6%)’와 ‘미술전시회(사진, 서예, 디자인 등)(31.1%)’가 높았다. 한편 참여율은 ‘전통음악(국악, 풍물, 민속극 등)(21.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최근 1년간 참여 현황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		참여율(%)
	빈도	비율(%)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92	26.2	13.0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 방송프로그램 등)	78	22.2	3.8
전통음악(국악, 풍물, 민속극 등)	61	17.4	21.3
무용공연(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등)	39	11.1	15.4
연극 또는 뮤지컬	94	26.8	18.1
미술전시회(사진, 서예, 디자인 등)	109	31.1	13.8
영화관 상영 영화	132	37.6	3.0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등)	50	14.2	6.0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향후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 1순위로 꼽은 것은 ‘체험, 표현, 감상의 예술교육 요소 강화(62.5%)’였으며, 이는 ‘예술적 표현력 계발’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전략을 예술적 표현을 계발하기 위한 ‘창의놀이 유아 문화예술교육’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적합한 담당자는 ‘외부 문화예술 전문 강사(75.0%)’를 꼽았으며,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제로 1순위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파견’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이 꼽힌 만큼, 향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과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조사는 ‘어린이·청소년(87부, 24.8%)’, ‘성인(129부, 36.8%)’, ‘노인(135부, 38.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각 생애주기별 충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의 수요조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만족도(95.2%)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만족 이유로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이 꼽혔다. 또한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시간 증가(2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5개월 이상(45.9%)’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프로그램은 체험형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 도민의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함에 있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근무 시간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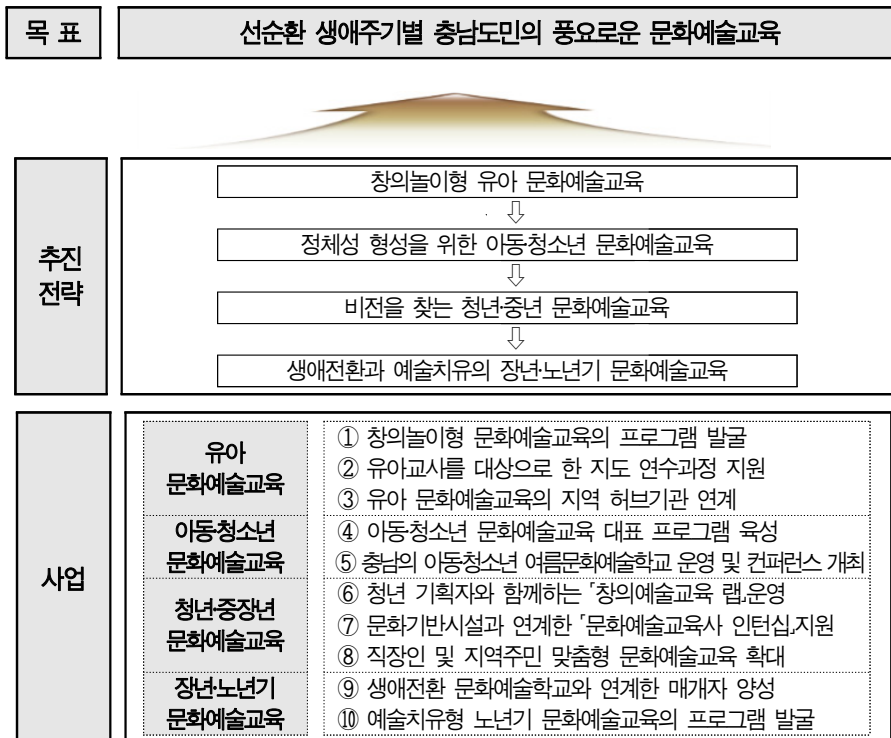
충남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향후 참여 희망 장소는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이 가장 높았고(39.6%), 그 다음 순위로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27.1%, ‘학교(18.2)’가 꼽혔으며, 향후 충남 문화예술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점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기존 공간(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학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또한 중요하다.

제4장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1.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

1) 목표와 추진전략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순환 생애주기별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으로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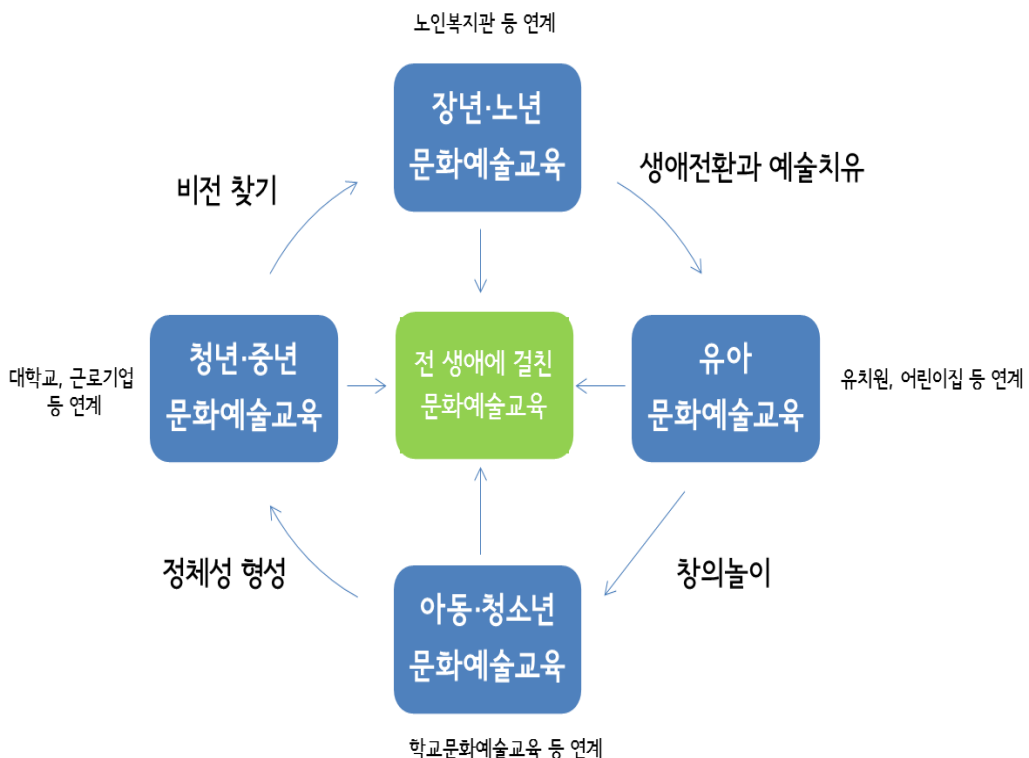


[그림 4-1]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2) 선순환 체계 구축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각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유아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유아에서부터 장년·노년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경험, 향후 도민들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쳐,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생애주기별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급자(문화재단, 문화기반 시설, 교육청)와 수요자, 후원자(지역 기업) 간에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충남 도민의 생애 주기별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2.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1)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1) 창의놀이형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① 배경 및 필요성

초중등시기에 비해 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생애 기초학습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며, 창의놀이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를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7년 9개 프로그램, 218개 기관)’, ‘유아 문화예술교육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유아 교사 교육 추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자원을 토대로 한 지역 중심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 대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유아’를 꼽았는데, 현재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과 연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② 현황 및 사례

싱가폴 ‘굿맨 아트센터(Goodman Arts Center)’의 부설 유아 예술교육 시설인 ‘아트 그라운드(The Artground)’는 폐교 학교의 강당을 개조하여 유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운동장과 같은 공간을 활용한 야외 예술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과정으로 상주직원, 예술가, 예술 감독이 함께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굿맨아트센터의 입주 작가들과 협업하여 유아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창의놀이형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유지선, 홍후조, 2018).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은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차별화된 양질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례인 ‘아트 그라운드’와 같은 창의놀이형 유아문화예술교육 과정의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의 세부사업 중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은 지역센터의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문화기반시설)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총 4차시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으로 방문형·체험형 혼합 구성 및 문화기반시설 주요 콘텐츠와 연계, 예술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도서벽지·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유아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

〔그림 4-3〕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의 추진체계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유아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창의놀이형)’ 개발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수요조사 및 운영 기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충남문화재단(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충남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범주 안에서 해석 및 구현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후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문화기반시설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등을 실시한다.

- ☐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 ☐ 충남문화재단의 지역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자료 : 아트그라운드 홈페이지. theartground.com.sg.

(그림 4-4)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트그라운드 프로그램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에 발표된 사업예산 총 규모는 총 5,550백만 원(국비 3,000백만 원, 지방비 2,550백만 원)이며, 충남 지역별 예산규모는 총 300백만 원(국비 150백만 원, 도비 150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서 2019년부터 운영할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창의놀이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원규모에 따라 1개 문화기반시설 기준, 약 85백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다.

본 교육과정은 충남 도민의 생애초기 유아 단계부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① 배경 및 필요성

향후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담당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2순위로 꼽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유아교사 대상 연수 운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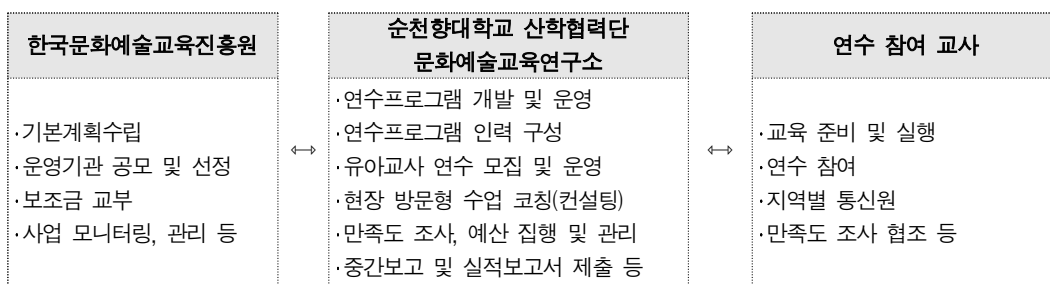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에서 발표한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은 지역별 유아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중 연수운영 적격기관 최소 1개소를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소 5회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문화기반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구성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정은 문화기반시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문화기반시설 연계 수업 운영과정을 포함하고, 연수 프로그램 북 제작과 배포가 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충남에서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② 현황 및 사례

충남 내 위치한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험을 살려 연수 프로그램을 ‘극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유아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017 유아교사대상문화예술교육 연수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방법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하되 유아교사가 지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2016년 프로그램개발자인 예술교육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극놀이 중심의 통합문화예술이 지닌 가치를 경험하고 즐기도록 4개(총 5차시 아저씨의 우산, 총 5차시 건축가 가우디 아저씨, 총 5차시 옛날 친구 돛가비, 총 10차시 피터와 늑대)의 극놀이 주제에 따라 각 활동이 연계되도록 연수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각 주제별로 극놀이를 중심으로 미술·음악·신체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개발된 지도안을 연수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향후 충남에서 진행할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사업 또한 기존에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ACE(2017),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지원사업 극놀이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그림 4-5)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유아 생애주기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교육과정은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사업을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또한 충남 내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 ☐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연수 세부 프로그램		지역별 일정		
시 간	과 정	지 역	일 정	
1 일 차	12:30~13:00	등록 및 사업 설명	경기(수원)	9월 23일~24일 동부생명 인재개발원
	13:00~14:00	연극예술의 이해	강원(원주)	10월 14일~15일 인터불고 호텔
	14:00~16: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1]	강원(춘천)	10월 21일~22일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 호텔
	16:00~18: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2]	경북(안동)	10월 28일~29일 안동 그랜드 호텔
	18:00~19:00	저녁식사	경북(구미)	11월 4일~5일 금오산 호텔
2 일 차	19:00~23: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3]	강남(강원)	11월 11일~12일 인제나눔(kb 순해보행) [사천]
	08:00~09:00	아침식사	강남(강원)	11월 18일~19일 유람 인제개발원[산청]
	09:00~12: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4~1]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프로그램 소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연 진행 [프로그램 4~2]		

자료 :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홈페이지 www.facebook.com/순천향대학교문화예술교육연구소-19281354407479/
 (그림 4-6) 극놀이 중심의 유아문화예술교육 연수프로그램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안)’의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사업은 1개 문화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20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유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연수 교육과정은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교사가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다.

(3)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허브기관 연계

① 배경 및 필요성

유아 시기의 창의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양한 놀이 활동은 유아들의 지적·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고,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에듀팡 교육뉴스, 2017.12.12.). 충남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도민 생애주기 중 유아를 위해 개설된 문화예술교육은 가장 적은 편이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문화예술교육 우수 모델이 발굴되어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위해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허브기관 연계’ 사업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2017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개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컨퍼런스’는 국내외 문화기

반시설을 통해 이뤄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국내 유아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중요하고, 크고 작은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히 유아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교원대 이재영 교수는 유아문화예술교육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소외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건이 취약하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외에도 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강사 선발, 교육, 배치,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한층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에듀팡 교육뉴스, 2017.12.12.).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에는 아직 유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늦게 이루어진 편이기에, 국내외 문화기반 시설 및 문화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외 사례 등을 나눌 수 있는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가칭)’를 개최한다. 향후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개발·운영하는 충남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 연구소 등을 각 지역별 허브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 유아 문화예술교육 모델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맵핑 제작을 함께 추진한다.

- ☐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가칭) 개최
- ☐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별 허브기관 지정
- ☐ 유아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자원(예술인, 예술강사 등) 및 문화자원(프로그램, 공간 등) 연구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맵핑 제작



자료 : 연합뉴스(2017.12.07.). www.yna.co.kr/view/AKR20171207149000005?input=1195m
 [그림 4-7] '2017 유아 문화예술교육 학술회의' 발표 사례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 상반기에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도비와 컨퍼런스 주관 기관 공동 예산(총 5백만 원)으로 개최한다. 향후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안)'의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을 운영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연구소 등을 각 지역별 허브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약 5회의 교육과정을 도비(50백만 원)를 통해 책정하여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조사 관련 연구 조사를 충남도에서 발주(총 100백만 원)하고, 향후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맵핑 작업(도비, 200백만 원)하여 확산한다면, 충남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1)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 육성

①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주요하게 꼽았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의 주된 재원이 자체 사업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어,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재원 조달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역 내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육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문화예술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에, 이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개설이 필요하다.

② 현황 및 사례

동아일보에서 2007년부터 올해로 11년째 운영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친구야 문화예술과 놀자’는 2018년 12월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50회 공연을 맞이하였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장르를 활용해, 청소년 전인교육을 기본 목표로 청소년의 삶을 나누는 뮤지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예술 전문 인력(교육기관, 언론사(동아일보), 문화기반시설, 교육청 등이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례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형태인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충남에서는 2011년 운영된 ‘당진의 현대 무용 교육 과정’ 이후 운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충남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외에도, 전문 교육기관·언론사·문화기반시설(문화재단)·교육청·기업 등이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육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로 K-POP 기반의 영어 융합 뮤지컬 교육 콘텐츠를 제작 적용해, 최근 K-POP 문화 트렌드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산청군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자존감을 높여 건전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교육청이, 산청교육지원청, 산청군, 동아일보사와 함께 기획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2년 창원, 2013년 진주, 2014년 마산, 하동, 2017년 양산, 산청에서 행사를 진행해 지역에서 호평 받은 바 있다(경남일보, 2018.12.10.).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을 대표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과정(예: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문화재단 및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차 년도에 운영할 단체를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및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 ☐ 문화기반시설, 교육청 등이 함께 연계한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K-POP 뮤지컬) 운영
- ☐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기관과 MOU 체결



자료 : 경남일보(2018.12.06.). 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605

[그림 4-8] 나도 K-POP 스타! 10일 간의 기적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각 상반기, 하반기에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총 4회 120백만 원)를 마련한다. 이후 2021년부터 교육과정의 재원 조성은 지역 내 기업 메세나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매칭한다. 본 사업은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충남의 아동·청소년 맞춤형 대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육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① 배경 및 필요성

충남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가장 많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18년 약 39개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문화재단에서는 미술과 전시를 연계하여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예술 감상교육 ‘애들이 뭐하니? 미술관에서 놀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충남에는 4년 간 운영된 ‘예술꽃 씨앗학교’ 한정초등학교 사례, 홍성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사례 등 지역 학교와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의 대안학교가 공교육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형태로 볼 수 있으나, 덴마크의 ‘에프터 스콜레(After Skole, 청소년 인생학교)’는 대안학교의 일종이지만, 기존 공교육 구조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에프터 스콜레’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과를 가르치지만 체육, 음악, 연극과 같은 과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충북교육청이 에프터 스콜레협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안교육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기준 교육부 인가 대안 고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7개교 등 총 82개가 있으며, 현재 충남에는 여해학교(중등), 드림학교(고등)의 대안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고야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나고야 섬머 세미나’는 2013년 기준 여름방학기간에 3일간 2,000여 강좌가 개강되는 일본 최대의 교육 이벤트로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 어디라도 학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에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토론하거나, 다른 교실에서는 유명한 예술가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실 밖으로 나와 쓰레기 처리장이나 학교에는 없는 전문적인 기계가 있는 장소에서 체험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충남연구원, 201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8년 진행한 각 사업들의 성과 공유회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워크숍 Free Play Fun’에서는 한 사람의 예술가가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한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이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신규 교육부터 이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충남 내 지역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나고야 섬머 세미나’와 같은 ‘여름문화예술학교(가칭)’를 운영하여, 지역 내 학생과 예술인,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한 충남교육청에서도 에프터 스쿨레협회와 협약을 맺어 공교육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 충남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식공유 컨퍼런스 개최
- ☐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범 교육과정 진행
- ☐ 충남교육청과 에프터 스쿨레협회 협약 체결 및 충남형 에프터 스쿨레 운영



자료 : 연합뉴스(2018.10.25.). www.yna.co.kr, 오마이뉴스(2018.11.27.). www.ohmynews.com

〔그림 4-9〕 덴마크 에프터 스쿨레의 교육과정 및 충북교육청 교사 교류 협약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부터 매년 충남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연말에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비(100백만 원)로 책정한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식공유 컨퍼런스’는 충남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 및 시연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에 지속가능한 교육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매년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도비(75백만 원)와 시·군비(75백만 원) 매칭으로 운영한다. ‘충남형 에프터 스쿨레’는 교육비를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일부 책정하지만, 도와 시·군, 교육청 등에서 ‘충남형 에프터 스쿨레’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 내 지역학교의 교육시설 및 폐교, 공공기관 등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비전을 찾는 청년·중장년 문화예술교육

(1) 청년 기획자와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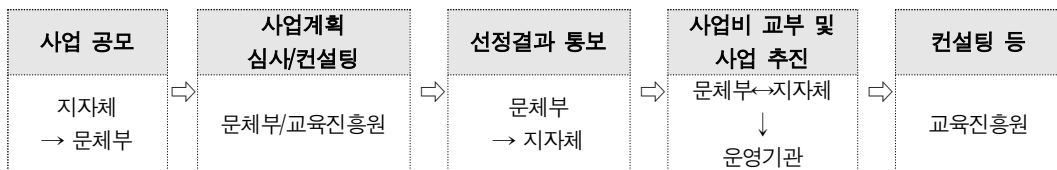
① 배경 및 필요성

충남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과정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특히 충남에는 문화예술 관련 대학교가 많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청년 예술가·교육자의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선순환구조 확보를 위해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청년 기획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Lab) 구축 지원(R&D)'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② 현황 및 사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비전 2030'과 더불어 해당 문화비전의 철학을 담은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예술참여 환경조성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1차년 시범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 조사(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최종 운영지역을 선정(전국 8개소, 개소당 연구 참여인력 25~30명, 총 약 210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지역별 사업계획에는 '지역 문화자원', '사회적·인구 특성', '지역 문화기반시설', '예술대학', '문화예술교육 단체'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분석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기본계획(안)

[그림 4-10]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추진 일정

[표 4-1]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역할분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통보 ◦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및 정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센터 사업관리과정 지원 ◦ 사업관리(컨설팅, 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현장 모니터링, 평가, 성과 관리 등)
17개 광역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창의예술교육 랩
<p>〈광역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마련,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단체 대상 사업비 교부 및 정산관리 <p>〈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관리 세부계획 수립 ◦ 지역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기관으로 지역별 운영방향에 따른 밀착 관리 필요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관리,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예술대학-문화시설 협력체계 구축 ◦ 창의예술교육 랩의 세부계획 수립, 지원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역주민 대상 시범운영 ◦ 참여 문화예술교육자, 청년 예술가(예술대학 재학생 등) 역량 개발, 관리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기존에 1인 강사 위주로 진행되던 충남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 내 청년 기획자가 함께 창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19년 1월 진행될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창의예술교육 랩」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여 프로그램 설계를 충남 내 예술대학 및 문화시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의 2019 「창의예술교육 랩」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 충남 내 예술대학 및 문화시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 ☐ 충남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청년 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창의예술교육 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비 매칭 예산(50%)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에서는 총 600백만 원(국비 300백만 원, 도비 300백만 원) 예산을 책정하여 충남문화재단과 함께 「사업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사업 개요」, 「기대효과」, 「사업 세부 추진 내용」, 「사업 관리 방안」,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한다. 본 사업은 향후 충남을 대표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① 배경 및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7조 2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충남문화재단에서도 2018년에 문화예술교육 청년기획자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준비를 실시한다.

② 현황 및 사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문화시설에 관련 전문가 및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발표되었다. 본 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활용한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2급과 1급으로 나누어지며,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문화예술 관련(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공예) 대학 졸업생의 경우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을 경우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 취득자는 박물관, 공연장, 공공교육 등의 기획 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충남 관련 2급 지정교육기관(2018. 3. 1. ~ 2020. 2. 29.)으로 지정된 곳은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연극, 사진, 음악, 만화·애니메이션, 영화)이 있으며, 시설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충남에는 총 158개(공공도서관 59개, 박물관 50개, 미술관 9개, 문예회관 18개, 지방문화원 16개, 문화의집 6개)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충남의 청년 문화예술교육사가 직접 문화기반시설에서 지

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사업계획
 (그림 4-11)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추진체계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충남 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인력 자원조사가 필요하다.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제도’를 활용할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청년 문화예술교육사가 약 6~10개월 간 인턴십 제도에 참여한 이후에도, 본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 도민의 생애별 주기에 맞추어 진행될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발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도민이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을 위한 사업공모
- 충남 내 자격증 취득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맵핑 제작
- 지역 맞춤형 충남도민의 선순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이에 관한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충남 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문화재단의 지역센터 사업운영비(200백만 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생산 및 유통의 역할을 할 문화기반시설에 보조금을 배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3) 직장인 및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① 배경 및 필요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종합계획(2018~2022)’은 청년·중년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장인 대상 지원’, ‘산업단지 직장인’, ‘지역주민’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인 대상 지원’은 직장규모 및 성격별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기타 소규모 직장, 자영업자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 직장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향후 연간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산업단지공단 지부’ 연계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은 주부 등 청·중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운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전국 84개소 지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공예, 난타, 서예, 문학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충남 청년·중장년 생애주기의 도민들을 위해 ‘직장인 대상 지원’, ‘산업단지 직장인’, ‘지역주민(마을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영국의 존 루이스 백화점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씨어터 액티브(Theatre Active)’와 연계하여 고객 서비스의 현실을 보여주는 연극을 제작하였다. 본 문화예술교육과정을 통해 매장의 순위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예술 활동을 통해 회사의 내부 직원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고, 소통기술 능력이 향상되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 영국 상공부가 발표한 예술 활용 효과 확인 후, 존 루이스 피터보로우 매장의 고위 경영진은 대인기술과 자신감 함양의 방법으로 예술 활용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씨어터 액티브(Theatre Active) 극단에 요청하여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연극을 진행함
- 직원은 매장 현장에서 2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극단 사람들과 만나절을 함께 보내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극배우들은 매장 직원의 역할을 맡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여 대본을 작성함. 백화점 직원들은 역할극 관람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이를 고객서비스 개선에 활용토록 함(김세훈, 조현성,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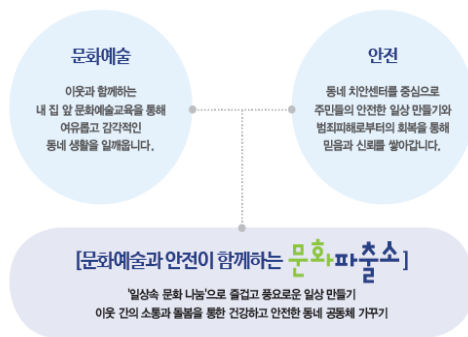
국내 사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의 치안센터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전문 예술단체에 속한 예술가가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연간 30회 내외 문화예술교육 과정(연극, 미술, 악기 등)을 진행하고,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통합발표회를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한다.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의 대표 문화예술교육 사례인 ‘당진문화예술학교(당진문화재단·당진문화원 운영)’는 도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취시키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청년·중장년 생애주기의 도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문화재단과 문화기반 시설에서 운영하는 ‘저녁에 만나는 문화예술학교(직장인 대상)’, ‘충남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학교(산업단지 직장인)’, 충남 내 경찰서(16개)·지구대(32개)·과출소(90개)·치안센터(85개)와 연계한 ‘충남형 문화파출소(지역주민)’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직장인 대상 ‘저녁에 만나는 문화예술학교(가칭)’ 운영
- ☐ 충남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신설
- ☐ 충남 경찰청 협력사업 <문화파출소> 운영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 매뉴얼』.

(그림 4-12) 문화파출소 추진배경 및 문화파출소 강북 개소식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9년부터 ‘저녁에 만나는 문화예술학교(도비 15백만 원, 문화기반시설·문화재단 15백만 원)’, ‘충남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학교(한국산업단지공단 110백만 원과 자부담 매칭)’, ‘문화파출소(국비 100백만 원, 자부담 10백만 원)를 운영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한다.

본 사업들은 충남 청년·중장년(직장인, 산업단지 직장인, 지역주민)에게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4)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1)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매개자 양성

① 배경 및 필요성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은퇴시기 50~64세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으로 2018년에는 세종, 대전, 경남, 전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서 소외되어 온 50~6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생애 주기적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50+ 세대의 문화 여가 생활을 다양화하고, 지역 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충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생애전환기(50~6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특히 단순 취미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새로운 인생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현황 및 사례

광주문화재단(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은 올해 11월 ‘2018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정부의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각과 각 지역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광주형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모델 개발에 관해 논의하였다. 세종시문화재단 또한 ‘2018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청춘문화 VJ’라는 테마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한국영상대학교와 ‘청춘문화 VJ’라는 사업을 통해 세종시 중·장년층이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한 영상제작 기술을 익히고, 세종시민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년층과 대학생이 상호 멘토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CNB뉴스연합, 2018. 06. 15.).

또한 광주문화재단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주기의 변화와 함께 어머니로서 살아온 50~6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경자씨와 재봉틀V-청춘컬렉션’을 운영하는데, 재봉틀을 이용해 추억이 깃든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 지나간 청춘을 회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충남에서는 장년(20~50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례로 아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민문화자원 활동가 양성사업 <문화드림학교>’, ‘그림책 공작소’ 등이 있으며, 단순 체험 교육과정에서 나아가 시민문화자원 활동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생애전환 세대(50+)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 내 문화재단의 수요조사와 생애전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교육과정 현황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혹은 신규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제2의 인생 찾기’,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과 같은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충남형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 ☐ 생애전환 세대(50+)를 위한 제2의 인생 찾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충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개설



자료 : 아산문화재단 내부자료

[그림 4-13] 아산문화재단의 장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국비(40백만 원)로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며, 2019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에 대한 공모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충남에서도 사업 신청을 준비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충남에서는 2019년부터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충남도 자체예산(60백만 원)으로 운영한다. 이후 2020년부터 도비(30백만 원), 시·군비(30백만 원)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여, 본 교육과정이 충남 생애전환 세대(50+)를 위한 대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성을 유지한다.

(2) 예술치유형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① 배경 및 필요성

중앙 정부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으로 ‘노인복지관 등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 ‘미디어 교육 확대’, ‘독거노인 등 탈 시설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보훈복지문화대학 재학 중인 국가유공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17년 16개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대체로 높은 노년층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며, 특히 청양·부여·서천 지역은 인구 40% 이상의 노년층 비율을 보인다. ‘2018 충남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 활동별 참여율이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7.5%에 불과하였으며,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를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꼽은 ‘시간 부족’에 대해서 노년층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충남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② 현황 및 사례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노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전까지 노년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의 의미 생산보다는 기능주의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를 존중하며 노년 양식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노미(bionomy)¹⁷⁾ 관점에서 압축된 죽음, 노화 지연, 노화 중지처럼 노화에 맞서는 안티에이징의 차원이 아니라, 제3기(60세 이후) 노년을 맞이하는 개인의 몸과 정신이 함께 변화하는 예술치유형 노년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나이 차별을 의미하는 에이지즘(ageism, 연령주의)에 저항하며 노인들이 자기 서사(敍事)를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연출하는 노년 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로,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들의 베이스 캠프인 뭐라도학교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노년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스스로 뭐라도 실행하는 현장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노년 문화예술교육 또한 그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영직, 2017).

영국의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는 노년들이 소액의 연회비를 내며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식·경험·재능·전문성 등을 교육 또는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교육 사례이다. ‘U3A’는 노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현재 충남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의 ‘찾아가는 영상 문화(찾아가는 영화관·장수사진, 어르신 추억 만들기 영상제작, 마을 추억 만들기)’를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한층 더 편하고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충남 내 노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고령화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실제 제3기 인생을 맞는 충남 노년층 생애주기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자조(self-help) 운동 방식이자, 스스로 개인의 몸과 정신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3기 인생대학(가칭)’에서 운영한다.

17) 조엘 드 로스네가 제시한 ‘바이오노미(bionomy)’는 집의 경영을 의미하는 ‘이코노미’ 표현에 빗대어 젊게 늙기 위한 삶의 경영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바이오노미’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즉, 몸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영직, 2017).

- 충남 노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 노년층을 위한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 충남형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기 인생대학(가칭)’ 운영



자료 : U3A 홈페이지. www.u3a.org.uk.

〔그림 4-14〕 영국 U3A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④ 사업예산 및 기대효과

2018년에는 충남에서 노년 생애주기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도비 60백만 원)와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시·군비 30백만 원, 자부담 20백만 원)할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2019년에는 충남형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기 인생대학’ 설립(도비 300백만 원) 및 연간 운영(도비 500백만 원)을 실시한다. 특히 ‘제3기 인생대학’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 충남문화재단과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의 큰 틀과 연계한 국민의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진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별 진흥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들의 계층별, 세대별 요구와 특성 파악을 전제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보편적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전략수립을 제시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전문가 워크숍 개최, ③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④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①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례조사 분석의 시사점

유아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은 문화시설의 기관들이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그들에게 자발적인 배움의 주체로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창의적인 진로 개척 역량과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청년·중년(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업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해결방안에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는 ‘산업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을 충남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노년·장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과정은 기획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향후 충남 장년·노년층의 도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자 설문조사 분석의 시사점

현재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기획자)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모두 중점 교육 대상을 어린이로 선택하였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운영 및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충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대상 수요조사 분석의 시사점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적합한 담당자로 ‘외부 문화예술 전문 강사(75.0%)’를 꼽았으며, 충남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제 1순위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파견’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이 꼽힌 만큼, 향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도민의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함에 있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근무 시간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기존 공간(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학교)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정책제언

(1) 목표와 추진 전략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순환 생애주기별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으로 구축하였다.

(2)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세부과제

①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창의놀이형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사업은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충남문화재단의 지역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창의놀이형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이다.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연수과정 지원 사업은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운영을 위한 충남 내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및 선정',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유아교사 대상 연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후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이다.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허브기관 연계 사업은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가칭) 개최', '유아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별 허브기관 지정', '유아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자원(예술인, 예술강사 등) 및 문화자원(프로그램, 공간 등) 연구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맵핑 제작' 등이다.

②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프로그램 육성 사업은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및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 수요조사', '문화기반시설·교육청 등이 함께 연계한 동아일보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K-POP 뮤지컬) 운영', '지역 기업의 메세나 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기관과 MOU 체결' 등이다.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충남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식공유 컨퍼런스 개최', '충남의 아동·청소년 여름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범 교육과정 진행', '충남교육청과 에프터 스쿨레협회 협약 체결 및 충남형 에프터 스쿨레 운영' 등이다.

③ 비전을 찾는 청년·중년 문화예술교육

청년 기획자와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사업은 '충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의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충남 내 예술대학 및 문화시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충남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청년 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이다.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을 위한 사업공모’, ‘충남 내 자격증 취득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맵핑 제작’, ‘지역 맞춤형 충남도민의 선순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등이다.

직장인 및 지역주민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은 ‘직장인 대상 「저녁에 만나는 문화예술학교」 운영’, ‘충남 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신설’, ‘충남 경찰청 협력사업 <문화파출소> 운영’ 등이다.

④ 생애전환과 예술치유의 장년·노년기 문화예술교육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매개자 양성 사업은 ‘충남형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생애전환 세대(50+)를 위한 제2의 인생 찾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충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 매개자 양성과정 개설’ 등이다.

예술치유형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발굴 사업은 ‘충남 노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노년층을 위한 예술치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충남형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기 인생대학」 운영’ 등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도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진흥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 현장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연구 이후 2018년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변화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지속적인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관련 연구를 2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과 같이 충남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과제에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도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의 각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현황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향유 실태조사』 .
- _____ (2017).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
- _____ (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 _____ . 『2019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기본계획(안)』 .
- _____ .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계획』 .
- _____ .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안)』 .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2017). 『2017 유아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지원사업 극놀이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 아르떼 리포트(2018). 『통합문화예술교육 관점에서의 싱가포르 유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 오디세이학교(2018). 『2018학년도 교육계획서』 .
- 유지선, 홍후조(2018). 싱가포르 문화시설에서의 유아 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분석:
플레이엄(Playeum)과 아트 그라운드(The Art Ground)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16(3), 145-167.
- 이현정(2011). 창의성 신장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천문화재단(2018). 『Enhancing “ALL”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연구』 .
- 정윤경(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와 과제, 교육철학연구, 38(4), 105-129.
- 천안문화재단(2018). 『2018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 사업계획서』 .
- 충청남도(2018). 『2018 충남사회지표』 .
- 충남연구원(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
- _____ (2017.06.23.).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
- _____ (2018). 『문화파출소 운영 현황 분석 및 제언 : 경찰청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
 _____(2015).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
 _____(2016).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추진방향』 .
 _____(2017).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연구』 .
 _____(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
 _____(2017).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 매뉴얼』 .
 _____(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
 _____(2018).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

보도자료

경남일보(2018.12.06.). “나도 케이팝 스타” 청소년 꿈 엮는다

www.gn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605에서 2018.12.19. 인출

뉴스웨이(2018.05.14.). 광주문화재단, 50~60대를 위한 ‘경자씨와 재봉틀V’참가자 모집

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8051415344086679에서

2018.12.19. 인출

문화체육관광부(2018.01.11.). 누구나 더욱 손쉽게 가까이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13>에

서 2018.12.19. 인출

에듀팡 교육뉴스(2017.12.12.). 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발전하려면...“틀’ 벗어난 예술교육

이뤄져야” 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7978에서 2018.12.19. 인출

연합뉴스(2017.12.07.). 아이의 감각 예술교육으로 깨운다...‘유아문화예술교육 학술회의’,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7149000005?input=1195m>에서

2018.12.19. 인출

_____ (2018.10.25.). 충북교육청-덴마크 에프터스콜레 교사 교류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112300064?input=1195m>.에서

2018.12.19. 인출

영남일보(2017.12.04.). [공부의 미래. 6] 덴마크 대안학교, 에프터스콜레를 가다
m.yeongnam.com/jsp/view.jsp?nkey=20171204.010050726470001.에서
 2018.12.19. 인출

오마이뉴스(2018.11.27.). “자존감이 커졌다”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학생의 자부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1359.에서 2018.12.19. 인출

이뉴스투데이(2016.11.08.). 용인문화재단, 유아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회
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781.에서
 2018.12.19. 인출

arte [365](2017.02.27.). 노년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숙을 위하여 책으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www.arte365.kr/?p=57104 고영에서 2018.12.19. 인출

CNB 뉴스연합(2018.06.15.). 세종시문화재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천만원 확보 www.cnb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61에서
 2018.12.19. 인출

인터넷사이트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jcf.or.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kosis.kr/index/index.do.

내셔널 씨어터 홈페이지. www.nationaltheatre.org.uk/theatreworks.

당진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 www.dangjinart.kr/school/index.html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홈페이지. www.dangjinart.kr/school/index.html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홈페이지.
www.facebook.com/순천향대학교-문화예술교육연구소-1928139544074779/

아트그라운드 홈페이지. theartground.com.sg.

오디세이학교 홈페이지. odyssey.hs.kr.

용인문화재단 블로그.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cf2012&logNo=22085658874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지혜로운학교 U3A 카페. cafe.naver.com/openuniversity.

천안예술의전당 홈페이지. www.cnac.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웹진. www.arte365.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index.do.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한정초등학교 홈페이지. hanjeong.cnees.kr

U3A 홈페이지. www.u3a.org.uk.

□ 부록1. 사전자문의견

① 자문회의 개요

- 일시: 2018년 07월 13일
- 대상/방법: 자문위원 1인 / 사전자문회의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 문 위 원	<p>•[연구대상의 명확화]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함. 이에 대한 기준으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구분하는 생애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p> <p>•[중앙정부 관련 사업 검토] 생애주기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충남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p> <p>•[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설정] 유아기(유아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놀이형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기(정체성 형성), 청·중년기(비전 찾기), 장년기(정신건강 및 예술치료), 노년기(질병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시) 등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p> <p>•[사례 검토]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선진 국내외 사례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p>

□ 착수연심회 자문의견

① 착수연심회 개요

- 일시: 2018년 07월 30일
- 대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1인, 충남연구원 5인, 자문위원 2인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 문 위 원	<p>●[연구의 목적]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공급과 수요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칭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할 것</p> <p>●[제목과 목차의 수정] 향후 제목을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목차도 2장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현황’ 부분을 더 강조하고, 정책 부분은 축약할 것</p> <p>●[연구의 범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함</p> <p>●[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대표 충남 사례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활용할 것</p>
반 영 사 항	<p>●[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진흥 방안을 도출함.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충남의 생애주기별 대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진행하여 신뢰성을 높임</p> <p>●[제목과 목차의 보완] 제목을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으로 최종 수정함. 또한 2장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현황’ 부분을 더 강조함</p>

□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① 최종연심회 개요

- 일시: 2018년 12월 20일
- 대상: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1인, 충남연구원 5인, 자문위원 2인

② 주요 자문의견

구분	내용
자 문 위 원	<p>•[연구의 목적 명확화] 왜 본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 또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예: 농어촌, 도시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것</p> <p>•[연구의 맥락 및 단어 보완] 현재 충남도정의 철학을 반영한 맥락으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예: 포용, 사회적 문제 명시 등)</p> <p>•[추진 체계의 보완] ‘선순환 생애주기별 충남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각 생애주기별 다양한 주체의 참여 모형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p> <p>•[연구의 범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도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과 각 시·군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을 경우 보완할 것</p>
반 영 사 항	<p>•[연구의 목적 및 맥락 수정] 충남도정 철학을 반영한 맥락으로 보완을 진행했으며, 추진 체계의 부분도 각 생애주기별 다양한 주체의 모형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함</p> <p>•[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전반적 도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진흥 방안을 도출하였기에, 각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현황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없는 도민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2차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에 향후 연구로 제안</p>

□ 부록2. 전문가 워크숍

가. 개요

일 시	2018년 5월 2일(수), 14:00 ~ 17:00	
장 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참석자	발제자(3인)	김재경(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정지은(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좌장(1인)	김보성(대전문화재단 실장)
	토론자(6인)	이존관(충남도청 문화정책과장) 이선미(충남도교육청 장학사) 변상섭(충남문화재단 부장)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원(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차장) 김춘경(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
	녹취록 작성(1인)	윤소민(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나. 내용

▶ 김재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

주제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올해 1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역에 맞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좋은 쌀이 중요하고, 쌀을 불리는 시간, 뜸들이고, 불조절하는 노하우 같은 경험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해야 하는 부분에 자원, 시간, 경험 이 세 가지를 충분히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이 사람인데 예술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정책, 이슈가 합쳐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서 하기 보단,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 그 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담겨 있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유연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엄청난 반복을 통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름은 김재경, 나이는 5살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어머니가 매번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들어보니 반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습니다. 중앙이든, 지역이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존 14년 동안 저희가 중앙에서 만들어 가이드를 내려드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들으려고 했고 충분하진 않지만 그 과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정책 환경은 5가지였습니다. 중요성, 정책 연계성,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요구 증대, 패러다임 변화, 제4차 산업혁명시대도래로 시대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가를 고민했습니다.

한계중심으로 저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계부분이 구체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국악 예술 교육은 18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본다면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재정비가 필요하며, 중앙의 공급자 관점에서 지역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지역기반 생태계구축, 수요자 중심을 포함 이 세 가지로 접근하려 합니다.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을 먼저 설명 드리면,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중앙을 보고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자율성, 독립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가이드가 이렇게 하나까 따라 가야하지 않을까?’ 라기 보다 우리 지역의 고민들을 중앙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자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같은 부분이 그간에는 유연하지 못하였지만, 향후에는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역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 합니다. 광역 센터의 위상,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관점들이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지원과 연계강화로 생활문화권 강화 등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남에 헬로아트랩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그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협력망 활성화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으로 어떻게 이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기획사업 위주로 학교, 장애우 위주로 대상을 찾다보니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으며 추진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태어나면서 유아, 아동, 청소년, 중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로 전 국민이 성장하고,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대상별로 접근은 문제가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생애주기별 고민에 대한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협력해서 방향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접근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각화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각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문화예술 교육 중에 예술교육지원사업은 1인 강사 과전형태로 운영되어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로 다각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혜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반 고도화 사항들은 연구역량, 전문 인력역량강화, 교류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 인력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활동가 예술가들이 어떻게 수혜자를 만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자원을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인력, 전문 인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서 수요조사 계획을 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분으로 지역의 예술가, 활동가 중앙단위 도와 협업 하실 때 지역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인력들이 실패 하더라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지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주제 2: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이 세미나의 목적은 현재로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는, ‘종합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기서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의 총합이 전체 문화입니다.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계획의 큰 장점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지역이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영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문화에

술교육을 하는가라고 하면 법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해서 라고 했지만 예술교육의 목표는 국가를 넘어 개인의 발전 뿐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학교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을 보완하던가, 평생교육체계에 문화부분을 보완하면 학교문화예술 사회문화예술 영역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재원을 만들어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필요성,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다르게 함으로써 이전에 해왔던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면, 이번에 수립된 계획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사람중심으로 교육하자’, ‘양적 확대보단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하자’입니다. 이러기 위해선 지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있는 생활터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도 근거리인 지역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심, 질 중심인 순간에 지역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항상 정책대상에서 반대로 소외되었던 문화, 예술, 복지 측면이 강조되어 학교에 있는 학생, 소외계층, 생존약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이 정책 대상에서 상당부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왜 하는 것이냐 한다면,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집행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종합계획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역중심은 당연히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전체 시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강화해서 실제로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시설, 문화예산이 많기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문화적 인식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꾸준히 키워내어야 하며 문화시민을 키우기 위해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학교교육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도 다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키고, 문화다양성 존중을 이해시켜가야 합니다. 문화를 통해 지역 재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재생 있어 주민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좀 더 이 분들이

다르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접근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합,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통해 지역체계 문화도시를 구축해야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전환, 문화예술교육 전문 공간 구축 등 주요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대부분 지역으로 이관하여 역할을 재조정 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았을 때 광역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거를 보면 이 센터들의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지역사업이라 함은 문체부 지역특성화, 꿈다락 사업의 대부분 학교예술강사 파견정도로 사고가 묶여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직성과 관성을 어떻게 넘어서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중심이라 했을 때, 행정단위로 보면 삶의 터전을 기초자치단체로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 광역과 어떻게 연계 할 것인지, 그리고 광역 플랫폼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기초 거점을 만들고 확대하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개인단위가 아닌 동네 단위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문제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개인단위로 하다 보니 개인의 기능, 취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마을단위, 작은 공동체 단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 문화예술교육 영역과도 융합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본다면 UN에서 지금 제기하는 지구 공동체 목표들, 지표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인류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니 하나의 지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 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사업을 만들고 있으며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점을 중심으로 기초단위에 펼쳐져 있는 문화기반 시설 등을 어떻게 연계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꽤 많은 문화기반 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각각의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이루어 만들어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지역과 연결되는 것이 그동안 취약했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을 진지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분권화, 정책체계화 수요 특성화 융합특성화 등 기존의 계획에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터전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비로소 찾아오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인식전환이 이에 맞게 필요합니다. 인식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부분들부터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동심원을 확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 플랫폼을 만들고 기초로 어떻게 넘어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발표자3.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 3: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과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과 이에 맞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16년도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충남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연구는 처음으로 중앙 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권의 자료를 받고, 새롭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종합계획을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은 도와 시군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진흥원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화영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국공립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진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진흥원 자체 조사내용이며, 타 분야에 교육부, 여성부, 보건복지부등 민간부분에서는 언론기관, 종교기관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효과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남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일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보려 하였습니다. 시가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자매도시를 맺은 곳이며 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여건이 비슷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문화기반 시설 중 한 곳인 미술관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였습니다. 작품의 보존과 관리, 미술관에 대한 운영, 교육 이것들이에도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장애가 있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 삶과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자체적으로 시간을 지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사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체부의 도시재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문화예술교육의 공간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아이치현 섬머는 아이치현에서 사립고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에 대한 고민으로 방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하여 3일간 2천 여 개의 강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선생, 누구나 학생, 어디나 학교라는 콘셉트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하고 모시고 싶은 분들의 강좌 등을 통해 선행적인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7현 8개의 세미나와 법인, 교육위원회 지역 단체 후원 등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 세미나를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도서관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상교육을 어디서 해야 할까에 대해 지자체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지역 도서관을 통해 영상아카이빙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보존할 수 있는 곳이며, 방문객 또한 1석2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상영 시설인 영상홀, 미니시어터에서 상설적 상영을 하고, 이 때 프로그램은 상업적이기 보단 지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나 일반 영화관에서 하지 않은 명작을 상영합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주체기관들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역과 관련된 사업 외에 어떤 주체에서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있나 보았을 때 제가 직접 참여하였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2010년 동아일보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천사례 기획으로 친구야 같이 놀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최는 동아일보, 경기도연천구청,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연천수레홀아트홀, 후원은 한진중공업이 하였습니다. 대상은 연천군 중고등학교 청소년 중 중1부터 고3 까지 21명이었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별리로 미운오리 새끼 공연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해당되는 중고등학생 200여명이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직접 동아일보 기획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하는 문화예술교육 이외에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각각 문화기반 시설, 문화재단에서 어려운 부분,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공공도서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문화기반시설은 2016년도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단순 관람형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형으로 확대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점교육으로 되어 있고 이용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문화예술을 참여하는 대상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본 것입니다. 2013년에 중점교육대상은 노인과 성인, 2015에는 성인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예회관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참여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정책여건 마련입니다. 이것은 올해 진행하는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모델개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방문화원은 중점교육 대상으로 2013년 성인에서 2015년 어린이 성인 기타로 대상이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교육 대상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설문에는 주 이용자가 노인으로 나타났지만 다양한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직접 이용하는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은 중점교육대상과 이용자 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 시간강사수가 3년간 27.8명에서 5.6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어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충남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의 자원 및 재원 확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보,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등이 종합계획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지역 문화재단 부분은, 거점으로 되어 있는 충남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기초문화재단과 교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문을 받았을 때 어려운 부분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서로 간에 역할을 분배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은 후에 협의체 구성 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사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보강은 이러한 교육과정에 공동제작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여자의 수요자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기본 방향 추진전략은 첫 번째, 생애주기와 교육 대상별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

체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문화기반시설과 충남문화 재단과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교류와 교육시군별 공공시설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입니다. 과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주도형, 수요자 중심의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충남문화예술교육모델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발굴하려 합니다. 이후 각각 7개 과제항목별 3~4개의 사업이 제안되어 있지만, 방대하여 오늘은 대표적인 것으로 네 가지만 소개드립니다.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과제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제안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충남 문화예술 교육 체계의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어떻게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좌장.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실장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으며, 저는 경기문화재단 기초문화대학장으로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을 기초문화대학장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2년 먼저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경기도에서 실시했었고, 저는 화두로 되어 있는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학교 문화예술교육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6억~1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사업비로만 30여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파트너를 만들어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같은 개념의 역할을 하는 지역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2~13개의 시·군만도 완성했습니다. 기초 지역 센터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세 분의 발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 토론자1. 이존관 충청도청 문화정책과장

제시된 아이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도정 시책화를 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으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300억 중에 교육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현황에 있어 1년 4개월 쯤 문화정책과장 역할을 하면서 공급자측면에서 보면 전문 인력 인프라가 도민 만족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홍보가 미비해 아직 만족감을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는 횡적, 종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자기 소관에 있어 문화예술에 대한 자존심 등으로 소통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에 영역 간 싸움이 있어 충남 문화예술 한 마음대회 개최로 성과 발표, 계획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문화 예술가들의 소통이 서로 부재해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교육이 중요한데 있어 현재 천안 50개, 아산 20~30개, 일반 시군 도 20~30개가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 문화예술파트가 70~80% 차지하고, 도서관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어 차별화를 시켜 특성화 시킨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만족감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 시민,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만족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교육이 많아 성과에 치중하고 있고, 받는 사람도 만족성이 낮습니다. 진정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참여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어떻게 참여 할 수 있을지,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며, 수준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대상에 접근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 토론자2. 이선미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교육지원법에 의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어의 개념을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 사용에 있어 시각,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예술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학생이 24만 명 정도이며, 14개 시군의 장학사님이 계시지만 총괄은 한 사람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면 충남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됩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으로 협의회,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반반이어야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충남에서도 50% 정도 받아 진행하고 있고, 충남자체 40억 중에서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는 21억이나 배정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선생님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도움 받고 있지만 예술강사 지원 사업만으로도 학교 예술교육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와 연계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살펴보면, 충남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첫 째, 연극 뮤지컬 통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바른 학교 만들기는 67교 선정 예산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은 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학교에서 전문 강사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을 요하고 있어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반면에 진행 했을 때 학생 학교 만족도가 높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학교 예술동아리지원으로 초중고에서 1개 이상 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45개교에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학교 운영비에서 예술동아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하면서, 특히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산어촌 예술문화체험 학교 운영은 작년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예술강사 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7개 군 외에 올해는 소외받는 외곽지역 보령시, 공주시로 넓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체험연계 시범교육지원청도 운영하여 예산담당 장학사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지원하여 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체험, 1회성 체험행사가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1회성 단발적 행사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폐교가 될 뻔한 학교인 광천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음악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도 신입생이 확대되고 학생들 수준, 인성발달, 진학과 연계 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고 예술교육을 하고 있다면 발표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그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체 페스티벌, 풍물놀이 한마당 등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작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지원하고 싶은 부분도 많지만 자체로는 학생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이 항상 옆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 토론자3. 변상섭 충남문화재단 부장

센터에 예산은 경직된 예산이 중심으로, 자체 예산 계획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올바르게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는 충남 문화예술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토론을 위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에 대한 문화예술정책 방향 정할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현장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현장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여건, 환경, 수요자들,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에 기반 한 공급, 강사인프라, 교육공간 등 실태 조사에 기반 한 정책 조사가 수립되길 바랍니다.

2016년에 중장기 발전방향을 진행하였고, 500샘플로 현황 조사를 했지만 신뢰성이 확보된 실태조사에 기반 한 정책 제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생애주기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생태계조성 등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거버넌스 도출이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4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 어렵습니다. 예총, 문화원은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예술단체, 개인 예술인과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는지 제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문화재단과 교류가 부족함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광역, 기초 문화재단 4군데가 2번 정도 워크숍을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넘어서 충청권 문화재단의 소통 교류를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자4.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필자는 앞서 발표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김재경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한계점은 기초지자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의 연구는 충남지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특히 생활예술활동과의 연계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주는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과제로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현장을 반영하여(광역 도와 기초 시군의 관계성) 수립해야할 정책과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는 점도 충남 현장의 문제를 잘 이끌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2010 서울아젠다>의 목표중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변화, 사회통합으로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당진문화재단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 문화예술교육의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중심, 지역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앞선 발제에 공감하며, 지역의 기초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으로 지역기반, 지역 중심이라는 전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은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미흡하지만 어떤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문제 중 하나는 개별적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는 많지만, 프로그램 수료 후 그 다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1회성으로 6개월 정도 운영 후 끝나고, 이후 연계사업이 없어 단발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교육진흥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진문화재단은 크게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문화재단기획사업, 당진문예진흥기금운영 등 4가지 큰 영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학교는 이름만 있는 학교가 아닌 단독 건물이 있는 교육센터로, 별도 시설과 별도 운영예산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실에 맞게끔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0 서울 아젠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변화에 목표를 두고 2015년에 경희대예술경영연구소를 통해 <당진문화예술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활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큐베이팅(교육), 창작공간지원, 역량강화(재교육), 활동지원(창작지원) 4단계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재단 차원에서 문화동아리창단을 지원합니다. 창단단체에 대해 재단이 소유한 공간을 활용하여 단체가 1년 동안 창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진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여 문화동아리들이 원하는 내용을 받아 역량있는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예술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문화진흥기금을 통해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 및 창작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으로 1주일을 당진문화동아리주간으로 선포하여 당진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단은 예산과 행정만 지원하고 제작과정의 계획은 시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학교의 악기교육 후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을 통한 창의성, 사회변화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당진은 시의 전폭적 지원이 잘 되어 있는 형태라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최전선은 기초자치지역입니다. 정부의 정책, 광역도의 정책 성공여부는 기초지자체 현장의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즉 지역기반, 지역수용자 중심이 토대(혹은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지역기반이라는 전제에는 지역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를 포함하는 포괄적 문화예술 환경을 의미합니다.

기초자치지역에 따라 문화예술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에 정부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정부와 광역도가 기초자치지역의 여건과 그에 따른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그것일 것입니다.

▶ 토론자5. 이종원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차장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보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수혜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게, 일본의 사례처럼 예술은 다양한 콘텐츠를 주변에서 찾아보신다면 훌륭한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하고, 즐거움의 가치도 필요하지만 결국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핵심적 가치라 생각하고, 언론사가 중시하는 것은 지역민의 교육적 활동을 위해 가능하면 다 같이 하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토론자6. 김춘경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

저는 서울 경기 강원 경남 러시아, 베트남에서 통합예술교육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제가 토론으로 준비한 내용은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과 개인과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떤 영역으로 순환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적 가치의 개념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통합으로 승화 시킬 수 있으며, 일반인 대상은 교육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로도 승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순환되고 상호 보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했던 내용을 저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사회복지형예술교육, 산업지원형예술교육, 예술영재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사회복지형, 청소년, 노인복지, 예술 치료형으로 교육을 하였을 때, 청소년을 위해서는 일반청소년 대상, 학교부적응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소외계층 중 하나인 KDB산업과 연계한 지역 아동센터소속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체인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환경,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친구들을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뒷감당해야 할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자괴감, 무기력에 빠진 친구들로 하여금 마음을 끌어 올리는 방법적 측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체는 몸을 움직이는 예술교육 통해 인은 인성교육을 통해 예술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작품의 완성을 통해 지혜를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발표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등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가합니다. 이렇게 체인지 교육을 받다보면 한 명이 성숙된 사람으로 체인지 업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경제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 경제의 관한 가치

창출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교육만 시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문화예술교육에 경계를 녹여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교육에 있어 치매예방에 효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 교육을 통해 발표 공연 내용, 테크닉을 연마해야하는데 두뇌활동을 자극하며, 발표 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 연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치매예방 활동에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록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설문지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전략과제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 10. 31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 고 》

※ **문화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예술적 감성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학습(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A. 문화예술교육 경험

A1. 귀하(학생)는 본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A1-1로 이동) ② 없음(☞ A1-3으로 이동)

A1-1. 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귀하가 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한 것은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A1-2로 이동)

- ① 유아(학령기 이전) ② 어린이(초등학생)
③ 청소년(중고등학생) ④ 성인(20-60세 미만)
⑤ 노인(60세 이상) ⑥ 기타 (직접 기재:)

A1-2. 이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모두 선택 가능, ☞ A2로 이동)

- ① 관람·감상형 ②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③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④ 기타 (직접 기재:)

A1-3. 이전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신 적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A2로 이동)

- ① 시간이 없어서 ② 문화예술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③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으로(비용 부담) ④ 흥미로운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없어서
⑤ 문화예술교육을 받을만한 시설이 없어서 ⑥ 문화예술교육의 정보가 없어서
⑦ 학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⑧ 기타 (직접 기재:)

A2. 귀하(학생)는 문화예술교육을 어떠한 경로로 알고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1개만 선택)

- ① 학교 안내 ② 가족, 친척
③ 친구, 이웃, 지인 ④ 현수막,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⑤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인터넷 카페 등) ⑥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광고
⑦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⑧ 시청, 구청, 동(읍, 면) 주민센터 등
⑨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복지시설 ⑩ 기타 (직접 기재:)

B4. 귀하(학생)는 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 | |
|----------------|-----------------|
| ① 교육 비용이 부담 | ② 교육에 참여할 시간 부족 |
| ③ 관심 있는 교육이 부족 | ④ 교통이 불편 |
| ⑤ 참여시설 부족 | ⑥ 교육안내 정보 부족 |
| ⑦ 함께 배울 사람이 없음 | ⑧ 기타 (직접 기재:) |

B5. 지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문화예술교육 시간 증가 | ② 문화예술교육 시설의 설치 |
| ③ 문화예술교육 정보 증가 | ④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수준 향상 |
| ⑤ 문화예술교육 교사, 강사의 수준 향상 | ⑥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수 확대 |
| ⑦ 참여 비용 지원 | ⑧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확대 |
| ⑨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⑩ 기타 (직접 기재:) |

B6.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무엇인지 참여하고 싶은 순서대로 1 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① 클래식(교향곡/실내악/성악/오페라) | ② 대중음악(대중가요/팝송/재즈/블루스) |
| ③ 전통음악(판소리/민요 등) | ④ 무용(발레/현대무용/전통무용) |
| ⑤ 연극 또는 뮤지컬 | ⑥ 미술 또는 사진(회화/현대미술) |
| ⑦ 전통미술(수묵화/서예) | ⑧ 공예(목공/수공예/모형 등) |
| ⑨ 영화, 영상 또는 미디어 아트 | ⑩ 문학, 글쓰기 또는 만화 |
| ⑪ 통합교육(여러 문화예술분야와 융합) | ⑫ 기타 (직접 기재:) |

B7.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 | |
|---------------------------|---------------------------------|
| ① 학교 | ②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등) |
| ③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 ④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
| ⑤ 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등의 사설기관) | ⑥ 기타 (직접 기재:) |

B8.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람·감상형 | ②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
| ③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 ④ 기타 (직접 기재:) |

B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간이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② 1개월 미만 ③ 1개월~3개월 ④ 3개월~5개월
⑤ 5개월 이상 ⑥기타 (직접 기재:)

B10. 향후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바라는 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시요.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B11. 최근 1년간 (2017.10.31.~2018.10.31.)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거나 참여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번호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행사 참여경험 횟수
1	클래식음악회, 오페라	()회	()회-단원으로 참여
2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 방송프로그램 등)	()회	()회-출연진으로 참여
3	전통음악(국악, 풍물, 민속극 등)	()회	()회-단원으로 참여
4	무용공연(발레, 현대무용, 전통무용 등)	()회	()회-단원으로 참여
5	연극 또는 뮤지컬	()회	()회-단원으로 참여
6	미술전시회(사진, 서예, 디자인 등)	()회	()회-작품전시 출품
7	영화관 상영 영화	()회	()회-출연진으로 참여
8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등)	()회	()회-시화전 등 참여
9	기타 (직접 기재:)	()회	()회

C. 응답자 기본 정보

C1. 연령	① 유아 ② 어린이 ③ 청소년 ④ 성인 ⑤ 노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20-60세 미만) (60세 이상)
C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C3. 거주 지역	_____ 시·군
C4. 직업	① 학생 ② 주부 ③ 직장인 ④ 기타
C5 최종 학력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⑥ 기타 졸업/재학 졸업/재학 졸업/재학 졸업/재학 졸업/재학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4.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설문지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전략과제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 10. 31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A1.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타 교과(언어, 수학, 과학, 사회)와 예술교육의 통합 ② 음악, 미술 등의 각 영역을 연계한 예술분야의 통합
③ 체험, 표현, 감상의 예술교육 요소 강화 ④ 실기 교육보다는 충분한 예술적 체험, 감상 경험 제공

- ⑤ 가시적인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중심 강조 ⑥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
 ⑦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 활동과의 차별화 ⑧ 기타 (직접 기재:)

※ 누리과정 :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보육과정

A2.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술적 감수성 계발 ② 예술적 표현력 계발
 ③ 예술적 사고능력 계발 ④ 기타 (직접 기재:)

A3.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수업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람·감상형 ② 체험형(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배우는 체험 활동)
 ③ 창작·제작형(연극, 무용 제작 발표회 등) ④ 기타 (직접 기재:)

A4.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예술 각 분야별(무용, 미술 등)관련 개념 및 요소 ② 예술 각 분야별 실기 표현 방법
 ③ 예술 각 분야별 작품 감상 ④ 예술 각 분야별 관련 배경 지식

A5. 유아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예술 각 분야별 영유아 발달의 적합성 ② 예술 각 분야별 핵심 개념과 요소 포함
 ③ 영유아의 예술에 대한 흥미도 반영 ④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⑤ 기타 (직접 기재:)

A6.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평가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유아의 작품 평가 ② 유아의 활동태도 평가(몰입도, 흥미도 등)
 ③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평가 ④ 유아의 예술적 역량 증진 정도 평가
 ⑤ 프로그램 구성 체제에 대한 평가 ⑥ 기타 (직접 기재:)

	유아 문화예술교육 교구재 지원	*지원이 필요한 교구재 종류 기입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	*연수지원 내용 및 방식 등 기입
	지역 문화인프라(미술관, 박물관, 문화재단 등) 프로그램 연계 정보 제공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 기입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	
	기타 (직접 기재:)	

B3. 향후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기타 건의사항 또는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C. 응답자 기본 정보

C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C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C3. 거주 지역 _____ 시·군
C4. 담당 업무	① 원장/원감 ②부장 또는 ③비담임교사 ④비담임 ⑤기타 담임교사 (시간제, 방과후 교사) 보조교사 (_____)
C5. 유아 연령	① 3세 미만 ② 4세~5세 ③ 6세~7세 ④ 혼합 연령
C6.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재학 이상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5.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설문지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전략과제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 10. 31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 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 고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의 **예술영역**, 문화재 및 문화유산 등의 **역사문화영역**, 생활문화 내용 영역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 미술관/박물관의 경우, 전시 연계 프로그램(예: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 및 박물관 투어·체험프로그램 등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A. 기관의 일반적 현황

A1. 기관명	A2. 설립(개관)연도		_____년						
A3. 기관법적성격	① 국/공립 ② 사립 ③ 기타 ()								
A4. 기관종류	① 문예회관 ② 문화의집 ③ 문화원 ④ 도서관 ⑤ 박물관 ⑥ 미술관 ⑦ 기타()								
A5. 기관 소재지	① 천안시 ② 아산시 ③ 보령시 ④ 공주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A6. 시설 운영주체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위탁운영 ④ 시립(개인, 기업) ⑤ 기타 ()								
A7. 시설 보유여부	① 자체기관 시설 보유 ② 타기관 시설 임차 또는 임대 계약								
A8. 연간 이용자 분포 (2018년의 전반적 분포)	총 이용자 수(연간): _____명 (2018년 기준)								
	연령 구분	유아 (학령기 이전)	어린이 (초등학 생)	청소년 (중고등 학생)	성인 (20~60 세 미만)	노인 (60세 이상)	특수계층 (장애인, 이주민 등)	기타	계
	8-1. 방문자비율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약 %	100%
	성별		남성		여성		계		
8-2. 방문자비율 (성인 기준)		약 %		약 %		100%			
A9. 직원 및 교육담당 인력 (2018년 11월 기준)	9-1. 전체 직원 수 (2018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명	명	명	명			
	※ 주 업무 :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담당하거나, 주 업무로 하는 직원 ※ 부 업무 : 문화예술교육을 업무로 분담하여 하는 직원, 주 업무는 따로 있으며 예술교육 업무를 부 업무로 하는 직원								
	9-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인원 수(2018년)								
전체 (A+B)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총 인원(A)	주 업무	부 업무	총 인원(B)	자체예산 수급인력	지원사업예산 수급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A10.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예산	기관 총 예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2018년)						
			총 예산	자체 예산	외부 지원예산	예산 지원 기관			
	백만원		백만원	%	%				
A11. 문화예술교육실시여부 (2018년 기준)	① 실시 ② 미실시								
A1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비중 (2018년 기준)	12-1. 총 운영 프로그램 수 (A): _____개 12-2. (A)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_____개 ※ 12-2에서 답변하신 수에 따라 문항(B2)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B.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B1. 귀 기관에서는 2018년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응답 ①은 B2로 이동, ②는 B5로 이동)

① 있음

② 없음

B2. 귀 기관에서 2018년에 개설한 모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A12-2에서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대상 구분	유아(만 5세 이하)	아동(만 6세~11 세)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60세 이상)	다문화(부모 중 1명이 외 국인인 경우)	가족 단위	기타	전체
계(전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프로그램 명	주 대 상 (B2-1)	대상2 (B2-2)	참여 인원 (1회 기준)	기 간 (B2-3)	총 횟 수	프로그램 내용			수강료 유무 (O, X)	지 원 여 부 (B2-7)
						유형 (B2-4)	장르 (B2-5)	학습 방식 (B2-6)		
(예시)미술관 학습 체험	①	①	20명	①	20회	②	②	②	X	①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B2-1. 주 대상 1

①유아 ②어린이(초등학생) ③청소년(중고등학생) ④성인(20~60세 미만) ⑤노인(60세 이상) ⑥복합(가족) ⑦기타

B2-2. 대상 2

① 일반 계층 대상 ② 특수 계층(장애인/저소득 층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③기타

B2-3. 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3개월 미만 ③ 3개월~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B2-4. 유형

① 예술 영역(미술, 음악, 등) ② 역사문화영역(문화유산, 문화재 등) ③ 생활문화 영역(여가, 취미 등) ④ 기타

B2-5. 장르

①미술 ②음악 ③국악 ④무용 ⑤연극 ⑥영화 ⑦공예 ⑧디자인 ⑨만화애니 ⑩사진 ⑪문화유산 ⑫복합 ⑬기타

B2-6. 교수학습 방식

①강좌·교습 ②체험과 실습 ③단기성 프로젝트(공연 및 전시, 관람 포함) ④ 복합형(관람+체험) ⑤기타

B2-7. 지원 사업 여부

① 자체 예산 사업 ② 지원 예산 사업 ③ 기타(복합 포함)

B3. 귀 기관은 외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응답 ④는 B4로 이동, ①, ②, ③은 B5로 이동)

- ①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고, 2018년에도 받았다
- ②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18년에는 받지 않았다
- ③ 과거에 받은 경험이 없고, 2018년에 처음 받았다
- ④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B4. 귀 기관은 왜 외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B5.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자체적인 필요와 외부의 지원, 둘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 ①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②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 ③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B6.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의 사업방침(기관 대표의 의지)
- ②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 ③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 ④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⑤ 기관 홍보
- ⑥ 관객개발 확보 차원
- ⑦ 기타 (직접 기재:)

B7. 귀 기관에서는 개설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 ④ 수강료는 받지 않고 기관회원으로서의 회비만 받음
- ⑤ 기타(직접 기재:)

B8.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요 및 만족도, 평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18년 기준)

1. 수요 조사	프로그램 기획 전 요구사항 조사·파악을 위한 조사시행	①예	②아니오
----------	-------------------------------	----	------

번호	항 목	예	아니오
D3-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D3-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다.		
D3-3	새로운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D3-4	새로운 콘텐츠(내용)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D3-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D3-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다.		

D4. 귀 기관을 대표하여 응답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③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④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⑤ 기관 내 설비·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 ⑥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체 육성
 ⑦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⑧ 관련법 정비
 ⑨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⑩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⑪ 기타 (직접 기재:)

D5.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과 지원
 방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 예산 제외)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E. 응답자 기본 정보

E1. 응답자 연령	만()세	E2. 응답자 연락처	Tel.
E3.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E4. 응답자 직위	
E5. 응답 담당업무			
E6. 응답자 경력 (관련 직종 누적)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이상 ⑤ 10년 이상		
E7. 응답자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재학 이상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6. 문화재단 관계자 설문지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관계자 대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전략과제인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재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8. 10. 31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 고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의 **예술영역**, 문화재 및 문화유산 등의 **역사문화영역**, 생활문화 내용 영역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 미술관/박물관의 경우, 전시 연계 프로그램(예: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 및 박물관 투어·체험프로그램 등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A. 재단(센터)의 일반적 현황

A1. 재단명			A2. 설립(개관)연도	_____년																							
A3. 재단 소재지	_____ (시/군/구)																										
A4. 직원 및 교육 담당인력 (2018년 11월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th> <th colspan="3">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th> </tr> <tr> <th>총인원(A)</th> <th>자체예산 고용인력</th> <th>지원 사업 고용인력</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r> <td>기간제 계약직</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r> <td>기타</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body> </table> <p>※ 광역문화예술교육 자원센터 인력은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한 고용 인력입니다.</p>				구분	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			총인원(A)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 사업 고용인력	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간제 계약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구분	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																									
		총인원(A)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 사업 고용인력																							
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간제 계약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A5. 재단 사업 분야 (2018년 기준)	<p>※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① 공간/시설 운영</div> <div style="width: 50%;">② 문화예술교육</div> <div style="width: 50%;">③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div> <div style="width: 50%;">④ 창작 및 활동 지원</div> <div style="width: 50%;">⑤ 축제 기획 및 운영</div> <div style="width: 50%;">⑥ 시민 대상 문화예술사업</div> <div style="width: 50%;">⑦ 문화나눔 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div> <div style="width: 50%;">⑧ 국제 교류</div> <div style="width: 50%;">⑨ 연수 및 아카데미</div> <div style="width: 50%;">⑩ 정책 연구</div> <div style="width: 50%;">⑪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div> <div style="width: 50%;">⑫ 위탁 및 협력사업</div> <div style="width: 50%;">⑬ 대외 정보서비스</div> <div style="width: 50%;">⑭ 기타 (_____)</div> </div>																										
A6. 사업비 예산 (2018년 기준)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td> </tr> <tr> <td colspan="4">※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8년) / 단위: 백 만원</td> </tr> <tr> <th>총 예산</th> <th>자체 예산</th> <th>예산 지원 기관</th> <th>외부 지원 예산</th> </tr> <tr> <td rowspan="4"></td> <td rowspan="4"></td> <td>(공공)_____</td> <td></td> </tr> <tr> <td>_____</td> <td></td> </tr> <tr> <td>(민간)_____</td> <td></td> </tr> <tr> <td>_____</td> <td></td> </tr> </table>				※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8년) / 단위: 백 만원				총 예산	자체 예산	예산 지원 기관	외부 지원 예산			(공공)_____		_____		(민간)_____		_____		
※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8년) / 단위: 백 만원																											
총 예산	자체 예산	예산 지원 기관	외부 지원 예산																								
		(공공)_____																									

		(민간)_____																									

<p>A7.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2018년 기준)</p> <p>① 있음 ② 없음</p>																											

B.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B1. 다음은 귀 지역과 재단의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1	우리 재단은 <u>문화예술교육</u>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u>인력(조직)</u> 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2	우리 재단에서는 <u>문화예술교육</u>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3	우리 재단은 <u>문화예술교육</u> 사업 운영을 위한 <u>자체 예산</u> 을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4	우리 재단이 위치한 <u>지역</u> 주민들은 <u>문화예술교육</u> 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B1-5	우리 재단이 속한 <u>지자체</u> 에서는 <u>문화예술교육</u> 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B1-6	우리 재단은 <u>문화예술교육</u> 프로그램 <u>강사 인력</u> 을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B1-7	우리 재단은 <u>문화예술교육</u> 사업 <u>수행기관/단체</u> 를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C1. 귀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자체적인 필요와 외부의 지원, 둘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2018년 기준)

- ①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②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 ③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C2. (2018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귀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응답)

- ① 재단의 사업방침(재단 대표의 의지)
- ②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 ③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광역센터지정 등)
- ④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⑤ 기관 홍보
- ⑥ 관객개발 확보 차원
- ⑦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 ⑧ 기타 (직접 기재:)

C3. 귀 재단에서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뒷 문항 'F(엑셀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② 없다

C4. 귀 재단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요 및 만족도, 평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18년 기준)

1. 수요 조사	사업 기획 전 요구사항 조사·파악을 위한 조사시행	①예	②아니오
2. 만족도 조사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파악을 위한 조사 시행	①예	②아니오
3. 평가 조사	사업 기획에서 운영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조사 시행(모니터링 포함)	①예	②아니오

C5. 귀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개까지 응답)

- 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 미흡 ② 예산, 재정확보
 ③ 재단의 전문·전담인력 부족 ④ 재단 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⑤ 재단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 ⑥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재단 내)
 ⑦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 부족) ⑧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⑨ 사업 수행기관/ 단체 선정의 어려움 ⑩ 지자체의 인식 부족
 ⑪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⑫기타 ()

D.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계획

D1. 귀 재단에서는 향후에 재단 자체예산을 투입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외)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9년 기준)

- ① 있다 ② 없다

D2. 귀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대상을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자체 또는 위탁문화예술교육 모두 대상, 2019년 기준)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① 유아(학령기 이전) | ② 어린이(초등학생) |
| ③ 청소년(중고등학생) | ④ 성인(20-60세 미만) |
| ⑤ 노인(60세 이상) | ⑥ 복합(가족 등) |
| ⑦ 특수목적 계층(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 ⑧ 기타 (직접 기재:) |

D2-1. 귀 기관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대상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주시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①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②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③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 ④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
| ⑤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 ⑥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
| ⑦ 기타 (직접 기재:) | |

D3. 귀 재단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지원 | ②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
| ③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 ④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
|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확대 | ⑥ 관련법 정비 |
| ⑦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 ⑧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 ⑨ 관련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 제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
| ⑩ 기타 (직접 기재:) | |

D4.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E. 응답자 기본 정보

E1. 응답자 연령	만()세	E2. 응답자 연락처	Tel.
E3.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E4. 응답자 직위	
E5. 응답 담당업무			
E6. 응답자 경력 (관련 직종 누적)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이상 ⑤ 10년 이상		
E7. 응답자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재학 이상		

F. 2018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현황

※ 귀 재단에서 2018년에 운영한 모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첨부한 ‘엑셀 파일(별첨)’에 별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제이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임자문 · 김춘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외부참여 · 김미정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정다은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전략연구 2018-44 · 충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방안

글쓴이 · 정지은, 이제이

발행자 · 윤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8년 12월 31일 / 발행 · 201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5(지역도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61-9-03350

www.cni.re.kr

© 2018.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